目　　次

序　文 1

第 1 部　調査方法 4

第 2 部　調査結果 15

　第 1 編　統一問題에　対한　意見 17

　　1．統一에　対한　関心 19

　　2．統一問題에　対한　消息源 29

　　3．統一에　対한　희구도 34

　　4．統一時機에　対한　見解 40

　　5．分断　및　不統一의　責任 44

　　6．統一　対備態勢 51

　　7．統一努力의　主体와　國民姿勢 60

　　8．統一方案 66

　　9．統一障碍要素의　素材 73

　　10．自由統一下의　生活 76

　第 2 編　統一과　関聯된　情勢観 83

　　1．周辺　情勢観 85

　　2．南・北　力量에　対한　見解 99

　第 3 編　反共意識 127

　　1．北韓同胞　説得自信度 129

　　2．武装共匪事件에　対한　反応 133

　　3．反共講演会의　成果 139

4. 反共団体의 整備問題 152
第4編 南·北交流에 対한 意見 157
1. 統一会談에 対한 意見 159
2. 家族찾기運動 提議에 対한 評価 163
3. 赤十字会談의 方向 171
4. 赤十字会談과 國民姿勢 175
5. 南·北交流問題 176
6. 家族交流時의 態度 179
7. 交流의 優先順位 184
第5編 其他事項에 対한 意見 185
1. 8·15宣言 評価 187
2. 統一에 対備한 指導者型 194
3. 統一에 対備한 施策方向 198
4. 統一院의 役割 198
第3部 結論 및 建議 201
1. 結 論 203
2. 建 議 207

序　文

第 1 部　調　査　方　法

(1) 本　調査의　特徵

(2) 標　本　設　計

(3) 調　　査　　員

(4) 調　査　日　時

(5) 面接対象者와　標準
対象者의　差異

序 文

分斷된 国土를 統一하여야겠다는 念願은 우리에게는 切実한 것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것은 民族의 地上目標이기도 하다.

그러나 当為(Sollen)로 내세워지는 統一은 現実(Sein)의 기반 위에 서지 않으면 않될 것이다. 現実的으로 基盤이 없는 統一 論議는 하나의 口号에 그치고 말 것이며 자칫하면 政治家의 政争의 道具가 되어 国民을 그릇되게 引導할 念慮마저 없지 않다

現実的 基盤 위에서 統一을 向한 발을 한 발작씩 딛여 갈 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方向에서 統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現実的 基盤이란 한마디로 国内外情勢와 合致되는 것을 意味하며 国民的 輿論이 뒷받침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統一問題를 다루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그 問題에 対한 国民의 輿論을 正確히 把握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런 뜻에서 본 調査研究는 統一政策 및 그와 関聯되는 安保政策과 言論政策·教育政策等을 樹立하는데 있어 参考資料를 提示하기 為하여 実施하였던 것이다.

統一問題는 너무도 広範하고 包括的인 性格을 지니기 때문에 単純히 統一의 方法이라든가 時期라든가에 국한 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統一問題 自体를만 아니라 그에 関聯되는 国民의 情勢観·北韓社会에 対한 認識·反共意識等 広範圏한 問題에 걸친 国民의 意見과 態度의 反応을 調査하였다.

範圏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特定分野에 対한 重点的인 意見調査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綜合的으로 統一問題를 다루어야 한다는 点에서는 意義가 있을 것으로 본다. 特히 이렇게 広範圏한 調査는 이번이 最初라는 뜻에서 資料로서의 意義도 크다고 생각된다.

第 1 部　調 査 方 法

(1) 本調査의 特徵

本調査는 国土統一에 関한 内容을 当局에 依해서 주어진

① 全国을 調査対象地域으로

② 標本数 다시말해서 調査対象者 2,000名을 条件으로 한 国民 輿論調査이다.

調査設計에 앞서 이와 같은 輿論을 形成하는 国民層으로서 男子 20歲以上 調査対象者로 決定하였으며 이러한 輿論에 作用하는 主要変数로는

① 年齡

② 教育水準

③ 職業

④ 居住地로서의 都市와 農村의 4個를 択하였다.

(2) 標本設計

以上의 基準에 따라 大韓民国 国民 男子 20歲以上의 모集団으로부터 주어진 2,000名의 調査対象者를 標集하기 為하여 割当標集方法을 使用하였다. 具体的인 표집作用에 있어서는 1966年 国勢調査報告書와 1970年 国勢調査年報를 표집資料로 하였다. 표집에 있어서 済州道는 調査対象地域에서 提外였으며 1970年 現在 人口 5萬以上의 邑부는 市부로 看做하였다.

于先 1966年 国勢調査報告書에 따라 市道別, 市, 郡부別 男子 20歲以上 人口를 推定하고 이에 따라 地域別로 割当된 標本数는 다음의 표 0 - 1 과 같다.

<表０－１>　　市道別　市郡區別　標本配当表（済州道　除外）

市道別	市郡別	20歳以上推定人口（1970）	20歳以上　男子推定人口（1970）	(%)	標本配当数 市郡別	市道別標本配当数
서울	市	2,818,016	1,409,008	19.1	382	382
釜山	市	910,264	455,132	6.2	124	124
京畿	市	603,735	301,868	4.1	82	220
	郡	1,024,728	512,364	6.9	138	
江原	市	258,508	129,254	1.8	36	120
	郡	626,717	313,359	4.2	84	
忠北	市	135,497	67,749	0.9	18	92
	郡	551,067	275,534	3.7	74	
忠南	市	227,233	113,612	1.5	30	178
	郡	1,089,176	544,588	7.4	148	
全北	市	208,842	104,421	1.4	28	150
	郡	893,535	446,768	6.1	122	
全南	市	391,221	195,611	2.7	54	246
	郡	1,423,002	711,501	9.6	192	
慶北	市	708,344	354,172	4.8	96	290
	郡	1,426,797	713,499	9.7	194	
慶南	市	324,781	162,391	2.2	44	198
	郡	1,142,083	571,042	7.7	154	
済州	市	50,992	25,496			
	郡	127,261	63,601			
全国	市	6,600,523	3,318,714			
	郡	8,304,810	4,152,256			
	総	14,905,333	7,470,970			
全国（済州除外）	市	6,549,531	3,293,218	44.6	894	
	郡	8,177,609	4,088,655	55.4	1,104	
	総	14,727,140	7,381,873	100.0	2,000	2,000

다음으로 本是 1966年 国勢調査資料에 따라 市, 郡部別로 본 年齢別, 教育水準別 및 営農, 非営農 計数를 算出하여 이를 前記 推定된 市道別, 市郡別 地域에 割当하였다. 割当된 地域別(市, 郡部別), 年齢別, 教育水準別 및 営農 非営農別, 標本割当表를 보면 表0 - 2와 같다.

<表 0 - 2>

地域別, 年齢別, 教育水準別, 営農 非営農別 標本割当表

全 国

年齢	総数					営農					非営農				
		教育程度					教育程度					教育程度			
	計	無学	国校	中高	大学	計	無学	国校	中高	大学	計	無学	国校	中高	大学
20代	710	25	253	314	118	308	14	138	123	33	402	11	115	191	85
30 〃	519	56	213	182	69	224	32	110	64	17	295	22	103	118	52
40 〃	359	112	142	84	21	156	67	63	24	2	203	45	79	60	19
50 〃	240	182	71	32	5	113	76	28	9	-	127	56	43	23	5
60 〃	172	141	19	11	1	93	80	8	5	-	79	61	11	6	1
計	2,000	465	698	623	214	894	270	347	225	52	1,106	195	351	398	162

市部

年齢	総数 計	総数 教育程度 無学	国民	中高	大学	営農 計	営農 教育程度 無学	国民	中高	大学	非営農 計	非営農 教育程度 無学	国民	中高	大学
20代	339	3	71	173	92	43	—	9	21	13	296	3	62	152	79
30 〃	250	7	72	116	55	31	—	9	16	6	219	7	63	100	49
40 〃	164	18	65	61	20	15	1	7	6	1	149	17	58	55	19
50 〃	92	24	39	24	5	7	1	5	1	—	85	23	34	23	5
60 〃	49	30	11	7	1	5	3	1	1	—	44	27	10	6	1
計	894	82	258	381	173	101	5	31	45	20	793	77	227	336	153

郡部

20代	371	22	182	141	26	265	14	129	102	20	106	8	53	39	6
30 〃	269	48	141	66	14	193	33	101	48	11	76	15	40	18	3
40 〃	195	94	77	23	1	141	66	56	18	1	54	28	21	5	—
50 〃	148	108	32	8	0	106	75	23	8	0	42	33	9	—	—
60 〃	123	111	8	4	0	88	77	7	4	0	35	34	1	—	—
計	1,106	383	440	242	41	793	265	316	180	32	313	118	124	62	9

셋째로 職業을 都·非農別로 大分한에 対한 非農部分의 職業間의 均衡을 맞기 위해서는 1966年 国勢調査資料를 通해서 아래의 表 0-3과 같은 非農職業에 対한 市·郡部別 年齢別 職業比率表를 調査員에게 配布하여 非農 調査対象者 選択時 参考하도록 하였다.

<表 0-3> 年齢別 市·郡別 非·農業職業比(男子), 1966

職業	市部(都市地域)						郡部(農村)					
	年齢						年齢					
	計	20	30	40	50	60+	計	20	30	40	50	60+
専門職·技術職	6.7	5.8	8.0	6.1	5.2	9.6	9.9	10.2	12.6	8.1	5.3	11.3
管理職	3.2	1.1	3.1	6.5	6.2	5.5	1.9	0.6	1.5	3.4	3.2	1.5
事務職	14.7	14.8	18.5	13.1	6.7	3.9	11.0	11.3	14.4	9.4	4.1	2.0
販売職	23.6	18.7	22.8	25.8	33.8	44.3	22.2	17.7	19.7	24.7	33.9	37.7
農·林·漁 鉱夫·採石夫	0.4	0.3	0.3	0.3	0.5	0.2	6.2	7.8	7.1	4.9	12.8	0.8
交通·通信	5.0	4.8	6.3	4.6	2.6	1.2	3.8	3.9	4.4	3.5	12.3	1.1
技能工	39.1	45.1	35.0	38.5	40.0	30.5	38.0	38.3	34.1	40.4	44.8	41.9
써비스	6.8	9.4	6.5	5.1	5.0	4.8	7.0	10.2	6.8	5.6	3.6	3.7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넷째로 割当된 市道別 및 市郡部別 標本数를 基準으로 調査地域을 抽出하는데 있어서 하중된 確率比率표집方法(-PPS)에 依하였으며 이에 따라 抽出된 市道別 市郡部別 調査対象地域은 다음의 表 0-4와 같다.

<表 0 - 4>　　標本抽出地域（市道別 - 市郡別）

市道別	市・郡別	抽出된　洞（面）의　名
		梨花洞，峯洞 2，3 街，崇仁 2 洞，典農 1 洞， 踏十里 3 洞，里門 3 洞，忘憂洞，新堂 8 洞， 麻場 2 洞，金湖 3 洞，華陽洞，城內洞，東小門洞 安岩2洞，龍岩2洞，新阿 7 洞，水谷 2 洞，石貫洞，上鳳 3洞，冷泉洞，平昌洞，延禧 1 洞，상암洞，龍岩 1 洞，阿 峴 1 洞，楡花 2 洞，西橋洞，元曉 2 洞，漢南 1 洞，上道 2洞，本洞，西소洞，新大方洞，加里峰洞，고척洞， 道林 1 洞，신정동
京畿	市　部	新興 3 선화동，금곡 1，2 洞　九月洞，崇義 3 洞，가정， 신현성南洞（仁川），지만동（水原）
	郡　部	양주郡，東豆川，安養邑　（始興）
	郡　部	広州郡，華城郡，平沢郡，양평郡
江原	市　部	후평洞（春川），鳳山 2 洞（原州）
	郡　部	横城郡，春城郡，原城郡
忠北	市　部	우암洞（清州），駅前洞（忠州）
	郡　部	清原郡，報恩郡
忠南	南　部	관암洞，선화 1 洞，文化洞（大田）
	郡　部	論山郡，洪城郡，扶餘郡，牙山郡
全北	市　部	太平洞，1 街洞，인후 2 가洞（全州），동남洞（群山）
	郡　部	井邑郡，金堤郡，完州郡
全南	市　部	鶏林 1 洞，芳林 1 洞，유洞，본촌洞（光州）
		竹橋 1 区（木浦），광무洞（麗水）
	郡　部	羅州郡，康津郡，霊光洞，務安郡，光山郡

市道別	市郡別	抽出된 洞(面)의 名
慶南	市部	忠武·三千浦·馬山·鎭海
	郡部	昌原郡·泗川郡·金海郡·昌寧郡
慶北	市部	鳳山1区·新岩4区·中洞·飛山洞1·元岱3·鳳徳2洞
		七星2個区洞(大邱)·무일洞(金泉)·尙州邑(尙州郡)
		학산洞(浦項市)
	郡部	에川郡·奉化郡·清道郡·漆谷郡·金陵郡

(3) 調査員

調査員으로는 本調査 内容에 対한 信憑性을 높이기 為하여 東国大学校 行政大学院 및 大学生中 抽出된 調査地域에 可能한 限 縁故를 가진 学生 7·8名이 選出되었으며 3次의 調査 Orientation을 받았다.

(4) 調査時日

調査員은 1971年 10月 21日부터 12月 21日까지 60日間에 걸하여 実施하였으며 附表1과 같은 構造化된 調査表를 가지고 調査対象者를 選出하여 面接方式을 通해서 타기式으로 答이 記入되었다.

(5) 이러한 方式을 通해서 実際面接調査된 対象者와 標準対象者와의 差異를 比較하면 市道別은 表0-5·年齢別 市·郡部別은 表0-6 年齢別·教育水準別은 表0-7·市·郡部別 官·非農別은 表0-8·그리고 年齢別·官·非農別은 表0-9와 같다.

<表０－５> 市道別，標本割当表

市道別	設計標本数	実施標本数
釜山	124	125
京畿	220	222
江原	120	121
忠北	92	94
忠南	178	177
全北	150	152
全南	246	244
慶北	290	290
慶南	198	179
서울	382	378
計	2,000	2,000

<表０－６>

調査区 年齢別 市郡部別 割当表（全国）

年齢	計	市・郡部		
		市	郡	未詳
20代	691	310	381	
30〃	525	261	264	1
40〃	375	162	212	
50〃	236	90	146	
60〃	169	49	120	
未詳	4	3	0	1
計	2,000	875	1,123	2

<表０－７>　　調査区　年齢別　教育水準別（全国）

年　齢	計	教育程度			
		無　学	国・民	中・高	大　学
20　代	691	25	256	297	113
30　〃	525	55	216	183	71
40　〃	375	112	148	91	24
50　〃	236	126	74	32	4
60　〃	169	135	21	12	1
未　詳	4	1	0	1	2
計	2,000	454	715	616	215

<表０－８>　　調査区　市郡部別　営・非農別割当表（全国）

職　業	計	市	郡	未詳
		시	郡	
営　農	887	107	779	1
非営農	1,111	767	344	0
未　詳	2	1		1
計	2,000	875	1,123	2

<표 0 - 9>　　調査된　年齡別　營·非農別　分布 (全國)

年　齡	計	職　　業		
		營　農	非營農	未　詳
20 代	691	304	387	
30 〃	525	217	307	1
40 〃	375	164	210	1
50 〃	236	109	127	
60 〃	169	91	78	
未　詳	4	2	2	
計	2,000	887	1,111	2

(6) 集　計

蒐集된　調査表는　Editing된　後　oding sheet에　옮겨졌으며 IBM에　依한　機械集計가　되었다.

第2部 調 査 結 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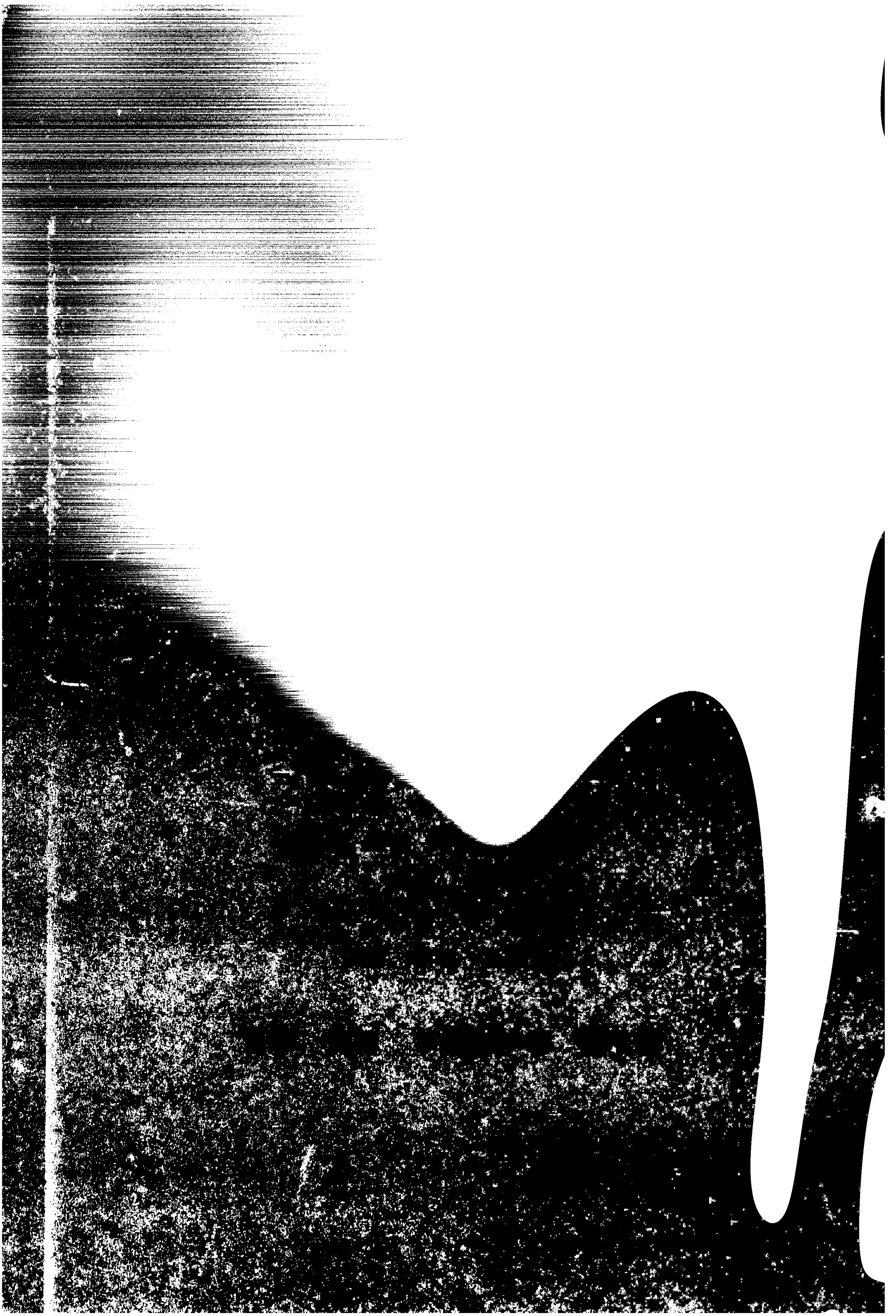
第1章 統一問題に対する意見

第2章 統一と国際社会の協調

第3章 反共意識

第4章 同胞愛意識に対する意見

第5章 北朝鮮観に対する意見



第 2 部　調査結果

第 1 篇　統一問題에 対한 意見

1. 統一에 対한 関心

가. 関心度

統一問題에 対한 関心의 程度(設問: 統一問題에 対해서 関心을 가지고 있읍니까?)를 물은 結果는 다음 表 1-1과 같다.

<表 1-1>　統一問題에 対한 関心度(全体)

区分	名数	%
아주 많이 갖고 있다	1242	62.1
조금 갖고 있다	556	27.8
별로 갖고 있지 않다	166	8.0
조금도 갖고 있지 않다	28	1.4
無応答	8	0.3
計	2,000	100.0

위의 表에서 보듯이 統一問題에 対해서 関心을 가지고 있는 比率은 89.9%이라는 絶対数를 보이는데 反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不過 9.7%인 것이다.

統一에 이렇게 많은 関心을 가지고 있는 理由는 主로 「民族의 再結合」과 国家復興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関心이 있다고 한 1,797名中에 関心의 理由로는 民族再結合이 823名, 国家復興이 457名, 平和維持가 196名, 家族의 再会가 153名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個人的 理由(家族의 再会)보다는 民族的 国家的인 理由에서 統一에 関心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에 対해서 無関心의 理由는 오히려 個人的인 것이 월씬 앞

서고 있다. 즉 統一問題에 関心을 갖지 않는 195名中 68名은 生活하느라 精神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28名은 現状態에서의 生活에 満足하기 때문에 関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個人的理由는 統一이 実現되기 어렵기 때문에 関心이 없다는 53名 보다 많은 数이며 統一問題에 対한 判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28명보다도 상회한다. 따라서 現実生活에 크게 満足하는 層과 또 하루 하루의 生活에 쪼들리는 層이 統一問題에 関心을 안갖는다는 것이된다.

앞에서 본 住民全体의 統一에 対한 関心度를 対象者의 年齢·教育水準·職業·都市와 農村·道別로 보면 다음 表1~2·3·4·5·6과 같다.

<表 1-2> 統一問題에 対한 関心度(年齢別)

区分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名	%	名	%	名	%	名	%	名	%
아주 많이 갖고 있다	424	61.3	353	67.2	238	63.3	134	56.7	90	53.2
조금 갖고 있다	205	29.7	134	25.5	97	25.9	73	30.6	45	27.8
別로 갖고 있지 않다	51	7.3	33	6.2	31	8.2	23	10.0	28	16.5
조금도 갖고 있지않다	7	1.0	4	0.7	6	1.6	6	2.5	5	2.9
無応答	4	0.4	1	0.1	3	0.7				

<表 1-3> 統一問題에 対한 関心度(教育水準別)

区分	無学		国民		中高		大学	
	名	%	名	%	名	%	名	%
아주 많이 갖고있다	240	52.8	441	61.68	410	65.10	160	74.42
조금 갖고 있다	126	27.7	198	27.69	185	30.03	47	21.86
별로 갖고있지 않다	69	15.2	63	8.81	26	4.22	8	3.72
조금도 갖고있지않다	18	3.9	8	1.32	2	0.32		
無応答	1	0.2	5	0.70	2	0.32		

<表 1-4> 統一問題에 対한 関心度(職業別)

区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아주 많이 갖고 있다	547	61.67	695	62.56
조금 갖고 있다	236	26.61	319	28.71
別로 갖고있지 않다	87	9.81	79	7.11
조금도 갖고있지않다	16	1.80	12	1.08
無 応 答	1	0.11	6	0.54

<表 1-5> 統一問題의 関心度(道別)

区分	아주많이갖고있다		조금 갖고있다		별로갖고있지않다		조금도갖고있지않다		無応答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82	35.60	35	28.00	6	4.80	1	0.080	1	0.80
京畿	128	57.66	73	32.88	18	8.11	2	0.90	1	0.45
江原	78	64.46	31	25.62	2	1.65	10	8.26		
忠北	38	40.43	36	38.30	19	10.21				
忠南	110	62.15	58	32.77	8	4.52	1	0.56		
全北	105	69.08	32	21.05	13	8.55	2	1.32		
全南	167	68.44	46	18.85	27	11.07	4	1.64		
慶北	216	74.48	52	17.93	20	6.90	1	0.34	1	0.34
慶南	86	43.65	79	40.10	27	13.71	5	2.54		
서울	232	61.38	114	30.16	26	6.88	2	0.53	4	1.06

<表 1 - 6 > 統一에 対한 関心度 (市郡別)

区分	郡		市	
	名	%	名	%
아주 많이 갖고있다	557	63.66	685	61.00
조금 갖고 있다	250	28.57	305	27.16
별로 갖고 있지않다	55	6.29	111	9.88
조금도 갖고있지않다	7	8.0	21	1.87
無 応 答	6	0.68	1	0.09

앞의 表들에서 보듯이 対象者의 現在의 位置와 地位等 所属에 따라 関心을 別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두가지가 特徴的라고 하겠는데 그 理由를 分析하면 보면다.

① 年齢이 젊은 者일수록 統一에 대한 関心이 높다는 点이 特徴이다. 이것은 젊은 層일수록 政治나 社会等 国家 問題에 対한 関心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結果로 보인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統一問題에 対한 関心이 높으며 特히 大学 以上의 学力을 가진者는 두드러지게 큰 関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知識이 얕은 層이 認識不足에서 오는 政治의 「伝統的無関心」状態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나. 関心의 理由

統一問題에 関心이 있는 사람과 無関心한 사람에게 各各 그 理由를 물은 結果 年齢別 教育水準別, 職業別, 都市와 農村別 反応은 다음 표들과 같다.

먼저 関心을 가진 사람들의 理由를 提示하여 보자.

<표 1 - 7 > 統一関心理由 (全体)

区 分	経済建設		民族의再結合		平和維持		家族의再結合		모르겠다		無応答		計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계
아주많이 갖고있다	315	25.36	558	44.93	121	9.74	124	9.98	0	0	124	9.98	1242
조금 갖고 있다	141	25.36	261	46.94	75	13.49	30	5.40	4	072	45	8.09	556
計	456	25.36	819	45.94	196	11.61	154	7.69	4	072	169	9.04	1,796

<표 1 - 8 > 統一関心理由 (年齢別)

区 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富有한 生活	180	26.05	120	22.86	85	22.67	58	22.46	20	11.83
民族의再結合	281	40.67	234	44.57	153	40.80	88	37.29	67	39.64
平和의 維持	65	9.41	46	8.76	39	10.40	23	9.75	23	13.61
家族의 再会	49	7.09	38	7.24	33	8.80	21	8.90	11	6.51
모르겠다	1	0.14	1	0.19			3	1.27		
無 応 答	55	7.96	47	8.95	28	7.47	19	8.05	17	10.06
応答不要	60	8.68	39	7.43	37	9.87	29	12.29	37	18.34

<表 1 - 9>　　統一関心理由 教育水準別

区分	無学		国校		中・高校		大学	
	名	%	名	%	名	%	名	%
富有한 生活	86	18.94	156	21.82	155	25.16	61	23.37
民族의再結合	146	32.16	279	39.02	286	46.43	113	52.56
平和의 維持	45	9.91	86	12.03	51	8.28	14	6.51
家族의 再会	35	7.71	57	7.97	48	7.79	14	6.51
모르겠다	3	0.66	1	0.14	1	0.16		
無応答	57	12.56	62	8.67	43	6.98	5	2.33
応答不要	82	18.06	74	10.35	32	5.19	8	3.72

<表 1 - 10>　　統一関心理由（職業別）

区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富有한 生活	167	18.83	290	26.10
民族의再結合	367	41.38	456	41.04
平和의 維持	89	10.03	107	9.63
家族의 再会	62	6.99	92	8.28
모르겠다	3	0.34	2	0.18
無応答	98	11.05	69	6.21
応答不要	101	11.39	95	8.55

区 分	経済建設		民族의再結合		平和의 維持		家族의 再結合		모르겠다		無 応 答		応答不要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 山	35	28.00	61	48.80	14	11.20	11	5.60			1	0.80	7	5.60
京 畿	46	20.72	93	41.89	37	16.67	15	6.76			11	4.95	20	9.01
江 原	25	20.66	54	44.63	6	4.96	13	10.74			10	8.26	13	10.74
忠 北	24	25.53	39	41.49	8	8.51	3	3.19					20	21.28
忠 南	35	19.77	96	54.24	22	12.43	12	6.78			2	1.13	10	5.65
全 北	35	23.03	64	42.11	17	7.18	10	6.58	1	0.66	10	6.58	15	9.87
全 南	39	15.98	54	22.13	16	6.56	22	9.02			83	34.02	30	12.30
慶 北	73	25.17	135	46.55	29	10.10	24	8.28			11	3.79	18	6.21
慶 南	47	23.86	69	35.03	18	9.14	10	5.08	3	1.52	18	9.14	32	16.24
서 울	99	26.19	159	42.06	29	7.67	38	10.05	1	0.26	21	5.56	31	8.20

<表 1 - 12> 統 一 関 心 理 由 (市 , 郡別)

区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富有한 生活	222	25.37	235	70.93
民族의再結合	393	44.91	431	38.38
平和의 維持	79	9.03	117	10.42
家族의 再会	75	8.57	79	7.03
모 르 겠 다	2	0.23	3	0.27
無 応 答	36	4.11	130	1.58
応 答 不 要	68	7.77	123	1.40

앞의 表들에서 보면 몇가지 特徵이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① 年齡이 적을 수록 統一関心의 理由로서 「民族의 再結合」 또는 「単一民族이기 때문」 이라는 것을 드는 比率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感想的 民族主義로 因해서 統一問題를 性急하게 또 単純히 보려한다는 点에서 注目할 事項이고 그렇게된 原因은 6.25의 体驗과 関連이 있을 것이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民族의 再結合」을 理由로 드는 比率이 높아지고 있다.

③ 非農民의 職業을 가진 사람과 都市民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経済 生活의 향상」 또는 「国家復興」을 들고 있다.

全体的으로 보드라도 민족再結合이 가장 으뜸이며 個人的 事情인 家族再結合은 가장 낮은 比率이다. 다음은 統一問題에 無関心한 理由에 対한 答을 보자.

<表 1 - 13 > 統一에 対한 無関心 理由 (全体)

区分	生活에 没頭하여		이데로가 중으니까		統一의 非客観性		統一問題 理解 難		無応答		計
	名	%	名	%	名	%	名	%	名	%	
별로 갖고 있지 않다	56	33.73	14	8.43	48	28.92	21	12.65	27	16.27	166
조금도갖고 있지 않다	9	32.14	4	14.29	3	10.71	5	17.86	7	25.00	28
計	64	32.93	18	11.35	51	19.81	26	15.45	34	20.63	194

<表 1 - 14 > 統一無関心 理由 (年齢別)

区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個人生活에 没頭하여	11	1.59	15	2.86	18	4.80	13	5.51	11	6.51
現生活에 満足	10	1.45	6	1.14	4	1.07	5	2.12	2	1.18
統一의 関聯性	15	2.17	9	1.71	10	2.67	7	2.97	12	7.10
認識 . 判断力不足	14	2.03	5	0.95	2	0.53	3	1.27	4	2.37
無応答	8	1.25	4	0.76	7	1.86	4	1.69	2	1.36
応答不要	633	91.61	486	92.57	334	89.07	204	86.44	136	80.47

<表 1 - 15 > 統一에 対한 無関心理由 (教育水準別)

区分	無学		国校		中・高		大学	
	名	%	名	%	名	%	名	%
個人生活에 汲汲하여	30	6.61	25	3.50	11	1.79	2	0.93
現生活에 満足	7	1.54	14	1.96	5	0.81	2	0.93
統一의 困難性	22	4.85	18	2.52	9	1.46	4	1.86
認識 判断不足	9	1.98	15	2.10	4	0.65		
無応答	19	4.18	6	0.84	1	0.16	1	0.47
応答不要	367	80.84	637	89.09	586	95.13	206	95.81

<表 1 - 16 > 統一에 対한 無関心理由 (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個人生活에 汲汲하여	31	3.49	36	3.24
現生活에 満足하여	15	1.69	13	1.17
統一의 困難性	26	2.93	27	2.43
認識 判断力 不足	20	2.25	8	0.72
無応答	12	1.35	15	1.35
応答不要	783	88.28	1.012	91.09

<表 1 - 17 > 統一에 対한 無関心 理由 (市 , 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個人生活에 汲汲하여	24	2.74	43	3.83
現 生活에 満足	12	1.37	15	1.34
統一의 困難性	21	2.40	32	2.85
認識 判断力 不足	7	0.80	21	1.87
無 応 答	7	0.80	20	1.78
応 答 不 要	804	91.89	992	88.33

앞의 表들에서 나타난 特徴은 다음의 몇가지 이다.

① 無関心의 理由에서 가장많은 比率을 차지하는 것이 日常生活에 汲汲하기 때문이라는 点이다. 그러나 注目할点은 「이대로가 좋기때문」이라는 反応 即 現生活에 満足하여 統一을 願하지 않는 者가 11.35 %에 이른다는 事実이다.

② 老年層일수록 「生活에 汲汲하기 때문」이라는 反応을 보이는바 韓国에서의 家計가 主로 壮年 以上에 의해서 維持되기 때문이다.

③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個人生活이 無関心의 理由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教育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問題를 国家的 차원에서 評価한다는 것가 生活에 困難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 統一問題에 対한 소식원

統一問題에 対한 소식과 知識을 매스콤 수단과 個人中 어디를 通해서 主로 듣고 얻는가를 보기 위해서 「統一問題에 関한 소식을 主로 다룬 사람을 通해서 듣습니까? 매스 메디아를 通해서 듣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表 1 - 18 >　　統一에 対한 소식원(全体)

区　　分	名	%
個人을 通해서	249	12.4
매스 메디아	1655	82.7
들은일 없다	57	2.8
未 詳	17	0.8
無 応 答	22	1.0

앞의 表에서 보듯이 大部分의 사람(82.6%)은 매스.메디아를 通해서 소식을 듣고 있으며 個人을 通해서 듣는 사람은 소수(12.4%)에 不過하다. 이것은 래디오와 新聞을 비롯한 매수콤 수단이 널리 普及되고 매스.콤에서 그런 問題를 国民에게 많이 알리고 있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에 対한 国論을 善導하기 위한 매스.콤에 対한 政策에 어떤 暗示를 받게된다.

特히 라디오와 新聞의 境遇 더욱 그러하다. 매스 메디아를 通해 消息을 듣는 사람이 各各 785名과 770名을 나타내고 있어서 소식원의 大部分을 이룬다. 기타의 매스.메디아인 테레비와 雜誌 및 映画는 各各 83名과 19名 및 15名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表 1 - 19 > 매스콤을 通한 소식원 (全体)

구 분	계	라디오		新聞		T V		雜誌		映 画		其 他		無応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매스.미디어	1645	761	4598	776	4698	83	502	17	1.03	12	0.73	0	0	6	0.36

이와는 달리 個人을 通해 듣는 경우는 그 消息源에 있어 두드러진 것이 없다는 것이 特徵이다. 即 洞里 有志로 부터 消息을 듣는 境遇가 65名 (26.1%) 洞里 青年이나 学生으로 부터가 63名 (25.3%) 家族이나 其他의 사람들로 부터가 各各 52名과 53名이며 班長 (里長)으로 부터가 31名이고 公務員으로 부터 듣는 境遇는 8名에 不過하다.

<表 1 - 20 > 個人을 通한 消息源 (全体)

区 分	計	洞里有志人事		班長, 里長		洞里青年学生		公務員		家 族		其 他		無応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다른사람	249	65	26.10	22	8.84	63	25.30	7	281	49	19.68	40	16.06	3	1.20

여기서 두드러진 特徵은 公務員과 準公務員이라고 할 수 있는 班長이나 里長 (31名)으로 부터 統一에 対한 消息을 별로 듣지 못한다는 事実이다. 이는 그들의 数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自己를 個人의 地位維持때문에 신상에 害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統一問題에 対하여 国民에게 啓蒙을 하지 않고 있는데 理由가 있을 것이다.

한편 消息源을 所属別로 보면 다음表들과 같다.

<表 1 - 21> 統一에 対한 消息源 (年齢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個人을通해	50	7.24	46	8.76	54	14.40	41	17.37	57	33.73
매스.매디아	622	90.01	462	88.00	297	79.20	179	75.85	92	54.44
들은일없다	11	1.59	7	1.33	13	3.47	13	3.47	13	7.69
其他	4	0.58	3	0.57	5	1.33	5	1.33	4	2.317
無応答	4	0.58	7	1.33	6	1.60	2	0.85	3	1.78

<表 1 - 22> 統一에 対한 消息源 (教育水準別)

区分	無学		国校		中.高		大学	
	名	%	名	%	名	%	名	%
個人을 通해	133	29.30	97	13.57	14	2.27	5	2.33
매스.미디아	274	60.35	586	81.96	589	95.65	206	95.81
統一은 없다	38	8.37	15	2.10	4	0.65		
其他	3	0.66	7	0.98	5	0.81	2	0.93
無応答	6	2.32	10	1.40	4	0.65	2	0.93

<表 1 - 23 > 統一에 対한 消息源 (職業別)

区 分	農		非 農	
	名	%	名	%
다른사람을 通해	145	16.35	104	9.36
매스.미디아	697	78.58	967	86.14
들은일 없다	30	3.38	27	2.42
其 他	8	0.90	8	0.72
無 応 答	7	0.79	15	1.35

<表 1 - 24 > 統一에 対한 消息源 (市 . 郡別)

区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個人을 通해	71	8.11	177	15.76
매스.메디아	766	87.54	889	79.16
들은일 없다	11	1.26	46	4.10
其 他	10	1.14	6	0.53
無 応 答	17	1.94	5	1.26

앞의 表들에 나타난 特徵과 그 原因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年齡이 많을 수록 消息源이 個人에게 있고. 매수콤 手段에 있지 않다. 이것은 그만큼 高齡者가 매스.콤 接触度가 낮음을 立証하는 것이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매스.콤 手段이 消息源이 되고 있고 特히 中等教育以上에서 부터 두렷하다. 이것도 역시 教育을 받은 사람이 매스.콤 接触度가 높기 때문이다.

③ 非営農의 職業人과 都市人일수록 매스.콤 手段에 의해 統一問題에 対한 消息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 또한 都市地域에 매스.콤 手段이 普及되어 있고 非営農民이 그 接触을 많이하기 때문이다.

3. 統一에 対한 希求度

国民의 統一에 対한 嘱望이 어느 程度인가를 알기 為해서 「統一이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않돼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設問을 한 結果 그 反応은 다음과 같이 「꼭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表 1 - 25 > 統 一 希 求 図 (全体)

구 분	名	%
꼭 되어야 한다.	1,831	91.45
돼도 않돼도 무방하다	56	2.8
이대로 좋다	46	2.3
모르겠다	26	1.3
무 응 답	41	2.0

앞의 表에서 보듯이 거의 大部分의 国民은 統一이 꼭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不過 2.3%만이 안돼도 좋다는 反応을 보이고 2.8%가 中立的이었다.

이 中立的인 것을 合하드라도 統一의 必要性과 希望을 否定하는 比率은 6.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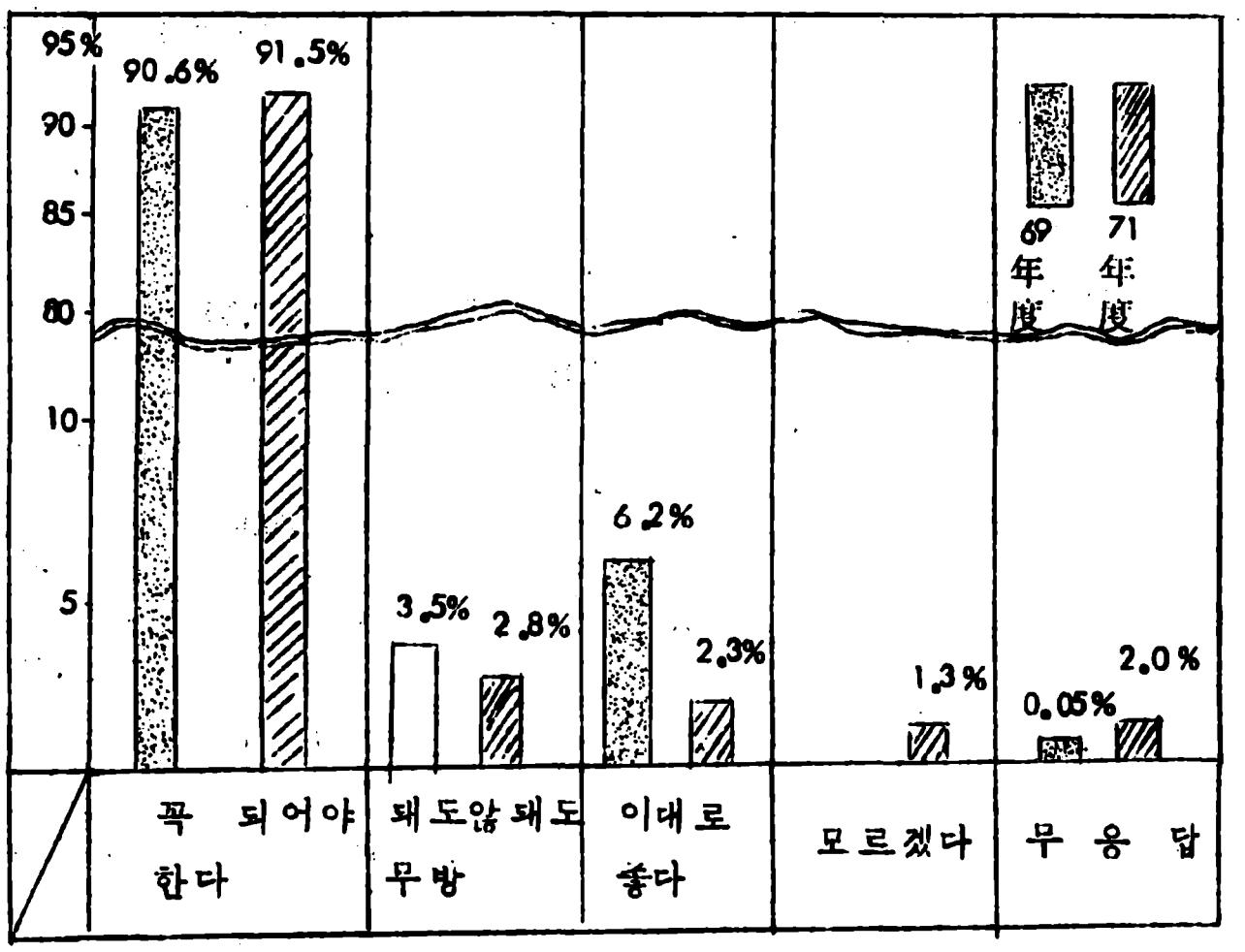
그런데 統一希求는 다음 表와 같이 69年보다 増大했고 特히 統一을 希望하지 않는 수는 뚜렷이 줄고있는 것이다. 統一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数의 그러한 감소(6.2 대 2.3)는 70년 과 71年의 国際政勢의 変化 및 南北赤十字会談 等이 影響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表 1 - 26 >　　統一希求図의　変動

区　　分	69 년 12 월	71 년 12 월
꼭 되어야 한다	90.6 %	91.5 %
돼도 안돼도 무방	3.1 %	2.8 %
이대로 좋다	6.2 %	2.3 %
모르겠다		1.3 %
無 応 答	0.05 %	2.0 %

※ 69 年 12 月 調査는 国土統一院 (調査人員 : 2.014 名)

<表 1 - 27 >　　統一希求図의　変動



※ 69年度 12月 調査는 国土統一院 (調査人員 : 2.014名)

<表 1 - 28 >　　統 一 希 求 図（年齢別）

区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꼭되어야한다	691	91.32	491	93.52	344	91.73	216	91.53	146	86.39
안돼도 무방	20	2.89	13	2.48	5	1.33	8	3.39	9	5.33
이대로 좋다	20	2.89	6	1.14	9	2.40	4	1.69	7	4.14
모 르 겠 다	9	1.30	6	1.14	1	0.27	4	1.69	6	3.55
無 応 答	11	1.59	9	1.71	16	4.27	4	0.69	1	0.59

<表 1 - 29 >　　統一希求図（教育水準別）

区分	無 学		国 校		中・高		大 学	
	名	%	名	%	名	%	名	%
꼭 되어야 한다	389	87.67	662	92.59	571	92.69	200	93.02
않되어도 무방	19	4.19	15	2.10	17	2.76	5	2.33
이대로 좋다	15	3.30	17	2.38	11	1.79	3	1.40
모 르 겠 다	14	3.08	9	1.26	1	0.16	2	0.93
無 応 答	8	1.76	12	1.68	16	2.60	5	2.33

<表 1 - 30 > 統 一 希 求 図(職業別)

区 分	営 農		非 営 農	
	名	%	名	%
꼭 되어야 한다	809	91.21	1.021	91.90
않되어도 無妨하다	28	3.16	28	2.52
이대로 좋다	24	2.71	22	1.98
모 르 겠 다	12	1.35	14	1.26
無 応 答	14	1.58	26	2.34

<表 1 - 31 > 統 一 希 求 図(市,郡別)

区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꼭 되어야 한다	795	90.86	1.036	92.25
않되어도 無妨하다	25	2.86	30	2.67
이대로 좋다	17	1.94	29	2.58
모 르 겠 다	9	1.03	17	1.51
無 応 答	29	3.31	11	0.98

. 앞의 表들을 보면 年齡·職業·都市와 農村에 따르는 統一에 対한 希求図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따라서 그러한 변수들이 統一希求에는 별다른 影響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教育水準에 있어서만은 知識이 많을 수록 統一에 対한 希求(갈망)度가 높다는 사실이다.

한便 統一이 「꼭 이루어 져야 한다」는 理由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는 意見을 提示한 理由는 다음 表 1-32 및 表 1-33과 같다.

<表 1-32> 統 一 希 求 의 理 由 (全体)

区 分	1 位		2 位		3 位	
	名	%	名	%	名	%
単 一 民 族	900	45.0	263	13.1	225	11.2
北韓同胞救出	199	9.9	341	17.0	271	13.6
経済発展促進	334	16.7	599	29.9	375	18.7
平和生活確保	289	14.4	466	23.3	519	25.9
離散家族再会	144	7.2	190	9.5	405	20.2
其 他	6	0.3	5	0.2	61	3.1
無 応 答	23	1.2	34	1.7	37	1.8
応 答 不 要	105	5.2	102	5.1	107	5.3

<表 1 - 33 > 統一不必要의 理由 (全体)

区分	1 位		2 位		3 位	
	名	%	名	%	名	%
共産党이 날뛸 念慮가 있기때문	26	1.3	8	0.4	9	0.4
平和로운 生活이 不可能할 念慮가 있기에	16	0.8	22	1.1	8	0.4
지금보다 経済生活이 못해질 念慮가 있기때문에	13	0.6	17	0.8	18	0.9
지금누리고 있는 地位와 財産을 잃을 念慮가 있기때문에	2	0.1	8	0.4	7	0.3
其他	7	0.3	1	0.0	11	0.5
無応答	9	1.2	13	0.6	17	0.8
応答不要	1927	96.3	1931	96.5	1930	96.5

위의 表에서 보듯이 統一이 되어야 하는 理由中에서 두드러진 것은 単一民族이기 때문이라는 反応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民族感情의 感想主義가 統一問題에 作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다음의 理由들로 「経済発展을 促進할 수 있다」는 것 「平和生活이 可能하다」는 것 「北韓同胞의 救出」및 「離散家族의 再会」等의 順으로 理由가 나왔다.

여기서 나온 理由들의 優先順位는 앞에서 본 「統一에 対한 関心」의 理由와 一致하고 있다는 点에서 国民의 反応(理由表示)이 誠実했음이 立証된다.

그러나 「統一이 않되어도 좋다」는 理由는 앞의 「統一에 대한 無関心」의 理由와 合致 되지 않는다는 点에 留意하게 된다.

4．統一時期에 対한 見解

統一의 実現時期에 対한 評価（設問：現情勢로 보아 統一이 언제쯤 実現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는 다음 <表 1 - 34 >와 같은데 그것을 69年의 調査結果와 比較하면 表 1 - 35 와 같다.

<表 1 - 34 > 統一의 時期에 対한 予測（全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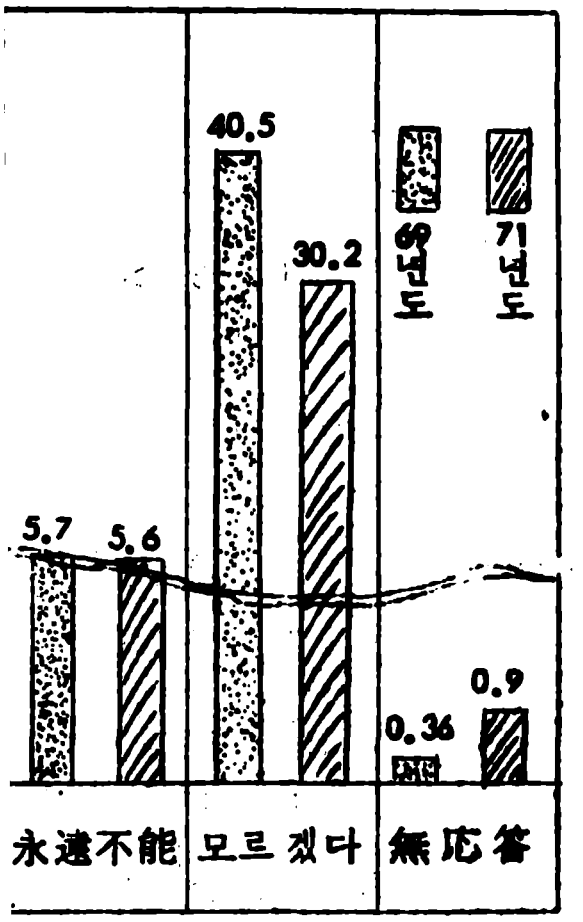
区 分	名	%
5 年 内	170	8.5
10 年 内	578	28.9
20 年 内	324	16.2
20 年以上	190	9.5
永 遠 不 能	112	5.6
모 르 겠 다	604	30.2
무 응 답	22	0.9

<表 1 - 35 > .統一時期에 対한 予測의 変動

区 分	1969年12月	1971年 12月
5年 以内	21.5 %	8.5 %
10年 以内	18.0	28.9
20年 以内	7.5	16.1
20年 以上	6.3	9.5
永 遠 不 能	5.7	5.6
모 르 겠 다	40.5	30.2
無 応 答	0.3	0.9

※ 69年의 境遇는 「5年内」를 「数年内」로 했음.

의 変動



內」로 했음.

內에 이룩될 것으로 보는

는 数와 비슷하며 大部分

9年의 調査에서는 数年內

나지했으나 이번의 境遇는

이렇게 統一이 꼭 이루어

不拘하고 実現時期를 늦게

아마도 政府와 言論指導

国民啓蒙을 하였기 때문인

하는가를 보면 다음 표를

<表 1 - 37 >　　統一의 時期（年齢別）

区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5 年 内	53	7.67	40	7.62	29	7.73	32	13.56	16	9.47
10 年 内	196	28.36	186	35.43	118	31.47	50	21.19	27	15.98
20 年 内	120	17.37	88	76.76	54	14.40	42	17.80	19	11.24
20 年以上	76	11.00	51	9.71	33	8.80	16	6.78	13	7.69
永遠不能	44	6.37	12	2.29	21	5.60	17	7.20	18	10.65
모르겠다	195	27.79	146	27.81	113	30.13	78	33.05	75	44.38
無 応 答	10	1.44	2	0.38	7	1.88	1	0.42	1	0.59

<表 1 - 38 >　　統 一 의 時 期（教育水準別）

区　分	無　学		国　校		中，高		大　学	
	名	%	名	%	名	%	名	%
5年以内	45	9.91	81	11.33	38	6.17	6	2.79
10年以内	89	19.60	215	30.07	208	33.77	66	30.70
20年以内	55	12.11	96	13.43	113	18.34	60	27.91
20年以上	42	9.25	46	6.43	79	12.82	23	10.70
永遠不能	29	6.39	37	5.17	34	5.52	12	5.58
모르겠다	192	42.29	236	33.01	136	22.08	40	18.60
무 응 답	2	0.44	4	0.56	8	1.29	8	3.73

<表 1 - 39 > 統一의 時期 (職業別)

区 分	営 農		比 営 農	
	名	%	名	%
5 年以内	85	9.58	85	7.65
10 年以内	230	25.93	347	31.23
20 年以内	113	12.74	211	18.99
20 年以上	94	10.60	96	8.64
永遠不能	53	5.98	59	5.31
모르겠다	302	34.05	302	27.18
無 応 答	10	1.13	11	0.99

<表 1 - 40 > 統 一 의 時 期 (市 , 郡別)

区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5 年以内	71	8.11	99	8.82
10 年以内	274	31.31	304	27.07
20 年以内	176	20.11	148	13.18
20 年以上	82	9.37	108	9.62
永遠不能	44	5.03	68	6.06
모르겠다	213	24.37	391	34.82
無 応 答	15	1.81	5	0.45

앞의 表들에서 나타나는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全体가 10年内로 応答한 率이 많으나 젊은 層일수록 老年層에 比하여 20年以上 걸릴것이라는 比率이 相対的으로 높다.

② 老年層에 이를수록 時期에 対한 予測을 할 수 없다 (모르겠다) 는 比率이 크게 많아가지고 있다.

③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모르겠다는 比率이 줄어 들고 数年内에 統一이 될것이라는 比率도 줄고 있다.

④ 都市人은 農村 地域人에 比하여 그리고 比営農의 職業人은 農民에 比하여 모르겠다는 比率이 훨씬 적다.

以上에서 보면 時期予測은 主로 知識(매스.콤 手段이다 其他를 通하여 얻은)이 크게 좌우하고 있는듯 하다.

5. 分断및 不統一의 責任

가. 分断의 責任

우라 国土의 分断責任을 물은 設問(設問:南北으로 分断된 責任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対해서 <表 1-41>과 같이 소련과 美国에 責任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가장 많아 710名(36%)에 이르고 그 다음이 우리 民族 全体에게 責任이 있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이는 解放과 前後処理課程에서의 美国과 소련이 韓半島의 分割과 그 軍隊의 進駐를 国民들이 잘 理解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表 1-41> 分 断 의 責 任(全体)

区 分	名	%
北韓共産党	199	4.9
소 련	115	5.7
美 国	61	3.0
中 共	27	1.3
日 本	93	4.6
全体民族	383	19.1
北傀외소련	229	11.4
소련과美国	710	36.0
其 他	15	0.7
모르겠다	162	8.1
無応答	6	0.2

한편 分断責任을 対象者의 所属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 42 > 分 断 의 責 任 (年齢別)

区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北韓共産党	56	9.10	48	9.14	36	9.60	30	12.71	29	17.16
蘇 聯	39	5.64	31	5.90	19	5.07	14	5.93	12	7.10
美 国	37	5.35	13	2.48	8	2.13	1	0.42	2	1.18
中 共	10	1.45	3	0.57	4	1.07	3	1.27	7	0.14
日 本	14	2.75	18	3.43	33	8.80	15	6.36	8	4.73
全体民族	165	23.88	105	20.00	68	18.13	28	11.86	16	9.47
北傀와蘇聯	83	12.01	60	11.43	38	10.13	32	13.56	16	9.47
蘇聯과美国	237	34.30	209	39.81	136	36.27	81	34.32	45	26.63
其 他	6	0.87	2	0.38	2	0.53	4	1.69	1	0.59
모르겠다	36	5.21	36	6.86	30	8.00	27	11.44	33	19.53
無 応 答	3	0.43					1	0.42		

<表 1 - 43 > 分 断 의 責 任 (教育水準別)

	無 学		国 校		中 . 高		大 学	
	名	%	名	%	名	%	名	%
北韓共産党	82	18.06	83	11.61	28	4.55	6	2.79
蘇 聯	27	5.95	47	6.57	30	4.87	11	5.12
美 国	7	1.54	16	2.24	31	5.03	7	3.26
中 共	9	1.98	9	1.26	9	1.46		
日 本	20	4.41	49	6.85	16	2.60	8	3.72
全体民族	51	11.23	117	16.36	176	27.11	48	22.33
北傀와蘇聯	47	10.35	109	15.24	63	10.23	10	4.65
蘇聯과美国	109	24.01	222	31.05	257	41.72	122	56.74
其 他	2	0.44	8	1.12	3	0.49	2	0.93
모르겠다	99	22.81	54	11.55	9	1.46		
無 応 答	1	0.22	1	0.14	3	0.48	1	0.47

<表 1 - 44 > 分 斷 의 責 任 (職業別)

区 分	農		非 農	
	名	%	名	%
北韓共産党	114	12.85	85	7.65
蘇 聯	46	5.19	69	6.21
美 国	18	2.03	43	3.87
中 共	15	1.69	12	1.08
日 本	51	5.75	42	3.78
全体民族	144	16.23	239	21.51
北傀와蘇聯	103	11.61	124	11.16
蘇聯과美国	292	32.92	418	37.62
其 他	5	0.56	10	0.90
모르겠다	95	10.71	67	6.03
無 応 答	4	0.46	2	0.18

<表 1 - 45 > 分 斷 의 責 任 (市·郡別)

区 分	郡		市	
	名	%	名	%
北韓共産党	62	7.09	137	12.80
蘇 聯	49	5.60	66	5.88
美 国	36	4.11	25	2.23
中 共	8	0.91	19	1.69
日 本	35	4.00	58	5.16
全体民族	200	22.86	183	16.30
北傀와蘇聯	82	9.37	146	13.00
蘇聯과美国	353	40.34	357	31.79
其 他	11	1.26	4	0.36
모르겠다	38	4.34	124	11.04
無 応 答	1	0.11	4	0.36

앞의 表들에서 나타난 特徵은 다음과 같다.

① 젊은 層일수록 分断의 責任을 「北傀」에게 돌리는 率이 적고 反対로 「全体民族」에게 돌리는 率이 많다는 点이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北傀」에게 責任을 돌리는 率이 急激히 줄고 「蘇聯과 美国」에게 돌리는 率이 急激히 增加하고 있다.

③ 都市民은 農村地域 사람에 比하여 「北傀」에 責任을 돌리는 率이 크게 적으며 「蘇聯과 美国」에게 돌리는 率은 크게 많다.

이렇게 볼 때 分断責任의 소재에 対한 認識은 知識과 큰 関連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統一이 않된 責任

많은 応答者가 分断의 責任이 蘇聯과 美国에 있다고 본데 대해서 다음 <表 1 - 46 >와 같이 不統一의 責任에 있어서도 美国과 蘇聯의 共同責任으로 보는 比率이 20.5%나 된다.

그러나 蘇聯과 美国의 単独責任으로 생각하는 比率은 各各 5.2%와 1.9%에 지나지 않는다.

不統一의 責任에 있어 가장 큰 比率을 차지하는 것은 北傀의 単独責任(21.5) 北傀와 蘇聯의 共同責任(21.9%)으로 생각한 부분이다.

그런데 韓国에 그 責任이 있다고 보는 113名(5.6%)에 対해서는 注目을 要한다고 하겠다. 勿論 이것은 70년 12월의 調査보다는 훨씬 줄어든 数字이다.

韓国과 北傀의 比率을 볼 때 69年의 境遇는 5.0%(韓国)対 95.0% (北傀)인데 対해서 70年 12月의 調査結果는 韓国(65.2%)対 北傀(34.8%)이였고 이번의 結果는 韓国(21.4%) 対

北傀(79.6%)이다. 南北韓을 대비한 責任을 볼 때 69年의 경우보다 韓国에 責任이 있다는 비율이 훨씬 증가 하였다는 点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러나 71年 2月의 調査結果 보다는 크게 줄었다는 点에서는 크게 憂慮할 事実이라고는 볼 수 없다.

<裏 1 - 46 > 不 統 一 의 責 任(全体)

區 分	명	%
北韓共産党	431	21.5
蘇 聯	104	5.2
美 国	38	1.9
中 共	55	2.7
유 엔	54	2.7
韓 国	113	5.6
北傀와蘇聯	439	21.9
蘇聯과美国	411	20.5
美·蘇·日·中共	187	9.3
모 르 겠 다	152	7.6
無 応 答	16	0.7

한편 統一이 안된 責任에 対한 所属別의 反応을 보면 다음 표들과 같다.

<表 1 - 47 > 不 統 一 의 責 任 (年齡別)

区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北韓共産党	122	17.66	107	20.38	101	26.92	51	21.61	50	29.59
蘇 聯	30	4.34	27	5.14	20	5.33	14	5.93	12	7.10
美 国	17	2.46	7	1.33	9	2.40	2	0.85	3	1.78
中 共	15	2.17	15	2.86	10	2.67	9	3.81	6	3.55
유 엔	27	3.91	14	2.67	10	2.67	2	0.85	1	0.59
大韓民国	54	7.81	31	5.90	18	4.80	6	2.54	4	2.37
北傀와蘇聯	154	22.29	127	24.19	73	19.47	50	21.19	33	19.53
蘇聯과美国	148	21.42	101	19.24	76	20.27	62	26.17	24	14.20
美蘇中共.日	88	12.74	50	9.52	32	8.53	10	4.24	7	4.14
모 르 겠 다	31	4.49	43	8.19	21	5.60	29	12.29	28	16.57
無 応 答	5	0.72	3	0.57	5	1.33	1	0.42	1	0.59

<表 1 - 48 > 不統一의 責任 (教育水準別)

区 分	無 学		国民学校		中 . 高等学校		大学 以上	
	名	%	名	%	名	%	名	%
北韓共産党	143	31.50	164	22.94	101	16.40	23	10.70
蘇 聯	24	5.29	39	5.45	30	4.87	11	5.12
美 国	9	1.98	16	2.24	10	1.62	3	1.40
中 共	14	3.08	18	2.52	2	3.41	2	0.93
유 엔	5	1.10	24	3.36	19	3.08	6	2.79
大韓民国	10	2.20	42	5.87	43	6.98	18	8.37
北傀와蘇聯	89	19.60	181	25.31	142	23.05	27	12.56
蘇聯과美国	66	14.54	117	16.36	149	24.19	79	36.74
美.蘇.日.中共	12	2.64	59	8.25	76	12.34	40	18.60
모 르 겠 다	78	17.18	50	6.99	20	3.25	4	1.86
無 応 答	4	0.88	5	0.7	5	0.81	2	0.93

<表 1 - 49>　　不統一의　責任（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北韓共産党	205	23.11	226	20.34
蘇聯	40	4.51	64	5.76
美国	20	2.25	17	1.53
中共	32	3.61	23	2.07
유엔	20	2.25	34	3.06
大韓民国	39	4.40	74	6.66
北傀와蘇聯	198	22.32	241	21.69
蘇聯과美国	167	18.83	244	21.96
美.蘇.日中共	75	8.46	111	9.99
모르겠다	87	9.81	65	5.85
無応答	4	0.45	12	1.08

<表 1 - 50>　　不統一의　責任（市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北韓共産党	177	20.23	254	22.62
蘇聯	54	6.17	50	4.45
美国	13	1.49	24	2.14
中共	20	2.29	35	3.12
유엔	28	3.20	26	2.32
韓国	56	6.40	57	5.08
北傀와蘇聯	167	19.09	272	24.22
蘇聯과美国	208	23.77	203	18.03
美.蘇.日.中共	95	10.86	92	8.19
모르겠다	45	5.14	107	9.53
無応答	12	1.38	3	0.27

앞의 表를에서 나타난 特徵과 原因은 다음과 같다.

① 젊은 層일수록 老年層에 比하여 「北傀」에 責任을 돌리는 率이 적으며 또 「韓国」에 責任을 돌리는 比率도 老年層에 비하여 많다.

이것은 젊은 世帶일수록 政府나 現実社会에 対해서 批判的이기 때문에 나타난 現象이라고 보여지지만 注目을 要하는 事項이다.

② 学歷은 이 問題에 큰 影響을 주는 要素가 되고있다.
즉 大学以上의 者는 北傀를 責任者로 보는 比率이 不過 10.7%인데 比하여 無学者는 31.5%에 이르고 있으며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北傀의 責任을 가볍게 보고 있다.

그와 反対로 韓国의 責任을 높게 보고 있고 蘇聯과 美国의 責任으로 보는 傾向이 学歷이 높을수록 크다.

③ 非営農 및 都市民의 境遇도 그 反対인 者에 比하여 앞에서 본 知識人의 傾向과 비슷하다.

이같이 젊은 世代일수록 知識이 많을수록 그리고 都市民과 非営農의 職業人일수록 韓国에 対한 責任을 크게 보고 北傀에 대한 責任을 적게 보는 傾向은 注目할 事実이다.

6. 統一対備態勢

「하루 速히 統一을 実現하기 為해서는 政府와 国民이 어떤 일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意見은 다음<표 1-51>와 같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건설. 国防力強化. 思想武装. 政治安定에 集中되어 있다. 最優先의 일중에 가장 많은 것은 経済建設로서 43.1%이며. 둘째로 해야할 일이라고 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国防力強化로서 27.3%이고 셋째로 해야할 일이라

고 보는것 中에서 가장 많은 수는 政治安定으로서 22.2%이다.

최우선 (1位)으로 重要한 일의 順序는 経済建設(43.1%) 国防力強化(21.6%) 思想武装(13.2%), 政治安定(12.6%)의 順序로 되어있는데 2位에서는 国防力強化, 政治安定, 経済建設로 順이 되고 있으며, 3位에서는 政治安定, 思想武装, 国防力強化, 経済建設의 順이 되고 있다.

즉 1位의 順序와 3位의 順序가 完全히 뒤바뀌고 있다. 이것은 1位를 評価할 때 経済建設에 集中했던 사람들이 2位와 3位에서 다른 部門을 択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国民들은 統一에 対備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할일을 経済建設, 軍事力強化, 政治安定, 思想武装, 社会浄化外交強化의 順으로 보고 있다고 하겠다.

特히 経済建設을 다른 것에 比하여 두드러지게 重要視하고 있는 点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政府가 経済建設을 서둘러 왔기 때문이기도 하며 経済建設만이 統一을 促進하고 統一時에 勝共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反面에 国民各者가 統一과는 関係없이 経済生活이 向上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反応을 보였다고도 하겠다.

<表 1-51> 統一을 実現하기 위해 할일(全体)

区分	1位		2位		3位	
	名	%	名	%	名	%
経済建設	863	43.1	397	19.8	310	15.5
政治安定	252	12.6	484	24.2	444	22.2
国防力強化	433	21.6	547	27.3	405	20.2
社会浄化	101	5.0	197	9.8	239	11.9
国威의向上	59	2.9	120	6.0	153	7.6
国民思想武装의強化	264	13.2	221	11.0	408	20.4
無応答	28	1.3	34	1.6	42	2.0

統一을 実現하기 為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한 所観別 反応은 다음과 같다.

<表 1 - 52>　　統一을 実現하기 為

区分	20代						30代							
	1位		2位		3位		1位		2位		3位		1位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経済建設	308	44.57	136	19.68	119	17.22	242	46.10	117	22.29	70	13.33	161	42.93
政治安定	100	14.47	185	26.77	142	20.55	57	10.86	116	22.10	113	21.52	42	11.20
国防力強化	128	18.52	180	26.05	153	22.14	118	22.48	154	29.33	109	20.76	81	21.60
社会安定	30	4.34	72	10.42	78	11.29	24	4.57	41	7.81	64	12.19	25	6.67
国威의向上	22	3.18	38	5.50	62	8.97	14	2.67	25	4.76	41	7.81	13	3.47
国民思想武装의強化	99	14.33	74	10.71	129	18.67	63	12.00	64	12.19	118	22.48	47	12.53
無応答	4	0.58	6	0.87	8	1.16	7	1.33	8	1.52	10	1.90	6	1.60

<表 1 - 53>　　統一을 実現하기 為한 할 일 (教

区分	無学						国民学校						中	
	1位		2位		3位		1位		2位		3位		1位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経済建設	156	34.36	98	21.59	69	15.20	324	45.31	138	19.30	96	13.43	297	48.21
政治安定	56	12.33	77	16.96	116	25.55	84	11.75	173	24.20	143	20.00	79	12.82
国防力強化	134	29.52	130	28.63	81	17.84	173	24.20	209	29.23	146	20.42	99	16.07
社会浄化	21	4.63	51	11.23	50	11.01	32	4.48	54	7.55	88	12.31	32	5.19
国威의向上	11	2.42	27	6.39	32	7.05	18	2.52	51	7.13	64	8.95	19	3.08
国民思想武装의強化	59	13.00	49	10.79	82	18.06	80	11.19	82	11.47	168	23.50	84	13.64
無応答	17	3.74	20	4.41	24	5.29	4	0.56	8	1.12	10	1.40	0	0.98

為한 할 일 (年齡別)

40 代					50 代						60 代					
位	2 位		3 位		1 位		2 位		3 位		1 位		2 位		3 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42.93	72	19.20	57	15.20	95	40.25	35	14.83	43	18.2	56	33.14	37	21.89	22	14.02
11.20	90	24.00	92	24.53	29	12.29	58	24.58	57	24.15	24	14.20	34	20.12	40	23.67
21.60	113	30.13	63	16.80	61	25.85	65	27.54	45	19.07	43	25.44	36	21.30	34	2.12
6.67	31	8.27	54	14.40	13	5.51	29	12.29	23	9.75	9	5.33	25	14.79	17	10.06
3.47	29	7.73	15	4.00	5	2.12	11	4.66	21	8.90	5	2.96	13	7.69	14	8.28
12.53	33	8.80	85	22.67	29	12.29	34	14.41	42	1.80	25	14.79	16	9.47	33	19.53
1.60	7	1.87	9	2.40	4	1.69	4	1.69	5	2.12	7	4.14	8	4.73	9	5.23

(教育水準別)

中・高等学教					大学校以上					
位	2 位		3 位		1 位		2 位		3 位	
%	名	%	名	%	名	%	名	%	名	%
48.21	115	18.67	108	17.53	87	40.47	46	21.40	38	17.67
12.82	173	28.08	131	21.27	34	15.81	62	28.84	54	25.12
16.07	163	26.46	132	21.43	25	11.63	46	21.40	46	21.40
5.19	69	11.20	73	11.85	16	7.44	24	11.16	26	12.09
3.08	29	4.71	41	6.66	11	5.12	8	3.72	16	7.44
13.64	63	10.23	126	20.45	41	19.07	27	12.56	32	14.88
0.98	4	0.65	5	0.81	1	0.47	2	0.94	3	1.40

<表 1 - 55>　　統一을 実現하기 為한 할 일 (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1位		2位		3位		1位		2位		3位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経済建設	365	41.15	176	19.84	143	16.12	498	44.82	222	19.89	167	15.03
政治安定	99	11.16	215	24.24	199	22.44	154	13.86	270	24.30	244	21.96
国防力強化	227	25.59	249	28.07	161	18.35	204	18.36	299	26.91	244	21.96
社会浄化	40	4.51	72	8.12	95	10.71	61	5.49	124	11.16	142	12.78
国威의向上	28	3.16	56	6.31	67	7.55	30	2.70	61	5.49	86	7.74
国民思想武装의強化	115	12.97	101	11.39	200	22.55	149	13.41	120	10.80	208	18.72
無応答	13	1.46	18	2.03	22	2.48	15	1.35	16	1.44	20	1.80

<表 1 - 56 >　　統 一

区分	経済建設						
	1 位		2 位		3 位		1
	名	%	名	%	名	%	名
釜山	48	38.40	28	22.40	26	20.80	16
京畿	81	36.49	63	28.38	42	18.92	35
江原	52	42.98	28	23.17	14	11.57	12
忠北	27	28.72	23	24.47	22	23.40	13
忠南	75	42.37	30	16.95	33	18.64	23
全北	60	39.47	36	23.68	19	12.50	16
全南	76	31.15	45	18.44	51	20.90	29
慶北	147	50.67	49	16.90	36	12.41	30
慶南	115	58.38	18	9.14	14	7.11	28
서울	183	48.41	77	20.37	54	14.29	51

区分	国威의向上						
	1 位		2 位		3 位		1
	名	%	名	%	名	%	名
釜山	4	3.20	8	6.40	4	3.20	22
京畿	11	4.95	11	4.95	29	13.06	23
江原	-	1.65	6	4.96	10	8.26	24
忠北	3	3.19	9	9.57	4	4.26	12
忠南	1	0.56	11	6.21	12	6.78	21
全北	3	1.97	3	1.97	4	2.63	31
全南	9	3.69	20	8.20	14	5.74	46
慶北	7	2.41	30	10.34	35	12.07	28
慶南	1	0.51	5	2.54	9	4.57	18
서울	18	4.76	14	3.70	32	8.47	39

為 嘱 탈 일 (道 別)

		国防力強化						社会浄化					
3 位		1 位		2 位		3 位		1 位		2 位		3 位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35	28.00	20	16.00	23	18.40	30	24.00	15	12.00	15	12.000	16	12.80
34	15.32	66	29.73	59	26.58	39	17.57	6	2.70	13	5.86	36	16.22
21	17.36	27	22.31	42	34.71	34	28.10	2	1.65	5	4.13	12	9.92
19	20.21	35	27.23	19	20.21	11	17.70	1	1.06	3	3.19	4	4.26
32	18.08	45	25.42	42	23.73	38	21.47	9	5.08	16	9.04	19	10.73
51	33.55	28	18.42	50	32.89	26	17.11	11	7.24	9	5.92	19	12.50
59	24.18	64	26.23	45	18.44	40	16.39	10	4.10	37	15.16	26	10.66
73	25.17	61	21.03	91	31.38	53	18.28	15	5.17	32	11.03	33	11.38
35	17.77	27	13.71	69	35.03	51	25.89	6	3.05	21	10.66	35	17.77
65	22.49	58	15.34	108	28.57	83	21.96	26	6.88	47	12.43	37	9.79

		無 応 答					
3 位		1 位		2 位		3 位	
名	%	名	%	名	%	名	%
13	10.40	0	0	0	0	1	0.80
40	18.02	0	0	1	0.45	2	0.90
28	23.14	2	1.65	2	1.65	2	1.65
27	28.72	3	3.19	5	5.32	7	7.45
39	22.03	3	1.69	3	1.69	4	2.26
30	19.74	3	1.97	3	1.97	3	1.97
40	16.39	10	4.10	14	5.74	14	5.74
60	20.69	2	0.69	0	0	0	0
47	23.86	2	1.02	3	1.52	6	3.05
84	22.23	3	0.79	3	0.79	3	0.75

<表 1 - 57>　　統一을 実現하기 為해 할 일(市郡別)

区分	都市						農村					
	1 位		2 位		3 位		1 位		2 位		3 位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経済建設	384	43.89	181	20.69	140	16.00	479	42.65	216	19.23	171	15.23
政治安定	120	13.71	238	27.20	195	22.29	132	11.75	247	21.99	248	22.08
国防力強化	148	16.91	224	25.60	188	21.49	283	25.20	324	28.85	217	19.32
社会浄化	58	6.63	101	11.54	119	13.60	43	3.83	96	8.55	118	10.51
国威의向上	74	3.89	41	4.69	64	7.31	25	2.23	76	6.77	89	7.93
国民思想武装의 強化	121	13.83	82	9.37	159	18.17	143	12.73	139	12.38	249	22.17
無応答	10	1.14	8	0.91	10	1.14	18	1.60	25	2.23	31	2.76

7. 統一努力의 主体와 国民姿勢

가. 努力의 主体

「統一을 為한 努力을 누가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対해서 다음 表와 같이 過半数 以上인 62.1%가 官民共同努力이라는 反応을 보였고 「유엔」이나 強大国과 같은 他国 依存率은 3.2%와 4.0%에 不過하다.

이것은 그만큼 国民이 積極的으로 統一努力에 나설 수 있다는 것과 主体性을 意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表 1-58> 統一主体(全体)

区 分	名	%
政 府	186	9.3
国 民	365	18.2
政府와 国民	1,243	62.1
유 엔	64	3.2
強 大 国	80	4.0
其 他	17	0.8
모 르 겠 다	26	1.3
無 応 答	19	0.9

한편 統一主体에 対한 所属別 反応은 다음과 같다.

<表1－59>　　統一主体（年齢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政府	35	5.07	45	8.57	41	10.93	31	13.14	33	19.53
国民	140	20.26	93	17.71	66	17.60	46	19.49	20	11.83
政府와 国民	454	65.70	332	63.24	223	59.47	142	60.17	90	53.25
유엔	19	2.75	21	4.00	16	4.27	5	2.12	3	1.78
強大国	24	3.47	23	4.38	16	4.27	7	2.97	10	5.92
其他	9	1.30	1	0.19	4	1.07	2	0.85	1	0.59
모르겠다	3	0.43	7	1.33	4	1.07	3	1.27	9	5.33
無応答	7	1.01	3	0.57	5	1.33			3	2.77

<表1－60>　　統一主体（教育水準別）

区分	無学		国民		中高		大学	
	名	%	名	%	名	%	名	%
政府	94	20.70	62	8.67	20	3.25	10	4.65
国民	68	14.98	149	20.84	113	18.34	35	16.28
政府와 国民	245	53.96	427	59.72	428	69.48	143	66.51
유엔	4	0.88	32	4.48	20	3.25	8	3.72
強大国	15	3.30	29	4.06	23	3.73	13	6.05
其他	1	0.22	6	0.84	6	0.97	4	1.86
모르겠다	21	4.63	4	0.56	1	0.16	0	0
無応答	6	1.32	6	0.84	5	0.81	2	0.93

<表1-61>　統一主体（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政府	102	11.50	84	7.56
国民	157	17.70	207	18.63
政府와 国民	525	59.19	717	64.54
유엔	30	3.38	34	3.06
強大国	41	4.62	39	3.51
其他	7	0.79	10	0.90
모르겠다	17	1.92	9	0.81
無応答	8	0.90	11	0.99

<表1-62>　統一主体（市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政府	62	7.09	123	10.95
国民	168	19.20	196	17.45
政府와 国民	560	64.00	683	60.82
유엔	22	2.51	42	3.74
強大国	37	4.23	43	3.83
其他	9	1.03	8	0.71
모르겠다	4	0.46	22	1.96
無応答	13	1.49	6	0.54

앞의 表들에 나타난 特徵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老年層에 이를 수록 政府依存度가 높으며 젊은 層일 수록 「国民이 할일」이라는 比率이 높고 政府와 国民이 같이 할일이라는 率이 높다. 이것은 젊은 層이 政府에 対한 反抗意識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② 教育水準이 낮을 수록 政府依存度가 높으며 教育水準이 낮을 수록 「政府와 国民의 共同事」라는 比率이 높다.

③ 農民과 農村地域의 居住者는 그 反対者보다 政府依存度가 높으며 「国民이 할일」로 보는 率과 「政府와 国民의 共同事」라는 面에서의 比率은 그 反対 現象을 보이고 있다.

나. 統一을 為한 国民姿勢

앞의 統一努力의 主体와 関聯시켜 国民이 取할 姿勢를 물은 結果 亦是 같은 反応을 보였다. 即 다음表 1 - 63와 같이 政府를 도와 좋은 方案을 提示해야 한다는 意見이 多数(67.0%)를 占하고 있다.

그러나 「政府가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意見도 21.5%라는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는 点에 留意 할 것이다.

〈表 1 - 63 〉 統一을 為한 国民姿勢 (全体)

区 分	名	%
政府에 追従	431	21.5
政府에 協調함	1,341	67.0
스스로 나선다	126	6.3
其 他	27	1.3
모르겠다	52	2.6
無応答	23	1.1

〈표 1 - 64 〉 統一을 為한 国民姿勢 (年齢別)

区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政府追従	93	13.46	103	19.62	90	24.00	74	31.36	71	42.01
政府協調	528	76.41	370	70.48	238	63.47	132	55.93	69	40.83
스스로 나선다	43	6.22	32	6.10	26	6.93	16	6.78	9	5.33
其 他	7	1.01	9	1.71	5	1.33	3	1.27	3	1.78
모르겠다	12	1.74	8	1.52	9	2.40	8	3.39	15	8.88
無応答	8	1.15	3	0.57	7	1.86	3	1.27	2	1.18

勢（教育水準別）

民	中	高	大	学
%	名	%	名	%
20.84	56	9.09	16	7.44
66.99	500	81.17	180	83.72
7.27	39	6.33	9	4.19
1.40	8	1.30	6	2.79
2.38	6	0.97		
1.12	7	1.14	4	1.86

国民姿勢（職業別）

農	非	営 農
%	名	%
26.61	194	17.55
60.32	804	72.37
6.65	67	6.03
2.03	9	0.81
3.38	22	1.98
1.01	14	1.26

〈表 1 - 67 〉統一을 爲한 国民姿勢(市・郡別)

区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政府追従	132	15.09	299	26.63
政府協調	651	74.40	688	61.26
스스로 나선다	51	5.83	75	6.68
其他	10	1.14	17	1.51
모르겠다	11	1.26	41	3.65
無応答	20	2.28	3	0.27

8. 統一方案

統一方案에 対해서는 解放以後 여러갈래로 提示되었지만 로 集約하여 意見을 묻은 結果 表 1 - 68과 같이 나타났다

〈表 1 - 68 〉 統一方案(全体)

区 分	名	%
유엔 監視下 人口比例	540	27.0
北韓만의 選挙	20	1.0
中立国監視下 南北総選	156	7.8
武力統一	134	6.7
聯邦制	62	3.1
南北協商	743	37.1
其他	45	2.2
모르겠다	279	13.9
未詳	21	1.0

위의 表에서 보듯이 「南北協商」에 依한 統一이 「유엔 監視下의 人口比例」에 依한 總選擧보다 많다는 것이 特徵이다(37.1% 27.0%) 그리고 北韓만의 總選擧를 主張하는 사람은 1.0%에 지나지 않으며 北韓가 主張하는 聯邦制에 贊同하는 사람이 3.1%에 이른다는 点도 特記할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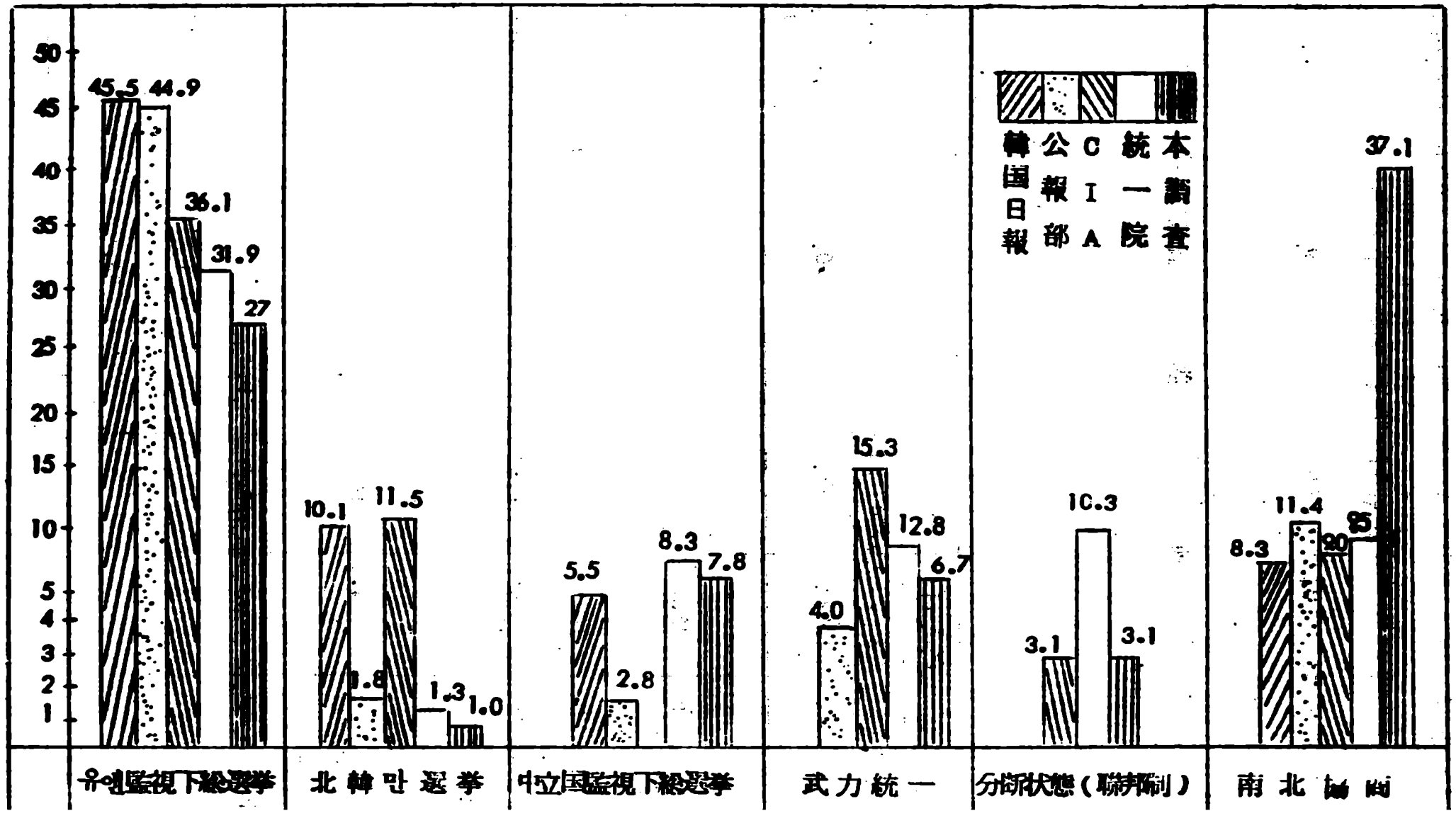
이제 그것들을 前에 実施한 調査와 比較하여 보자

〈表 1 - 69 〉　　統一方案에 対한 各調査比較(%)

調査機関 / 人員 / 内容	韓国日報 (61.1)	公報部 (64.11)	C I A (68.8)	統一院 (69.10)	統一院 (70.11)	統一院 (70.12)	本調査 (71.12)
	1,690	3,500	2,000	2,014	大学生 (1,210)	予備軍 (529)	2,000
유엔 監視下 總 選 擧	45.5	44.9	36.1	31.9	37	40	27.0
北韓만 選擧	10.1	1.8	11.5	1.3	1	4	1.0
中立国監視下 總 選 擧	5.5	1.8		8.3	7	10	7.8
武 力 統 一		4.0	15.3	12.8	13	7	6.7
分 断 状 態 (聯邦制)			3.1	10.3			3.1
南 北 協 商	8.3	11.4	9.0	9.5	28	26	37.1
其 他				1.6			2.2
모 르 겠 다				23.7	9	9	13.9

〈表 1 - 69〉　　統一方案에 対한 各調査比較(%)

区 分	韓国日報	公報部	C I A	統一院	本調査
年 月	61.1	64.11	68.8	69.10	71.12
人 員	1,690	3,500	2,000	2,014	2,000



앞의 表에서 몇가지 特徵을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우리가 主張하고 있는 「유엔 監視下에 人口比例에 의한 總選挙」案에 対한 支持率이 每年 줄어 들고 있다는 事実이다. (特殊階層인 大学生과 予備軍을 調査한 結果를 除外하면)

둘째 「南北協商」에 依한 統一案에 対한 支持率이 이번의 조사에서 急激히 늘어났다는 것과 每年 增加하는 趨勢를 보인다는 点이다. 이것은 아마도 南北赤十字会談, 美·中共의 接近, 朴大統領의 「8·15宣言」等이 意見決定이 作用했기 때문인 것 같으며 그 가운데서도 앞의 두가지가 決定的인 要因이 됐을 것이다.

셋째 武力統一案에 対한 支持率이 減少되는 傾向에 있는데 이것은 戰爭을 願하지 않는 心理가 作用되기 때문일 것이다.

넷째는 一般的인 意思表示라고 할 수 있는 「北韓만의 選挙案」이 줄어드는 代身 統一을 願하지 않거나 聯邦에 依한 統一案(北傀의 主張과 같은)에 対한 支持率이 3.1%에 이르고 있다는데도 注目할만 하다.

結局 「유엔 監視下의 總選統一」案이 「南北対話에 依한 統一」案에 依해서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진 特徵이라고 하겠고 이것은 統一政策 및 対北傀政策의 再検討 또는 그와 関聯된 国民啓蒙의 問題를 深刻히 提起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年齡別, 教育水準別, 職業別, 都市와 農村別로 본 統一方案에 対한 意見은 다음表 1 - 70 ~表 1 - 73과 같다.

<表 1 - 70>　　統一方案（年齡別）

区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유엔 監視下 人 口 比	201	29.09	153	29.14	99	26.40	58	24.54	27	15.98
北韓만의選擧	5	0.172	5	2.95	7	1.87	1	0.42	2	1.18
中立国監視下 南北 総選擧	54	7.81	46	8.76	32	8.53	16	6.78	8	4.73
武 力 統 一	48	6.95	38	7.24	23	0.13	17	7.20	8	4.73
聯 邦 制	28	4.05	17	3.24	5	1.33	6	2.54	6	3.55
南 北 協 商	273	39.51	207	37.43	137	36.53	78	33.05	47	27.81
其　　他	21	3.04	5	0.95	8	2.13	7	2.97	4	2.37
모 르 겠 다	59	8.54	47	8.95	60	16.00	49	20.76	64	37.87
無 応 答	2	0.28	7	1.33	4	10.6	4	1.69	3	1.77

<表 1 - 71>　　統一方案（教育水準別）

区分	無学		国民		中高		大学	
	名	%	名	%	名	%	名	%
유엔監視下 人口比例	75	16.52	197	27.55	189	30.68	79	36.74
北韓만의 選挙	3	0.66	9	1.26	8	1.30	0	00
中立国監視下 南北総選	15	3.30	52	7.27	75	12.18	14	6.51
武力統一	31	6.83	47	6.57	40	6.49	16	7.44
聯邦制	13	2.86	15	2.10	19	3.08	15	6.98
南北協商	139	30.62	274	38.32	247	40.10	83	38.60
其他	10	2.20	17	2.38	15	2.44	3	1.40
모르겠다	160	35.24	98	13.71	18	2.92	3	1.40
無応答	8	1.76	6	0.84	5	0.81	2	0.93

<表 1 - 72>　　統一方案（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유엔 監視下 人口比例	222	25.03	318	28.62
北韓만의 選挙	14	1.58	5	0.45
中立国監視下 南北総選	69	7.78	87	7.83
武力統一	65	7.33	69	6.21
聯邦制	20	2.25	42	3.78
南北協商	308	34.74	434	39.06
其他	17	1.92	28	2.52
모르겠다	158	17.82	121	10.89
無応答	14	1.58	7	0.63

<表 1 - 73>　　統一方案 (市 • 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유엔 監視下 人口比例	242	27.66	298	26.54
北韓만의 選挙	5	0.57	14	1.25
中立国監視下 南北総選	75	8.57	81	7.21
武力統一	50	5.71	84	7.48
聯邦制	39	4.46	23	2.05
南北協商	363	41.49	380	33.84
其他	26	2.97	19	1.69
모르겠다	66	7.54	213	18.97
無応答	9	1.04	11	0.98

앞에 表들에 나타난 統一方案에 対한 所属別 反応의 特徴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老年層일 수록 「모르겠다」는 比率이 急激히 늘어나고 있고 教育水準이 낮은 者의 境遇도 같다.

② 젊은 層일 수록 「南北協商」에 対한 支持率이 「유엔監視下総選」보다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다.

③ 知識水準이 낮을 수록 「南北協商에 対한 支持率이 유엔監視下의 総選案보다 높아지고 있다. 大学以上의 者의 境遇는 前者와 後者의 比率이 38.6対 36.7로 거의 비슷한데 無学者의 境遇는 南北協商의 30.6対 유엔監視下의 総選의 16.5라는 率이 되고있다.

④ 北傀가 主張하는 聯邦制에 対한 反応에 있어서는 年齢, 教育, 職業等에 따라 큰 変化가 있는 것이 아니다.

9. 統一障碍要素의 所在

「現時点에서 統一을 妨害하고 있는 가장 根本的인 要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設問에 対한 反応은 다음表 1-74와 같이 主로 「北傀의 武力赤化統一企図」(39.7%)라고 나타났고 다음이 「우리의 主体力量不足」(19.4%)이며 「유엔機能의 弱化」는 가장 적은 7.6%이다.

北傀의 赤化統一企図와 우리의 主体力量不足을 合하면 우리 民族全体에 内在하는 것이 約60%에 이르고 있는 바 이것은 結局 統一은 우리 民族이 決定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表 1-74> 統一障碍要素의 所在(全体)

区分	名	%
強大国의 傍観	294	14.7
北傀의 武力統一企図	794	39.7
유엔機能의 弱化	153	7.6
우리 主体力量 不足	388	19.4
其他	29	1.4
모르겠다	317	15.8
無応答	25	1.2

한편 이번 調査와 같은 内容으로 70年에 大学生을 対象으로 調査한 結果는 強大国의 傍観態度가 16%, 北傀의 赤化統一企図가 36%, 유엔機能의 弱化가 11%, 우리의 主体力量不足이 35%였다.

이것과 比較할 때 이번의 境遇는 北傀의 赤化統一企図를 障碍要素로 보는 率이 훨씬 늘었음을 보이는 바 그것은 設問自体의 差異(이번에는「武力的이라는 用語 挿入)도 있겠으나 主体力量이 向上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表 1-75 >　　統一妨害要素（年齢別）

区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強大国의 傍観	101	14.62	89	16.95	57	15.20	31	13.14	16	9.47
北傀의 武力統一	288	41.68	215	40.95	138	36.80	92	38.98	59	34.91
유엔機能의 弱化	60	8.68	38	7.24	27	7.20	17	7.20	11	6.51
우리主体力量不足	158	22.87	101	19.24	77	20.53	31	13.14	19	11.24
其　他	12	1.74	7	1.33	6	1.60	4	1.69		
모르겠다	63	9.12	71	13.52	64	17.07	56	23.73	63	37.28
無応答	9	1.30	4	0.76	6	1.60	4	1.69	1	0.59

<表 1-76 >　　統一妨害要素（教育水準別）

区　分	無　学		国　民		中　高		大　学	
	名	%	名	%	名	%	名	%
強大国의 傍観	28	6.17	119	16.64	99	16.07	48	22.33
北傀의 武力統一	176	38.77	295	41.26	256	41.56	67	31.16
유엔機能의 弱化	20	4.41	54	7.55	65	10.55	14	6.51
우리主体力量不足	55	12.11	122	17.06	145	23.54	36	30.70
其　他	2	0.44	6	0.84	10	1.62	11	5.12
모르겠다	165	36.34	110	15.38	35	5.68	7	3.26
無応答	8	1.76	9	1.26	6	0.97	2	0.93

<表 1-77 > 統一妨害要素 (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強大国의 傍観	124	13.98	169	15.21
北傀의武力統一企図	341	38.44	453	40.77
유엔機能의 弱化	66	7.44	87	7.83
우리主体力量不足	158	17.81	229	20.61
其他	9	1.01	20	1.80
모르겠다	177	19.95	140	12.60
無応答	12	1.36	13	1.17

<表 1-78 > 統一妨害要因 (市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強大国의 傍観	160	18.29	133	11.84
北傀의武力統一企図	347	39.66	447	39.80
유엔機能의 弱化	64	7.31	89	7.93
우리主体力量不足	195	22.29	192	17.10
其他	20	2.29	9	0.80
모르겠다	78	8.91	239	21.28
無応答	11	1.26	14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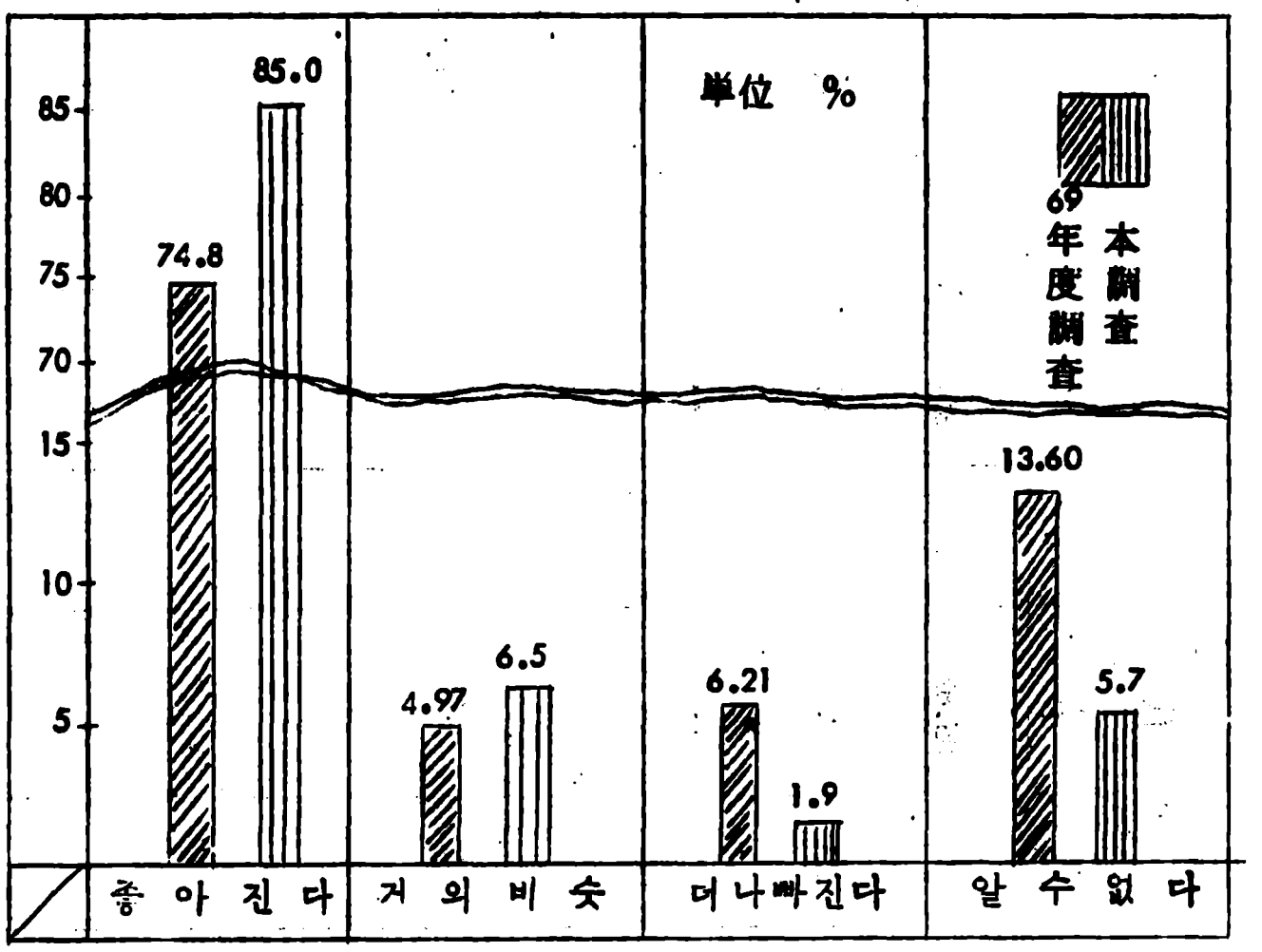
10. 自由統一의 生活

우리의 主張대로 自由民主統一이 된다면 全体国民의 生活状態가 지금보다 어떻게 変化할 것인가 라는 質問에 対해서 絶対多数는 다음 表 1-79와 같이 낳아질 것이라는 反応을 보이고 있고 못해질 것으로 것으로 보는 사람은 極少数에 不過하다.

<表 1-79> 自由統一下의 生活 (全体)

区 分	名	%
現在보다 向上	1,701	85.0
大 同 小 異	131	6.5
現在보다 低下	39	1.9
모 르 겠 다.	114	5.7
無 応 答	15	0.7

<表 1-79>　　自由統一下의　生活



그런데 이것은 69年의 調査結果에 나타난 것(좋아진다=74.8%, 비슷하다=5.0%, 나빠진다=6.2%)보다 조금 달라졌다. 좋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이 增大하고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이 減少(6.2%에서 1.9%로)되었다.

그러나 한편 통일을 꼭 해야겠다는 91.5%에 相当한 사람은 現在보다 生活이 나아질 것을 期待하고 統一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注目하여야 한다.

한편 所属別의 反応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 1-80>　　自由統一下의　生活 (年齡別)

区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現在보다　向上	594	85.96	464	88.38	322	85.87	189	80.08	128	75.74
大 同 小 異	45	6.51	35	6.67	23	6.13	15	6.36	13	7.69
現在보다　低下	17	2.46	6	1.15	6	1.60	6	2.54	4	2.37
모 르 겠 다	30	4.34	19	3.62	19	5.07	25	10.59	21	12.43
無　応　答	5	0.72	1	0.19	5	1.33	1	0.42	3	1.77

<表 1-81>　　自由統一下의　生活（教育水準別）

区分	無学		国民		中高		大学	
	名	%	名	%	名	%	名	%
現在보다 向上	362	79.74	602	84.20	545	88.47	192	89.30
大同小異	22	4.85	53	7.41	38	6.17	18	8.37
現在보다 低下	10	2.20	11	1.54	15	2.44	3	1.40
모르겠다	53	11.67	46	6.43	13	2.11	2	0.93
無応答	7	1.54	3	0.42	5	0.81	0	00

<表 1-82>　　自由統一下의　生活（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現在보다 向上	744	83.88	955	85.96
大同小異	40	4.51	91	8.19
現在보다 低下	23	2.59	16	1.44
모르겠다	71	8.00	43	3.87
無応答	9	1.01	6	0.54

<表 1-83>

自由統一下의 生活 (郡別)

区分	現在보다 向上		大同小異		現在보다 低下		모르겠다		無応答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118	94.40	5	4.00	2	1.60	0	0	0	0
京畿	189	85.14	17	7.66	6	2.70	10	4.50	0	0
江原	109	90.08	5	4.13	0	0	7	5.79	0	0
忠北	80	85.11	7	7.45	0	0	6	6.38	1	1.06
忠南	154	87.01	8	4.52	2	1.13	13	7.34	0	0
全北	124	81.58	8	5.26	4	2.63	16	10.53	0	0
全南	209	85.66	4	1.64	7	2.87	22	9.02	2	0.28
慶北	238	82.07	25	8.62	4	1.38	19	6.55	4	1.38
慶南	165	83.76	14	1.11	5	2.54	11	5.58	2	1.02
서울	315	93.33	38	10.05	9	2.38	10	2.65	6	1.59

<표 1-84>　　自由統一下生活 (市郡別)

区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現在보다 向上	752	85.94	947	84.33
大 同 小 異	69	7.89	62	5.52
現在보다 低下	17	1.94	22	1.96
모 르 겠 다	29	3.31	85	7.57
無 応 答	8	0.92	7	0.63

앞의 表들에 나타난 特徵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年齡은 自由統一下의 生活에 対한 意見과 거의 相関없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 수록 現在보다 向上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第 2 編 統一과 関聯된 情勢観

1. 周辺情勢観

가. 美軍撤収에 対한 意見

나. 美·中共 接近과 統一의 関係

다. 中共의 유엔加入과 韓国의 유엔에서의 位置

2. 南北 力量에 対한 意見

가. 南北間의 実態

나. 南北間의 軍事力 評価

第2篇 統一과 関聯된 情勢観

1. 周辺情勢観

가. 美軍撤収에 대한 意見

「유엔군(美軍)撤収해도 좋은가」의 設問에 대한 反応은 다음 표2-1과 같은바 「당분간 撤収해서는 안된다」는 反応(41.9%과 「統一이 될때까지 안된다.」는 反応(43.6%)이 비슷하며 또 두드러지다. 이것은 統一의 障碍要所로 「북괴의 무력적화 통일기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다는점(39.7%)과 関聯되어 国民이 북괴의 무력도발을 抑制하는 큰 수단으로 미군주둔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統一努力의 주체를 우리 自身으로 보고 있음(우리政府 : 9.3%)우리国民 : 18.2%, 政府와 国民, 18.2%)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또는 統一時까지 유엔군(美軍)의 주둔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표2-1> 美 軍 撤 収(전체)

区 分	名	%
撤収해도 좋다.	162	8.1
당분간 불가	838	41.9
통일시까지 불가	873	43.6
모르겠다	105	5.2
무 응 답	22	1.0

<표 2-2>　　美　軍　撤　收(年齡別)

区　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철수해도 좋다.	68	9.84	38	7.24	30	8.00	14	5.93	11	6.51
당분간 불가	336	48.63	243	46.29	149	39.73	71	30.08	38	22.49
동일시까지 불가	259	37.48	220	41.90	172	45.87	130	55.08	91	53.85
모 르 겠 다.	25	3.65	19	3.62	21	5.60	15	6.36	24	14.20
무 응 답	3	0.42	5	0.95	3	0.80	6	2.54	5	1.96

<표 2-3>　　美 軍 撤 収(教育水準別)

区 分	無 學		国 民		中 高		大 學	
	名	%	名	%	名	%	名	%
철수해도 좋다.	31	6.83	56	7.83	55	8.93	20	9.30
당분간 불가	117	25.77	294	41.12	305	49.51	122	56.74
통일시까지불가	234	51.54	325	45.45	243	39.45	71	33.02
모 르 겠 다.	61	19.44	33	4.62	10	1.62	1	0.47
무 응 답	11	2.42	7	0.98	3	0.49	1	0.47

<표 2-4>　　美 軍 撤 収(職業別)

区 分	農 業		非 農 業	
	名	%	名	%
철수해도좋다.	72	8.12	90	8.10
당분간 불가	352	39.68	485	43.65
통일시까지불가	396	44.64	476	42.84
모 르 겠 다.	58	6.54	47	4.23
무 응 답	8	0.90	13	1.17

<표 2-5>　　美　軍　撤　收(道別)

区　分	철수해도 좋다		당분간 철수 불가		통일될때까지		모르겠다		무응답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12	9.60	75	60.00	33	26.40	3	2.40	2	1.60
京畿	21	9.46	68	30.63	128	57.66	4	1.80	1	0.45
江原	1	0.83	48	39.67	63	52.07	8	6.61	1	0.83
忠北	10	10.64	40	42.55	37	39.36	6	6.28	1	1.06
忠南	15	8.47	74	41.81	79	44.63	7	3.95	2	1.12
全北	8	5.26	69	45.39	65	42.76	10	6.58		
全南	17	6.97	106	43.44	102	41.80	16	6.56	3	1.23
慶北	32	11.03	109	37.59	121	41.72	24	8.28	4	1.38
慶南	14	7.11	65	32.99	101	51.27	13	6.60	4	2.04
서울	32	8.47	184	48.68	144	38.10	14	3.70	4	1.05

<표 2-6>　　美軍撤收(市·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철수해도 좋다.	75	8.57	86	7.66
당분간 불가	415	47.43	422	37.58
통일시까지 불가	342	39.09	531	47.28
모르겠다.	34	3.89	71	6.32
무응답	9	1.03	13	1.15

앞의 所屬別反応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分析할 수 있다

① 젊은 층일수록 「撤収해도 좋다.」는 意見과 「당분간 주둔」의견이 老年層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반대로 老年層일수록 統一時까지 주둔할 것을 希望하는 比率이 높다. 이것은 老年層일수록 外国 依存意識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撤収」와 당분간 주둔의 意見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으며 統一時까지 주둔에 대한 지지율이 낮다.

③ 都市民은 당분간주둔에 큰 지지를 나타내지만 農村地域民은 統一時까지 주둔을 많이 지지하고 있다.

나. 美. 中共接近과 統一의 關係

最近 美国과 中共의 접근이 国民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그것이 한반도의 운명에 어떤 作用要因이 될 것인가 하는것이 주목꺼리이다. 그런데도 「美. 中共接近이 韓国의 統一에 어떤 影響을 줄것인가」에 대한 反応을 보면 다음표 2-7과 같이 많은 사람이 「모르겠다.」는 것(33.1%)이었다. 이 D.K 層에는 美国과 中共이 接触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国民의 国際情勢에 대한 관심이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관심이 있는 사람의 反応은 「周辺 強大国間의 統一論議가 促進될것」이라는데 가장 많이 나타났지만 「분단의 고정화」와 「북괴의 무력도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反応도 무시할 수 없을 比率을 차지한다는데 주목할만 하다.

<표 2-7> 美. 中共接近의 統一에 대한影響

区 分	名	%
강대국간의 통일론의촉진	482	24.1
분 단 의 고 정 화	327	16.3
북괴 무력도발 완화	265	13.2
별 무	202	10.1
기 타	37	1.8
모 르 겠 다	663	33.1
무 응 답	24	1.2

<표 2-8>　　美. 中共接近과 統一影響(年齡別)

区　　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강대국간의 통일 논의촉진	188	27.21	143	27.24	89	23.73	37	15.68	23	13.61
분 단 의 고 정 화	135	19.54	88	16.76	52	13.87	37	15.68	14	8.28
북괴무력도발 완화	101	14.62	81	15.43	56	14.93	21	8.90	6	3.55
별　　무	75	10.85	50	9.52	44	11.73	22	9.32	11	6.51
기　　타	13	1.88	3	0.57	11	2.93	4	1.69	6	3.55
모 르 겠 다.	170	24.60	155	29.52	120	32.00	113	42.88	104	61.54
무 응 답	9	1.30	5	0.95	3	0.80	2	0.85	5	2.96

<표 2-9>　　美. 中共接近(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国民學校		中. 高等學校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강대국간의통일논의 촉진	41	9.03	134	18.74	217	35.23	90	41.86
분단의 고정화	31	6.83	111	15.52	129	20.94	56	26.05
북괴무력도발 완화	32	7.05	98	13.71	103	16.72	32	14.88
별 무	39	8.59	78	10.91	66	10.71	19	8.84
기 타	9	1.98	15	2.10	9	1.46	4	1.86
모 르 겠 다	294	64.76	270	37.76	87	14.12	12	553
무 응 답	8	1.76	9	1.26	5	0.81	2	0.94

<표 2-10>　　美. 中共接近　(職業別)

区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강대국간의통일논의 촉진	165	18.60	316	28.44
분단의 고정화	136	15.33	191	17.19
북괴무력도발 완화	105	11.84	159	14.31
별 무	84	9.47	118	10.62
기 타	18	2.03	19	1.71
모 르 겠 다	370	41.71	293	26.37
무 응 답	9	1.02	15	1.35

<표 2-11>

美·中 共 接 近(道別)

区 分	강대국간통일론이 활발		분단현상 고정		북괴무력도발 완화		별로없다		기 타		모르겠다		무응답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43	34.40	18	14.40	18	14.40	15	12.00	3	2.40	21	16.80	7	5.60
京畿	38	17.12	41	18.47	43	19.37	15	6.76	5	2.25	78	35.14	2	0.90
江原	36	29.75	19	15.70	9	7.44	9	7.44			47	38.84	1	0.83
忠北	15	15.96	9	9.57	6	6.58	9	9.57	2	2.13	53	56.38		
忠南	44	24.86	33	18.64	26	14.69	14	7.91			60	33.90		
全北	26	17.11	17	11.18	19	12.50	9	5.92	3	1.97	76	50.00	2	1.32
全南	54	22.13	48	19.67	20	8.20	22	9.02	5	2.05	91	37.30	4	1.64
慶北	58	20.00	54	18.62	28	9.66	49	16.90	4	1.38	92	31.72	5	1.72
慶南	50	25.38	21	10.66	22	11.17	20	10.15	7	3.55	77	39.09		
서울	118	31.22	67	17.72	74	19.58	40	10.58	8	2.12	68	17.99	3	0.79

<표 2-12>　　美·中共接近(市·郡別

区分	都市	
	名	%
강대국간의통일논의촉진	267	30.51
분단의고정화	162	18.51
북괴무력도발완화	136	15.54
별무	96	10.97
기타	22	2.51
모르겠다	178	20.34
무응답	14	1.6

다. 中共의 유엔加入과 韓国의 유엔에서의

中共의 유엔加入에 따라 유엔에서의 韓
될 것인가에 대한 反応에 있어서도 앞의 「美
題에서도 지적했듯이 D.K층이 많다. 이것도
에 加入했는지 조차도 認識하지 못했거나 설사
그것이 다른 변수에 어떤 影響을 줄 것인가는
문이다.

<표 2-13> 中共유엔加入과韓国의유엔에서의位置(전체)

区分	名	%
유엔한국단독초청계속	91	4.5
분단국의유엔가입촉진	386	19.3
남북한 모두유엔초청	663	33.1
기타	71	3.5
모르겠다	748	37.4
무응답	41	2.0

<표 2-14> 中共유엔加入과韓国(年齡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유엔한국단독초청계속	30	4.34	22	4.19	18	4.80	13	5.51	8	4.73
분단국의유엔가입촉진	164	23.73	110	20.95	70	18.67	27	11.44	13	7.69
남북한 모두유엔초청	266	38.49	186	35.43	131	34.93	48	20.34	31	18.34
기타	24	3.47	17	3.24	8	2.13	13	5.51	9	5.33
모르겠다	195	28.22	174	33.14	140	37.33	133	56.36	105	62.13
무응답	12	1.74	16	3.04	8	2.13	2	0.84	3	1.77

<표 2-15> 中共유엔 加入과韓国(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国民		中高校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유엔한국단독초청계속	20	4.41	40	5.59	27	4.38	4	1.86
분단국의 유엔가입촉진	25	5.51	98	13.71	185	30.03	78	36.28
남북한모두유엔초청	65	14.32	234	32.73	259	42.05	105	48.84
기타	16	3.52	19	2.66	25	4.06	11	5.12
모르겠다	323	71.15	305	42.66	107	17.37	13	6.05
무응답	5	1.10	19	2.66	13	2.12	4	1.87

<표 2-16> 中共유엔加入과韓国 (職業別)

区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유엔 한국단독초청계속	48	5.41	43	3.87
분단국의 유엔가입촉진	141	15.90	245	22.05
남북한 모두 유엔초청	230	25.93	431	38.79
기타	21	2.37	50	4.50
모르겠다	428	48.25	320	28.80
무응답	19	2.14	22	1.98

<표 2-17>　　中共유엔　加入과　韓国(道別)

区分	유엔에한국단독초청계속		분단국의유엔가입촉진		남북한 모두 유엔에 초청		기타		모르겠다		무응답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2	1.60	31	24.80	39	31.20	17	13.60	30	24.00	6	3.80
京畿	8	3.60	36	16.22	74	33.33	3	1.35	97	43.69	4	1.80
江原	5	4.13	14	11.57	46	38.02			54	43.80	3	2.48
忠北	6	6.38	8	8.51	25	26.60	4	4.26	51	54.36		
忠南	7	3.95	30	16.95	55	31.07	2	1.13	79	44.63	4	2.25
全北	3	1.97	32	21.05	17	11.18	5	3.29	92	60.53	3	1.98
全南	8	3.28	49	20.08	89	36.48	5	2.05	89	36.48	4	1.64
慶北	39	13.45	45	15.52	95	32.76	14	4.83	93	32.07	4	1.37
慶南	9	4.57	40	20.30	51	25.89	6	3.05	88	44.67	3	1.53
서울	4	1.06	101	26.72	172	45.50	15	3.97	76	20.11	10	2.65

<표 2-18>　　中共유엔加入과輿論(市, 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유엔한국단독초청계속	27	3.09	64	5.7
분단국외유엔가입촉진	214	24.46	172	15.32
남북한 모두유엔초청	362	41.37	299	26.63
기타	45	5.14	26	2.32
모르겠다	203	23.2	545	48.53
무응답	24	2.74	17	1.51

앞의 표들에서 나타난 특징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젊은 층일수록 南北韓同時招請과 分断国 加入이라는 意見이 老年層보다 높다. (老年層에 D.K군이 많다는 것을 考慮하지 않는다면)

② 知識水準이 높을수록 앞의 젊은층에서 보인 意見과 같이 南北韓 同時招請과 分断加入의 意見을 많이 보인다. 이 境遇 無學者의 D.K率은 71.1%에나 이른다.

③ 都市民은 農村地域居住者보다 「모르겠다」는 率이 적으며 知識人의 性向과 같은 性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때 본 設問에 대한 反応에는 知識(社會的으로 얻은것을 包含)이 크게 作用한다고 하겠다.

2. 南北力量에 대한 意見

1.21사태이후에 北韓에 대한 国民의 知識이 상당히 늘어 났고 南北赤十字会談을 前後하여 政府와 言論界에서 北韓의 實情을 많이 알린 상태아래서 国民이 北韓의 여러가지 면에 대하여 어떤 認識을 하고 있고 또 우리와 북괴의 힘을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는 統一政策의 決定이나 国民의 안보관 및 反共意識確立을 위한 教育 및 言論政策決定에 있어서도 重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가. 南北韓의 生活

(1) 전체적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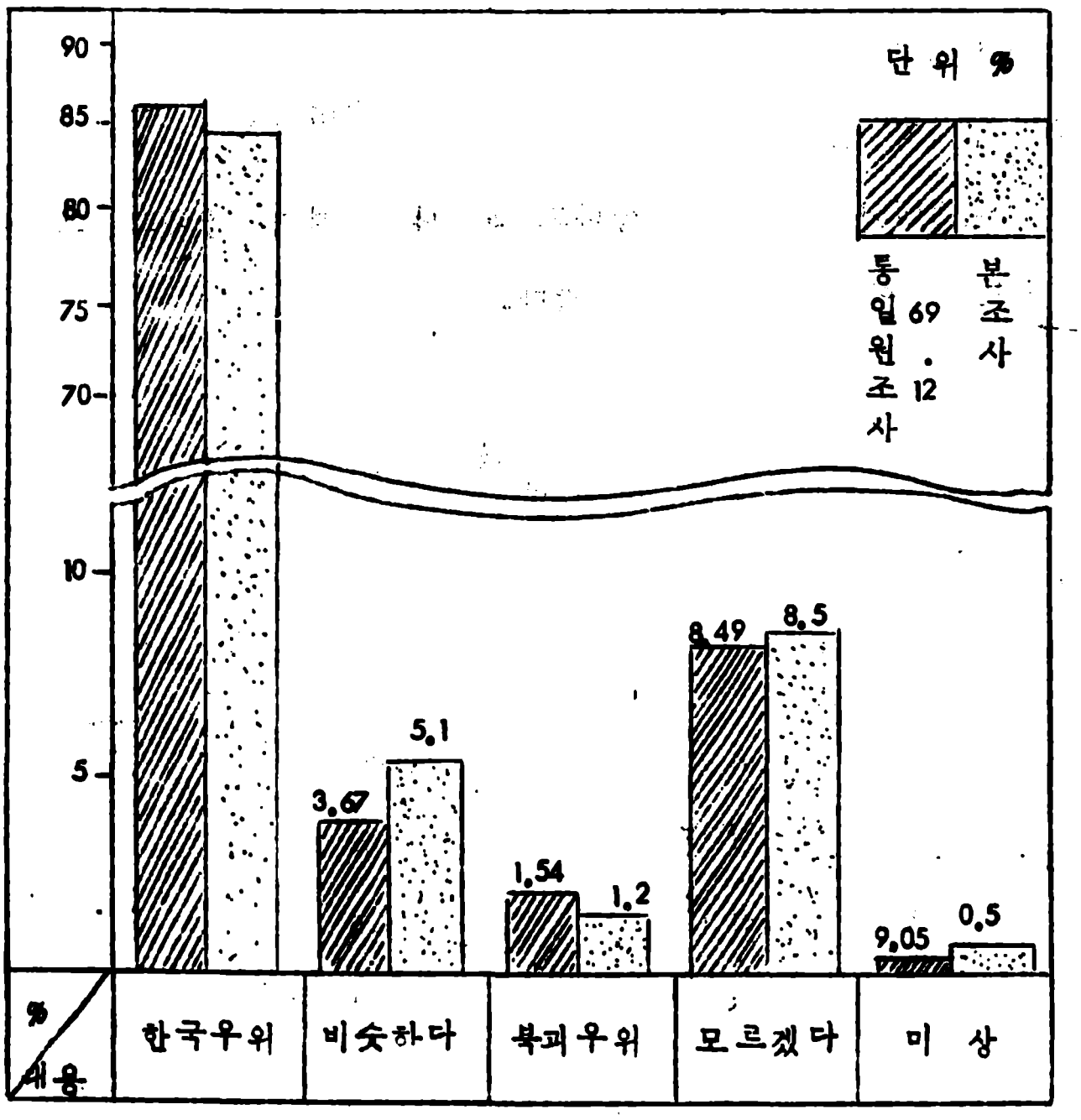
生活面에서 우리가 좋다고 보느냐 북괴가 좋다고 보느냐」에 대한 反応은 다음표 2-19와 같다.

<표 2-19> 南北生活比較(전체)

区分	名	%
한국우위	1,689	84.4
비슷하다	103	5.1
북괴우위	25	1.2
모르겠다	171	8.5
무응답	12	0.5

앞의 표에서 보듯이 生活面에서 우리와 북괴를 대계할때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84.4%)이며 「북괴가 났다」고 보는 사람은 불과 1.2%인 것이다. 이것은 「生活」이라는 概念을 일상활동 및 家計라는 측면까지 包含하여 生覺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範囲를 좁혀「經済発展面에서 어느쪽이 났다고 생각하느냐」의 設問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표 2-21와 같다.

<표 2-20>　　南 北 生 活 比 較



<표 2-21> 南北經濟力評價(건 재)

区 分	名	%
한 국 우 위	1,445	72.2
북 괴 우 위	102	5.1
비 슷 하 다	155	7.7
모 르 겠 다	284	14.2
불 응 답	14	0.7

위의 「南北經濟力 比較」에 대한 反応과 앞의 「生活面의 比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① 生活面의 比較에서는 南韓이 우위라고 본 比率이 84.4%에 이르고 있으나 經濟力比較에서는 우리가 優越하다는 率이 12.2%가 줄어든 72.2%이다.

② 生活比較에서는 북괴가 優越하다는 比率이 1.2%에 지나지 않으나 經濟力比較에서는 5.2%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兩者間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生活」이라는 概念을 소비경제적인 측면과 政治社會的인 측면까지 包含하여 生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經濟力에 있어서 우리가 앞섰다고 생각한 사람 1,445名에 대하여 어떤 부문이 앞섰다 생각하느냐를 물은결과 「모든 부문」을 든 사람이 49.3%가 되고 그다음이 「輕工業部門」(23.1%)이었고 「農業」은 8.0%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북괴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102名의 大部分이 「工業」(重化學工業)部門에서 북괴가 우리보다 앞섰다.(70.6%)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표 2-22> 經済力中優位部門(전체)

区分	計	工業部分(重工業)		農業		軽工業		모든部門		모르겠다		無応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우리가앞서부문	1445	207	14.33	116	8.03	334	23.11	713	49.34	69	4.78	6	0.42
북괴가앞선부문	102	72	70.59	3	2.94	9	8.82	6	5.88	—	—	—	—

앞의 표에 나타난 結果에서 보듯이 북괴經済力이 앞섰다고 보는 사람의 大部分이 「重化學工業」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것은 매스메디아나 개인을 通해서 북괴가 戦争準備를 볼 위해서 重工業部門에 重点을 두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所属別로 본 南北輪의 經済比較

年齢別, 教育水準別, 職業別, 道別, 都市와 農村別로 보인 反応은 다음의 표들과 같다. 먼저 生活面에 대한 反応을 제시하기로 한다.

<표 2-23> 南北生活比較(年齢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한국우위	386	84.80	443	84.38	321	85.60	198	83.90	138	81.66
비슷하다	34	4.92	29	5.52	16	4.27	14	5.93	9	5.33
북괴우위	12	1.74	8	1.52	1	0.27	2	0.85	2	1.18
모르겠다	55	7.96	45	8.57	33	8.80	19	8.05	19	11.24
무응답	4	57			4	1.07	3	1.27	1	0.59

<표 2-24> 南北生活比較(教育水準)

区分	無學		国民		中高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한국우위	378	83.26	610	85.31	519	84.25	182	84.65
비슷하다	17	3.74	37	5.17	40	6.49	9	4.19
북괴우위	2	0.44	8	1.12	8	1.30	7	3.26
모르겠다	51	11.23	58	8.11	45	7.31	17	7.91
무응답	6	1.32	2	0.28	4	0.64	0	00

<표 2-25> 南北生活比較(職業別)

区分	管理		非管理	
	名	%	名	%
한국우위	747	84.22	940	84.61
비슷하다	50	5.64	53	4.77
북괴우위	7	0.79	18	1.62
모르겠다	76	8.57	95	8.55
무응답	7	0.79	4	0.45

<표 2-26>　　南 北 生 活 比 較(道別)

区 分	우리가났다		서로비슷		북괴가났다		모르겠다		무 응 답	
	名	%	名	%	名	%	名	%	名	%
釜 山	105	84.00	6	4.80	3	2.40	10	8.00	1	0.80
京 畿	192	86.49	9	4.05	2	0.90	18	8.11	1	0.45
江 原	109	90.08	3	2.48	0	0	9	7.44	0	0
忠 北	79	84.04	1	1.06	1	1.06	12	12.77	1	1.06
忠 南	150	84.75	4	2.26	5	2.82	17	9.60	1	0.56
全 北	134	88.16	5	3.29	1	0.66	10	6.58	2	1.32
全 南	212	86.89	9	3.69	3	1.23	17	6.97	3	1.23
慶 北	246	84.83	12	4.14	3	1.03	28	9.66	1	0.34
慶 南	169	85.79	13	6.60	2	1.02	13	6.60	0	0
서 울	293	77.51	41	10.85	5	1.32	37	9.79	2	0.52

<표 2-27> 南北生活比較(市, 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한국우위	720	82.29	967	86.11
비슷하다	58	6.63	45	4.01
북괴우위	12	1.37	13	1.16
모르겠다	81	9.26	90	8.01
무응답	4	0.46	28	0.72

앞의 표들에서 보듯이 各 所屬에 따라 차이나게 보인 反応은 다음과 같다.

①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북괴의 우위를 내세우는 比率이 높다는 점이다.

② 非農民인 자와 북괴優位를 내세우는데 比率이 높다.

한편 「經済力 比較」에 대한 各 所屬別의 反応은 다음표들과 같다

<표 2-28> 南北經済力評價(年齡)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한국우위	504	72.94	381	72.57	274	73.07	170	72.03	114	67.46
북괴우위	42	6.08	26	4.57	17	4.53	11	4.66	8	4.73
비슷하다	52	7.53	43	8.19	30	8.00	15	6.36	15	8.88
모르겠다	90	13.02	74	14.10	49	13.07	38	16.10	31	18.34
불응답	3	6.43	3	0.57	5	1.34	2	0.85	1	0.59

<표 2-29> 南北經済力 評價(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国校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한국우위	317	69.82	525	73.43	465	74.03	147	68.37
북괴우위	15	3.30	42	5.87	26	4.22	19	8.84
비슷하다	30	6.61	49	6.85	55	8.93	21	9.77
모르겠다	89	19.60	97	13.57	74	12.01	24	11.16
불응답	3	0.66	2	0.28	5	0.81	4	1.86

<표 2-30> 南北經済力評價(職業別)

区分	営業		非営業	
	名	%	名	%
한국우위	646	72.83	798	71.83
북괴우위	36	4.06	66	5.94
비슷하다	69	7.78	86	7.74
모르겠다	130	14.66	153	13.77
불응답	6	0.67	8	0.72

区 分	한국우위		북괴우위		서로비슷		모르겠다		무 응 답	
	名	%	名	%	名	%	名	%	名	%
釜 山	101	80.80	8	6.40	7	5.60	8	6.40	1	0.80
京 畿	168	75.68	6	2.70	9	4.50	39	17.57	0	0
江 原	100	82.64	4	3.31	4	3.31	12	9.92	1	0.83
忠 北	51	54.26	5	5.32	4	4.26	34	36.17	0	0
忠 南	134	75.71	7	3.95	6	3.39	36	16.95	0	0
全 北	114	75.00	5	3.29	11	7.24	22	14.47	0	0
全 南	176	72.13	12	4.92	29	11.89	25	10.25	2	0.82
慶 北	215	74.14	10	3.45	25	8.62	34	11.72	6	2.07
慶 南	151	76.65	15	2.61	8	4.06	23	11.68	0	0
서 울	235	62.17	30	7.94	52	12.76	57	15.08	4	1.05

<표 2-32> 南北經済力評価(市, 郡別)

区分	都市		郡村	
	名	%	名	%
한국우위	598	68.34	847	75.42
북괴우위	50	5.71	52	4.63
비슷하다	85	9.71	70	6.23
모르겠다	130	14.86	152	13.54
무응답	12	1.37	2	0.18

앞의 표들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① 生活面에 대한 評価에서와 마찬가지로 經済力에 대한 評価에 있어서도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북괴가 優越하다고 보는 比率이 教育이 낮은 보다 약간 높다.

② 農村사람은 都市民에 比하여 韓国優位라는 評価를 많이 하고 있다.

南韓 經済力이 優位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所属別로 어떤 分野를 優位에 있다고 보는가는 다음과 같다.

<표 2-33> 南韓經濟後位分野 (年 齡 別)

区 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중 화 학 공 업	78	11.29	60	11.43	43	11.47	21	8.90	7	4.14
농 업	48	6.95	24	4.57	22	5.87	15	6.36	12	7.10
경 공 업	151	21.85	91	17.33	56	14.93	28	11.86	14	8.28
전 부 문	223	32.27	198	37.71	141	37.60	94	39.83	62	36.69
모 르 겠 다	14	2.03	16	3.05	15	4.00	13	5.51	21	12.43
응 답 불 요	175	25.33	133	25.33	97	25.87	64	27.12	52	30.77
무 응 답	2	0.29	3	0.57	1	0.27	1	0.42	1	0.59

<표 2-34> 南蠻經済優位分野(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国民		中高		大學	
	名		%		名		%	
중화학공업	38	8.37	91	12.73	64	10.39	18	8.37
농업	32	7.05	44	6.15	32	5.19	13	6.05
경공업	30	6.61	89	12.45	146	23.70	75	34.88
건부분	180	39.65	286	40.00	209	33.93	44	20.47
모르겠다	41	9.03	26	3.64	9	1.46	3	1.40
무응답	3	0.66	3	0.42	2	0.42	0	00
응답불요	130	28.63	176	24.62	154	25.00	62	28.84

<표 2-35> 南蠻經済優位分野(職業別)

区分	営業		非営業	
	名	%	名	%
중화학공업	106	11.95	105	9.45
농업	80	9.02	41	3.69
경공업	119	13.42	221	19.89
건부문	309	34.84	409	36.81
모르겠다	40	4.51	39	3.51
무응답	6	0.67	2	0.18
응답불요	227	25.59	294	26.46

<표 2-36>　　南韓經濟段位分野(市·道別)

区分	중화학부문		농업		경공업		모든부문		모르겠다		무응답		응답불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24	19.20	6	4.80	11	8.80	54	43.20	5	4.00	1	0.80	24	19.20
京畿	24	10.81	10	4.50	38	17.12	90	40.54	8	3.60	—	—	52	23.42
江原	9	7.44	2	1.65	22	18.18	63	52.07	7	5.79	—	—	18	14.88
忠北	1	1.06	8	8.51	15	15.96	25	26.60	2	2.13	—	—	43	45.74
忠南	28	15.82	14	7.91	27	15.25	54	30.51	13	7.34	5	2.82	36	20.34
全北	11	7.24	17	11.18	28	18.42	48	31.58	11	7.24	—	—	37	24.34
全南	33	13.52	12	4.92	22	9.02	100	40.98	11	4.51	—	—	66	27.05
慶北	37	12.76	18	6.21	39	13.45	121	41.72	5	1.72	1	0.34	69	23.79
慶南	18	9.14	24	12.18	32	16.24	71	36.04	9	4.57	—	—	43	21.83
서울	26	6.88	10	2.65	106	28.04	93	24.60	8	2.12	1	0.26	134	35.45

<표 2-37> 南韓經濟優位分野(市郡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중화학공업	82	9.37	128	11.4
농업	34	3.89	87	7.75
경공업	192	21.94	148	13.58
전부문	282	32.23	437	38.91
모르겠다	24	2.74	55	4.9
무응답	2	0.23	6	0.54
응답불요	259	29.6	262	23.33

한편 북한經濟가 優越한 部門에 대한 所屬別 評價는 다음 표들과 같다.

<표 2-38> 北韓經濟優位分野(年齡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중화학공업	36	5.21	19	3.62	15	4.00	9	3.81	5	2.96
농업	3	0.43	3	0.57	1	0.127	3	7.27	—	—
경공업	5	0.72	2	0.38	1	0.27	1	0.42	1	0.59
전부문	2	0.29	2	0.38	2	0.53	—		3	1.78
모르겠다	—	—	1	0.19						
응답불요	644	93.20	498	94.86	356	94.93	223	94.49	160	94.67
무응답	1	0.14								

<표 2-39> 北韓經済段位分野（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国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중화학공업	11	2.42	33	4.62	25	4.06	16	7.44
농업	2	0.44	4	0.56	3	0.49	1	0.47
경공업	2	0.44	2	0.28	4	0.65	2	0.93
전부문	2	0.44	5	0.70	—	—	2	0.93
모르겠다	—	—	1	0.14	—	—	—	—
무응답	—	—	—	—	1	0.16	—	—
응답불요	437	96.26	670	93.71	583	94.64	194	90.23

<표 2-40> 北韓經済段位分野（職業別）

区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중화학공업	30	3.38	54	4.86
농업	6	0.68	4	0.36
경공업	2	0.23	8	0.72
전부문	4	0.45	5	0.45
모르겠다	—	—	1	0.9
무응답	1	0.11		
응답불요	844	95.15	1039	93.52

<표2-41>

北韓經濟段位分野（道別）

区分	중화학부문		농업		경공업		모든부문		모르겠다		무응답		응답불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7	5.60	—	—	1	0.80	2	1.60	—	—	—	—	115	92.00
京畿	10	4.50	—	—	—	—	—	—	—	—	—	—	212	95.50
江原	4	3.31	1	0.83	1	0.83	—	—	—	—	—	—	115	95.04
忠北	4	4.26	—	—	—	—	1	1.06	—	—	—	—	89	94.68
忠南	6	3.39	2	1.13	—	—	1	0.56	—	—	—	—	168	94.92
全北	2	1.32	2	1.32	—	—	3	1.97	—	—	—	—	145	95.39
全南	8	3.28	2	0.82	2	0.82	1	0.41	1	0.41	1	0.41	229	93.85
慶北	11	3.79	—	—	—	—	1	0.34	—	—	—	—	278	95.86
慶南	12	6.09	1	0.51	1	0.51	—	—	—	—	—	—	183	92.89
서울	21	5.56	2	0.53	5	1.32	—	—	—	—	—	—	350	92.59

<표 2-42> 北韓經済優位分野 (市都別)

区分	都市		農村	
	名	%	名	%
중화학공업	40	4.57	43	3.83
농업	3	0.34	7	0.62
경공업	7	0.8	3	0.27
전부문	2	0.23	7	0.62
모르겠다	1	0.11	0	-
무응답	-	-	1	0.09
응답불요	322	93.94	1,062	94.57

나. 南北韓의 軍事力 評価

(1) 評 價

最近의 數年동안 安保問題와 関聯하여 政府와 言論은 북괴의 軍事戦略과 의도는 勿論이고 軍事力에 대한 知識을 国民에게 상당히 부여시켰고 警覚心을 고취했거니와 「南北韓의 軍事力面에서 볼때 어디가 더 강하냐」에 대한 反応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2-43> 南北軍事力評價 (전체)

区分	명	%
한국우위	722	36.1
북괴우위	661	33.0
비슷하다	324	16.2
모르겠다	268	13.4
무응답	25	1.1

앞의 표에서 보면 韓国의 軍事力이 강하다는 것과 북괴의 軍事力이 강하다는 것의 比率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生活面이나 經濟力의 面에서 우리가 앞서 있다고 본 比率이 많았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興味로운 事實이다.

이같이 軍事力에 있어서만은 우리의 優位性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것은 본항의 서두에서 지적한 安保論議가 最近에 활발해짐에 따르는 북괴軍事力에 대한 경계심고취와 比較的 구체적인 소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다음표들의 所屬別 反応을 보면 더욱 입증된다.

<표 2-44> 南北軍事力評價 (年齡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한국우위	213	30.82	195	37.14	149	39.73	99	41.95	64	37.87
북괴우위	270	39.07	170	32.38	109	29.07	69	29.24	42	24.85
비슷하다	137	19.83	94	17.90	52	13.87	24	10.17	17	10.06
모르겠다	64	9.26	59	11.24	58	15.47	42	17.80	44	26.04
무응답	7	1.01	7	1.33	7	1.86	2	0.85	2	1.18

<표 2-45> 南北軍事力評價(教育水準)

区分	無學		国民		中高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한국우위	210	46.26	306	42.80	169	27.44	37	17.21
북괴우위	90	19.82	200	27.97	267	43.34	104	48.67
비슷하다	51	11.23	96	13.43	124	20.13	53	24.65
모르겠다	101	22.25	103	14.41	48	7.79	16	7.44
무응답	2	0.44	10	1.40	8	1.29	5	2.33

<표 2-46> 南北軍事力評價(職業別)

区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한국우위	355	40.02	365	22.85
북괴우위	258	29.09	403	36.27
비슷하다	136	15.33	188	16.92
모르겠다	130	14.66	138	12.42
무응답	8	0.90	17	1.53

<표 2-47> 南北統事力評價(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한국우위	249	28.46	471	41.94
북괴우위	345	39.43	316	28.14
비슷하다	167	19.09	157	13.98
모르겠다	96	10.99	172	15.32
무응답	18	2.06	7	0.62

앞의 표들을 보면 매스콤 접촉이 많은 층일수록 북괴가 더 우세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스콤을 통하여 북괴의 統事力을 상당히 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인다.

즉① 年齡이 적을수록 북괴의 統事力이 강하다고 보고 있는바 이들은 매스콤 접촉도 높은 것이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북괴가 강하다고 보며 특히 中等教育以上을 받은者의 境遇는 뚜렷한바 이들의 매스콤 접촉도 그 반대인者보다 높다.

③ 非農業人者 및 都市居住者가 보다 월씬 북괴의 統事力이 강하다고 보는바 이들의 매스콤 접촉도도 높다.

이렇게 볼때 매스콤을 통한 安保는 의와 그에 따르는 북괴統事力의 소개가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 강하다고 보는 부문

統事力에 있어서 「韓国이 強하다」는 사람과 「북괴가 강하다」는 사람에게 각각 제일 강하다고 보는 부문을 지적하게 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먼저 韓国이 強하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어떤 부문을 강하게 보는가를 제시하였다.

<표<표 2-48> 南韓軍事力役位部門

区分	名	%
육군	411	56.9
해군	35	4.8
공군	57	7.9
예비군	136	18.8
모르겠다	71	9.9
무응답	12	1.7
계	722	99.9

<표 2-49> 南韓軍事力役位分野(年齡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육군	144	20.84	110	20.95	90	24.00	57	24.15	25	14.79
해군	13	1.88	16	3.05	8	2.13	6	2.54	2	1.18
공군	14	2.03	24	4.57	15	4.00	6	2.54	6	3.85
예비군	40	5.79	39	7.43	27	7.20	16	6.78	18	10.65
모르겠다	13	1.88	14	2.67	16	4.27	17	7.20	17	10.06
응답불요	464	67.15	320	60.95	217	57.87	134	56.78	100	59.17
무응답	3	0.43	2	0.38	2	0.53			1	0.59

<표 2-50> 南郡道事力配位分野(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육군	112	24.67	177	24.76	116	18.83	22	10.23
해군	10	2.20	17	2.38	13	2.11	5	2.33
공군	13	2.86	24	3.36	23	3.73	5	2.33
예비군	40	8.81	73	10.21	22	3.57	6	2.79
모르겠다	36	7.93	24	3.36	13	2.11	4	1.86
무응답	4	0.88	4	0.56	—	—	—	—
응답불요	239	52.64	396	55.38	429	69.64	173	80.47

<표 2-51> 南郡道事力優位分野(職業別)

区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육군	196	22.10	230	20.70
해군	22	2.48	23	2.07
공군	28	3.16	37	3.33
예비군	72	8.12	69	6.21
모르겠다	49	5.52	28	2.52
무응답	3	0.34	5	0.45
응답불요	517	58.29	719	64.72

<표 2-52>　南韓軍事力優位分野（道別）

区分	육군		해군		공군		예비군		모르겠다		무응답		응답불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23	18.40	2	1.60	6	4.80	12	9.60	6	4.80	1	0.80	75	60.00
京畿	42	18.92	3	1.35	9	4.05	12	5.41	9	4.05	1	0.45	146	65.77
江原	42	34.71	3	2.48	3	2.48	4	3.31	9	7.44	—	—	60	49.59
忠北	18	19.15	1	1.06	3	3.19	5	5.32	6	6.38	—	—	61	64.89
忠南	36	20.34	5	2.82	12	6.78	17	9.60	4	2.26	—	—	103	58.19
全北	23	15.13	3	1.97	4	2.63	12	7.89	1	0.66	—	—	109	71.71
全南	35	14.34	10	4.10	3	1.23	26	10.66	18	7.38	2	0.82	150	61.48
慶北	107	36.90	8	2.76	8	2.76	22	7.59	10	3.45	3	1.03	132	45.52
慶南	45	22.84	1	0.51	7	3.55	12	6.09	9	4.57	—	—	123	62.44
서울	56	14.81	9	2.38	10	2.65	19	5.03	5	1.32	1	0.26	278	73.54

<표 2-53>　　南韓軍事力優位分野(市

区分	都市	
	名	%
육군	155	17.71
해군	19	2.17
공군	29	3.31
예비군	49	5.6
모르겠다	23	2.63
무응답	3	0.34
응답불요	597	68.23

앞의 표들을 보면 年齡은 큰 影響이 없으며 韓国의 軍事力中 優越한 것으로 陸軍力을 들고 勿論 教育水準이 높은 사람도 다른 부문보다 陸軍力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강하다고 대가 陸軍力에 있어 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

한편 북괴군사력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지적은 다음과 같다.

<표2-54> 북괴군사력우위부문

区分	名	%
육군력	182	27.5
해군력	46	7.0
공군력	239	36.2
예비군력	121	18.3
모르겠다	39	5.9
무응답	34	5.1
계	661	100.0

<표 2-55> 北韓軍事力優位分野（年齡別）

区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육군	67	9.70	39	7.43	42	11.20	24	10.17	18	10.65
공군	23	3.33	18	3.43	8	2.13	6	2.54	5	2.96
해군	109	15.77	70	13.33	38	10.13	23	9.75	12	7.10
예비군	53	7.67	37	7.05	21	5.60	10	4.24	6	3.55
모르겠다	18	2.60	11	2.10	4	1.07	5	2.12	6	3.55
응답불요	414	59.91	345	65.71	261	69.60	167	70.76	120	71.01
무응답	1	1.01	5	1.95	1	6.27	1	0.42	2	1.18

<표 56> 北韓軍事力役位分野(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国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육군	43	9.47	66	9.23	65	10.55	16	7.44
해군	6	1.32	26	3.64	20	3.25	8	3.72
공군	21	4.63	59	8.25	118	19.16	55	25.58
예비군	17	3.74	37	5.17	49	7.95	24	11.16
모르겠다	12	2.62	18	2.52	11	1.79	3	1.40
무응답	2	0.44	4	0.56	6	0.97	4	1.86
응답불요	353	77.75	505	70.63	347	56.33	105	48.84

<표 2-57> 北韓軍事力役位分野(職業別)

区分	管理		非管理	
	名	%	名	%
육군	82	9.24	108	9.72
해군	22	2.48	37	3.33
공군	87	9.81	166	14.94
예비군력	57	6.43	70	6.30
모르겠다	17	1.92	27	2.43
무응답	5	0.57	11	0.99
응답불요	617	69.56	692	62.29

<표 2-58>. 北韓軍事力段位分野(道 別)

区分	육군		해군		공군		예비군		모르겠다		무응답		응답불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11	8.80	2	1.60	16	12.80	2	1.60	3	2.40	7	5.60	84	67.20
京畿	21	9.46	7	3.15	13	5.86	21	9.46	6	2.70	1	0.45	153	68.92
江原	8	6.61	3	2.48	9	7.44	5	4.13	—	—	—	—	96	79.34
忠北	14	14.89	1	1.06	4	4.26	17	18.09	2	2.13	1	1.06	55	58.51
忠南	18	10.17	3	1.69	22	12.43	2	1.13	3	1.69	—	—	129	72.88
全北	27	17.76	7	4.61	16	10.53	6	3.95	7	4.61	—	—	89	58.55
全南	10	4.10	10	4.10	42	17.21	20	8.20	8	3.28	2	0.82	152	62.30
慶北	29	10.00	8	2.76	18	6.21	17	5.86	2	0.69	3	1.02	213	73.45
慶南	27	13.71	1	0.51	24	12.18	7	3.55	3	1.52	—	—	135	68.53
서울	25	6.61	18	4.76	89	23.54	30	7.94	10	2.65	2	0.52	204	53.97

< 표 2-59 > 北韓軍事力優位分野 (市郡別)

区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육 군	85	9.71	105	9.35
해 군	30	3.43	29	2.58
공 군	148	16.91	105	9.35
예 비 군	60	6.86	67	5.97
모 르 겠 다	24	2.74	20	1.78
무 응 답	11	1.26	5	0.45
응 답 불 요	517	59.09	792	70.53

앞의 표들에서 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북괴의 空軍力이 우세하다는 比率이 661명 (100%)중 239(36.2%)에 이르고 그 다음이 陸軍力 (27.5%)이다.

② 所屬別이 이 설문에 影響을 주는 요인이 되지않고 있다.

第 3 編　反　共　意　識

1. 北韓同胞　説得自信度
2. 武裝共匪　事件에　対한　反応
3. 反共講演会의　成果
   가. 講演会　参席与否
   나. 参席内容의　얻은　知識
   다. 不参理由
4. 反共団体의　整備問題

第 3 編　反 共 意 識

1. 北韓同胞　說得自信度

「南北交流時　또는　北韓同胞를　만났을때　그들을　說得할 自信이 있는가」에　대한 反應은 다음 表3-1과 같이 「自信이　없다」는 者의 비율(9.0%보다 훨씬 높은 比率이 「自信있다」(42.2%)고 나타나고 있다.

<表3-1>　　北韓同胞　說得自信度(全體)

區　　分		
自信있다	844	42.2
만나봐야 한다	798	39.9
自信없다	181	9.0
모르겠다	155	7.7
無 應 答	22	1.0

그것을 70年11月 大學生을 대상으로 한 調査結果와 比較할때 自信度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即 70年의 調査結果에 의하면 「自信있다」가 54%, 「自信없다」가 15%, 「모르겠다」가 30%였는데 이번의 調査結果는 自信없다는 比率은 줄었으나 自信있다는 比率도 역시 떨어졌다. 이것은 이번의 調査設問에는 전에 없던 「만나 봐야겠다」는 것이 包含됐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表3-2>　　北韓同胞說得自信(年齡別)

區　　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自信있다	337	48.77	229	43.62	163	43.47	68	28.81	43	25.3
만나봐야겠다	261	37.77	221	42.10	155	41.33	96	40.69	65	38.02
自信없다	56	8.10	39	7.43	24	6.40	33	13.98	29	17
모르겠다	32	4.63	30	5.71	26	6.93	35	14.83	32	18.8
無　應　答	5	0.72	6	1.14	7	1.88	4	1.70		

<表3-3>　　北韓同胞　說得自信　敎育水準別(全體)

區　　分	無　學		國　校		中　高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自信있다	113	24.89	283	39.58	327	53.08	121	56.28
만나봐야하겠다	186	40.97	311	43.50	227	36.85	74	34.42
自信없다	66	14.54	72	10.07	30	4.87	13	6.05
모르겠다	87	19.16	44	6.15	19	3.08	5	2.33
無　應　答	2	0.44	5	0.70	13	2.11	2	0.93

<表 3-4> 北韓同胞 說得自信(職業別)

區分	營農		非營農	
	名	%	名	%
自信있다	336	37.88	507	45.63
만나봐야겠다	364	41.04	433	38.97
自信없다	87	9.81	94	8.46
모르겠다	89	10.03	66	5.94
無應答	11	1.24	11	0.99

<表 3-5> 北韓同胞說得自信(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自信있다	430	49.14	413	36.78
만나봐야겠다	59	6.74	122	10.86
自信없다	330	37.71	467	41.59
모르겠다	41	4.69	114	10.15
無應答	15	1.7	7	0.62

앞의 所屬別 反應에서 몇가지 特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原因을 分析하여 보자.

(1) 年齡이 젊은 층일수록 「說得할 自信이 있다」는 比率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은 「30代와 20代가 6.25를 經驗하지 못했기 때문에 反共意識이 투철하지 못하고 共産主義者에게 이겨낼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一般的 通念을 뒤엎는 結果라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물론 다른 面에서 생각하면 이들 20代와 30代가 共産主義者와 生活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反應을 보였다고도 評價할수도 있다.

(2) 6·25의 담당세력(戰爭을 實地로 遂行하고 參戰한 層)인 40代가 50代에 比하여 훨씬 높은 比率로 「自信 있음」을 表示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6.25時의 精神的, 肉體的인 犧牲에서 오는 대공분노심도 作用했기 때문인듯 하다.

③ 學歷이 높을수록 自信度는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特히 中等敎育以上의 者는 過半數가 「自信이 있음」을 表明하고 있으며 「自信없음」을 表示한 것은 4~6%에 不過하다. 이것은 이론적인 武裝이 되고 있음을 應答者들이 자부하고 있기 때문인것 같다.

④ 都市居住者 및 非農家의 職業을 가진者가 그렇지 않은者보다 훨씬 높은 「自信度」를 表明하고 있다. 이것은 學校 및 社會敎育과 關聯되어 나온 結果라고 보여진다.

2. 武裝共匪事件에 對한 反應

數年間에 걸쳐 일어난 武裝共匪事件에 대해서 國民이 적극적 대응자세를 가질수 있는가 또는 소극적 敗北姿勢를 보이는가는 重要한 問題이다. 따라서 적극적 자세를 보는 內容으로 「분노」와 「가소롭다」는 項目을 提示하고 소극적 자세를 보는 內容으로 「不安」을 提示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3-6> 武裝共匪事件에 對한 反應(全體)

區分	名	%
분노했다	1,036	51.8
가소롭게 생각	124	6.2
약간 불안감	462	23.3
아주 불안감	262	13.1
별 느낌없음	53	2.6
기 타	46	2.3
무 응 답	13	0.6

앞의 表에 나타나듯 「분노」와 「가소롭다」는 反應이 58%에 이르고 「불안」이 36.4%이다. 이것은 論理를 더 擴大한다면 共産主義者에 대하여 勝利할 自信이 있다는 率이 58%이고 敗北主義的인 사람이 36.4%에 이른다는 것으로도 解釈될 수 있겠다. 또한 주목할 것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하는 2.6%의 關

民이다。 이들은 共産支配下에 있든 自由支配下에 있든 相關없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所屬別로 그 反應을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 3-7> 共匪接触感想(年齡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분노했다	369	53.40	295	56.19	187	49.87	110	46.61	71	42.01
가소롭게생각	55	7.96	31	5.90	22	5.87	11	4.66	5	2.96
약간불안감	173	25.04	117	22.29	89	23.73	53	22.46	34	20.12
아주불안감	62	8.97	59	11.24	56	14.93	44	18.64	41	24.26
별느낌 없음	16	2.32	10	1.90	6	1.60	7	2.97	14	8.28
기 타	12	1.74	12	2.29	11	2.93	8	3.39	3	1.78
무 응 답	4	0.58	1	0.19	4	1.07	3	1.27	1	0.59

<表 3-8 > 共匪接触感想 (教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校		中·高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분노했다	210	46.26	400	55.94	322	52.27	104	48.37
가소롭게 생각	12	2.64	48	6.71	49	7.95	15	6.98
약간 불안감	96	21.15	155	21.68	149	24.19	66	30.70
아주 불안감	96	21.15	76	10.68	73	11.85	17	7.91
별노낌없음	23	5.07	14	1.96	10	1.62	6	2.79
기타	12	2.64	16	2.24	12	1.75	6	2.79
무응답	5	1.10	6	0.84	1	0.16	1	0.47

<表 3-9 > 共匪接触感想 (職業別)

區分	營業		非營業	
	名	%	名	%
분노했다	458	51.63	578	52.03
가소롭게 생각	53	5.98	69	6.21
약간 불안감	201	22.66	265	23.85
아주 불안감	125	14.09	137	12.33
별느낌없음	26	2.93	27	2.43
기타	18	2.03	28	2.52
무응답	6	0.68	7	0.63

<表3-10> 共匪接触感想(道別)

	분노했다		가소롭게생각		약간불안감		아주불안감		별느낌없음		기타		무응답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부산	72	57.60	6	4.80	15	12.00	22	17.60	2	1.60	8	6.40	0	0
경기	101	45.50	9	4.05	75	33.78	31	13.96	3	1.35	1	0.45	2	0.90
강원	94	77.69	6	4.96	11	9.09	9	7.44	0	0	0	0	1	0.83
충북	39	41.49	8	8.51	30	31.91	13	13.83	2	2.13	2	2.13	0	0
충남	105	59.32	4	2.26	42	23.73	20	11.30	5	2.82	1	0.56	0	0
전북	79	51.97	7	4.61	34	22.37	24	15.79	4	2.63	3	1.97	1	0.66
전남	112	45.90	17	6.97	56	22.95	38	15.57	13	5.33	2	0.82	6	2.46
경북	127	43.79	24	8.28	78	26.90	35	12.07	12	4.14	13	4.48	1	0.34
경남	127	64.47	8	4.06	29	14.72	22	11.17	4	2.03	6	3.05	1	0.51
서울	180	47.62	35	9.26	96	25.40	48	12.70	8	2.12	10	2.65	1	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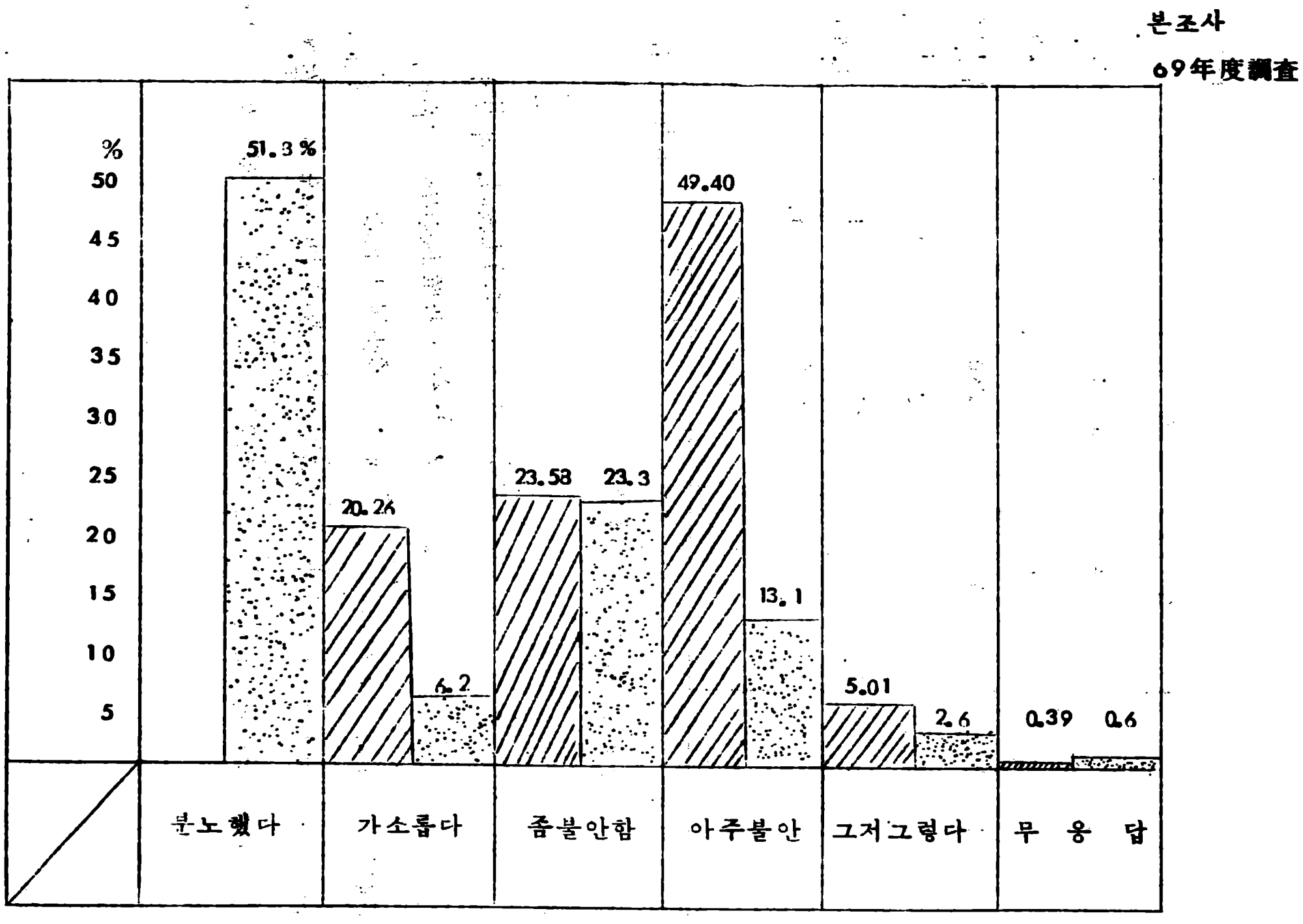
<表3-11>　　共匪接触感想（市·郡別）

區　　分	都　市		邑　村	
	名	%	名	%
분노했다	440	50.29	595	52.98
가소롭게생각	61	6.97	62	5.52
약간불안감	216	24.60	250	22.26
아주불안감	105	12.00	157	13.98
별느낌없음	20	2.29	33	2.94
기　　타	29	3.31	17	1.51
무 응 답	4	0.46	9	0.81

앞의 表들에서 몇가지의 特徵을 알 수 있는데 그 原因을 分析하여 보자.

(1) 젊은 層일수록 「가소롭다」거나 「분노했다」는 比率이 높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老年層보다 急進的, 行動主義的, 적극적인 性格을 가졌기 때문이라고도 하겠고, 6.25（共産主義者의 行動）을 經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하겠다. 老年層일수록 「不安感」을 느꼈다는 比率이 많은 사실은 6.25體驗과 關聯이 있는것 같다.

<表 3-12> 武裝共匪事件에 對한 國民의 反應의 比較



⑵ 江原道民의 反應이 다른 道民의것과 特異하다는 점이다. 即 다른 道民에게서 볼 수 없이 높은 比率이 「분노」했고 「느낌이 없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江原道가 接触地域이고 또 武裝共匪浸透가 잦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武裝共匪事件에 대한 國民의 反應을 69年의 調査結果와 比較하면 다음과 같다.

69年의 調査結果 이번의 調査結果에서 두드러지게 差異가 나는 것은

⑴ 69年의 경우는 크게 不安感을 느꼈지만(49.4%) 이번에는 그때의 약 3分의 1인 13.1%만이 큰 不安으로 느낀 점과,

⑵ 이에 따라 이번 調査에서는 「분노」와 「가소롭다」는 것의 合計가 58%에나 이른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은 69年은 武裝共匪의 서울侵入事件 및 울진침입사건등이 일어난 직후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3. 反共講演會의 成果

가. 講演會 參席與否

反共 및 統一關係의 時局講演會에 대한 關心과 긍정도를 알기 爲해서 그 參席與否를 물은 結果 다음과 같이 參席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 參席한 일이 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表3-13> 反共講演會參席與否(全體)

區分	名	%
있다	765	38.2
없다	1,217	60.8
무응답	13	0.9

<表3-14> 反共講演會參席(年齡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있다	289	43.27	219	41.71	149	38.93	63	26.69	34	20.12
없다	389	56.30	303	57.71	217	57.87	171	72.46	135	79.88
무응답	3	0.43	3	0.57	9	2.40	2	0.85	-	-

<表3-15> 反共講演會參席(敎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있다	103	22.69	233	32.59	292	47.40	137	63.72
없다	350	77.09	475	66.43	319	51.79	73	33.95
무응답	1	0.22	7	0.98	5	0.81	5	2.33

<表 3-16> 反共講演會參席(職業別)

區分	營建		非營建	
	名	%	名	%
있다	312	35.17	452	40.68
없다	567	63.92	650	58.51
무응답	8	0.90	9	0.81

<表 3-17> 反共講演會參席(道別)

區分	있다		없다		무응답	
	명	%	명	%	명	%
부산	52	41.60	72	57.60	1	0.80
경기	71	31.98	147	66.22	4	1.80
강원	71	38.68	50	41.32	0	0
충북	45	47.87	49	52.13	0	0
충남	73	41.24	103	58.19	1	0.56
전북	50	32.89	102	67.11	0	0
전남	88	36.07	153	62.70	3	1.23
경북	85	29.31	199	68.62	6	2.07
경남	73	37.06	124	62.74	0	0
서울	157	41.53	218	57.67	3	0.79

<表 3-18> 反共講演會參席(市·郡別)

區分	都市		郡村	
	名	%	名	%
있다	356	40.69	409	36.42
없다	507	57.94	710	63.22
무응답	12	1.37	4	0.36

앞의 表에 나타난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特徵이 있다.

(1) 年齡이 올라갈수록 講演會에 參席한 比率이 적다는 점이다. 이것은 6.25를 體驗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多幸한 일이라고 하겠다.

②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參席率은 急激히 上昇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講演內容의 理解度와 關聯된다고 하겠다.

③ 地域別로는 江原道가 다른 道에 比하여 參席한 率이 두드러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접적지역주민의 해문제에 대한 關心과 政府의 同地域에서의 反共啓蒙活動이 컸음을 나타낸다.

나. 參席回數와 얻은 知識

時局講演會에 參席한 일이 있는 765名의 참석빈도는 1回가 238名(31.1), 간혹이 372명(48.6), 있을때 마다 참석한 사람이 143名(18.7), 무응답이 12名(1.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속별의 참석빈도(比率은 2,000名을 100%로 한것)는 다음 表들과 같다.

<表 3-19> 反共講演會參席頻度(年齡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1회	101	14.62	65	12.38	47	12.53	24	10.17	8	4.73
간혹	151	21.85	114	21.71	73	19.47	37	15.68	22	13.02
매회	54	7.31	44	8.33	36	9.60	8	3.39	4	2.37
응답불요	331	55.14	300	57.14	217	53.40	167	70.76	135	79.88
무응답	4	0.57	2	0.38						

<表 3-20> 反共講演會參席頻度(敎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1회	34	7.49	91	12.73	92	14.94	29	13.49
간혹	50	11.01	109	15.24	155	25.16	83	38.60
매회	17	3.74	45	6.29	58	9.42	27	12.56
무응답	1	0.22	2	0.28	2	0.32	0	0
응답불요	352	77.53	468	65.45	309	50.16	75	34.88

<表 3-21> 反共講演會參席頻度(職業別)

區分	營建		非營建	
	名	%	名	%
1회	108	12.18	137	12.33
간혹	146	16.46	251	22.59
매회	70	7.89	77	6.93
무응답	4	0.45	2	0.18
응답불요	559	63.02	644	57.97

<表 3-22> 反共講演會參席頻度(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1회	114	13.03	132	11.75
간혹	211	24.11	182	16.56
매회	48	5.49	98	8.73
무응답	2	0.23	4	0.3
응답불요	500	57.14	703	62.60

한편 時局講演會에 參席하여 얻은 知識은 다음과 같다는 反應을 보였다.

<表3-23> 參席者가 講演會에서 얻은 知識

計		北韓實情		통일문제복잡		공산주의야욕		공산주의와싸워이기는길		政府의努力	
		名	%	名	%	名	%	名	%	名	%
765		261	34.12	86	11.24	140	16.30	72	9.41	30	3.92

國民의할일		其 他		별로없다		無應答		備 考
名	%	名	%	名	%	名	%	
128	16.73	21	2.75	15	1.96	12	1.57	

한편 所屬別로 본 反應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3-24>　　反共講演習得知識（年齢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北韓實情	103	14.91	75	14.29	57	15.20	24	10.17	13	7.69
統一問題復雜性	36	5.21	28	5.33	19	5.07	8	3.39	2	1.18
共産主義 야욕	46	6.66	46	8.76	30	8.00	13	5.51	10	5.92
勝共의 길	38	5.50	19	3.62	14	3.73	4	1.69	3	1.78
政府의統一努力	12	1.74	9	1.71	6	1.60	4	1.69	-	-
國民의統一役割	57	8.25	38	7.24	28	7.47	9	3.81	2	1.18
기타	9	1.30	6	1.14	2	0.53	2	0.85	3	1.78
별로없다	5	0.72	4	0.76	2	0.53	2	0.85	1	0.59
應答不要	382	55.28	300	57.14	217	57.87	170	72.03	135	79.88
無應答	3	0.43	-	-	-	-	-	-	-	-

<表3-25> 教育水準別反共講演習得知識(教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民學校		中高等學校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北韓實情	47	10.35	94	13.15	99	16.07	32	14.83
統一의 複雜性	6	1.32	21	2.94	44	7.14	23	10.70
共産主義의야욕	18	3.96	47	6.57	56	9.09	24	11.16
勝共의 길	11	2.42	29	4.06	23	3.73	15	6.98
政府의統一努力	2	0.44	12	1.68	14	2.27	3	1.40
國民의統一役割	11	2.42	36	5.03	53	8.60	34	15.81
기타	5	1.10	1	0.14	10	1.62	6	2.79
별로없다	2	0.44	2	0.28	5	0.81	6	2.79
無應答	0	0	0	0	2	0.32	1	0.47
應答不要	352	77.53	473	66.15	310	50.32	71	33.02

<表 3 - 26 > 反共講演習得知識 (職業別)

區分	營利		非營利	
	名	%	名	%
北韓實情	114	12.85	158	14.22
統一의複雜性	28	3.16	65	5.85
共産主義야욕	73	8.23	72	6.48
勝共의길	35	3.95	43	3.87
政府의統一努力	17	1.92	14	1.26
國民의統一努力	44	4.96	89	8.01
기타	10	1.13	12	1.08
별로없다	3	0.34	12	1.08
無應答	1	0.11	2	0.18
應答不要	562	63.36	644	57.87

<表 3 - 27 > 反共講演習得知識 (市 · 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北韓實情	114	13.03	158	14.07
統一의複雜性	62	7.09	30	2.67
共産主義의야욕	71	8.11	74	6.59
勝共의길	34	3.89	44	3.92
政府의統一努力	11	1.26	20	1.78
國民의統一努力	60	6.86	74	6.59
기타	11	1.26	11	0.93
별로없다	11	1.26	4	0.36
無應答	2	0.23	1	0.09
應答不要	499	57.03	707	62.96

다. 不參理由

反共 및 統一에 關한 時局講演會에 參席하지 않은 1,219名에 대하여 不參理由를 물은 結果 그 反應은 다음과 같다.

<表 3-28> 反共講演不參理由

計		關心이없어서		時間이없어서		들어도모르니까	
		名	%	名	%	名	%
1,217		118	9.70	618	50.78	92	7.56

講演會가없어서		기 타		無 應 答		備 考
名	%	名	%	名	%	
289	23.75	78	6.41	22	1.81	

앞의 表에서 보듯이 時間이 없어서 參席하지 못했다는 사람이 過半數이며 그 다음이 講演會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理由를 들고 있다.

所屬別로 본 反應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3-29> 反共講演不參理由(年齡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無關心	36	5.21	23	4.38	23	6.13	22	9.32	20	11.83
時間이없다	214	30.97	173	32.95	117	31.20	79	33.47	40	23.67
모르니까	12	1.74	13	2.48	17	4.53	23	9.75	31	18.34
講演이없어	103	14.91	77	14.67	51	13.60	32	13.56	30	17.75
기타	21	3.04	19	3.62	14	3.73	12	5.08	13	7.69
應答不要	301	43.56	220	41.90	152	40.53	66	27.97	32	18.33
無應答	4	0.58	-	-	1	0.27	2	0.84	3	1.77

<表3-30> 反共講演不參理由(敎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關心이없어	47	10.35	54	7.55	16	2.60	3	3.72
時間이없어	128	28.19	268	37.48	187	30.36	41	19.07
들어도모르니	74	16.30	17	2.38	4	0.65	1	0.47
講演會가없어	77	16.96	118	16.50	80	12.99	19	8.84
기타	24	5.29	19	2.66	27	4.38	9	4.19
無應答	4	0.88	-	-	5	0.81	1	0.47
應答不要	100	22.03	239	33.43	297	48.21	136	63.26

<表3-31>　　反共講演不參理由(職業別)

區分	管理		非管理	
	名	%	名	%
無關心	60	6.76	64	5.76
時間이없어	250	28.18	374	33.66
모르니까	55	6.20	41	3.69
講演이없어	167	18.83	127	11.43
기타	34	3.83	45	4.05
無應答	5	0.56	5	0.45
應答不要	316	35.63	455	40.95

<表3-32>　　反共講演不參理由(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無關心	54	6.17	69	6.14
時間이없어	298	34.06	326	29.03
모르니까	25	2.86	71	6.32
講演이없어	92	10.51	202	17.99
기타	43	4.91	36	3.21
無應答	6	0.58	4	0.36
應答不要	357	40.80	415	36.95

4. 反共団體의 整備問題

「統一에 對備하여 북괴의 浸透를 막아 내려면 現在의 反共団體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냐」에 대한 意見을 물은 結果 다음表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現在의 것에 同情的인 反應을 보였다.

<表3.-33> 反共団體整備案(全體)

區分	名	%
新団體結成	208	10.4
現団體 母體의 改編	319	15.9
現団體 그대로	426	21.3
現団體 統合	584	29.2
기타	42	2.1
모르겠다	398	19.9
無應答	3	1.1

앞의 表에서 볼 수 있듯이 「現団體를 그대로 두는 것」의 21.3%와 「現団體의 統合」의 29.2% 合한 50.5%가 現在狀態의 存續을 바라고 있고 「新団體의 結成」의 10.4%와 「改編」의 15.9%를 合한 26.3%만이 改編을 願하고 있다.

이것을 所屬別로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3-34>　　反共団體整備案(年齢別)

區分	未詳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新団體結成	1	25.00	99	14.33	60	11.43	32	8.53	12	5.08	4	2.37
現団體母體의 改編	1	25.00	118	17.08	73	17.71	57	15.20	31	13.14	19	11.24
現団體그대로	1	25.00	132	19.10	106	20.19	97	25.87	56	23.73	34	20.12
現団體統合	1	25.00	228	33.00	175	33.33	99	26.40	48	20.34	33	19.53
기타			12	1.74	6	1.14	10	2.67	8	3.39	6	3.55
모르겠다			96	13.89	80	15.24	77	20.53	75	31.78	70	41.42
無應答			6	0.86	5	0.95	3	0.80	6	2.54	3	1.77

<表3-35>　　反共団體整備案（敎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校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新団體結成	19	4.19	70	9.79	84	13.64	35	16.28
現団體母體의 改編	47	10.35	96	13.43	127	20.62	49	22.79
現団體그대로	114	25.11	181	25.31	112	18.18	19	8.84
現団體統合	66	14.54	202	28.25	217	35.23	99	46.05
기타	11	2.42	13	1.82	15	2.44	3	1.40
모르겠다	19	41.85	146	20.42	54	8.77	8	3.72
無應答	7	1.54	7	0.98	7	1.13	2	0.93

<表 3-36>　　反共団體整備案（職業別）

區分	營		非營	
	名	%	名	%
新団體結成	94	10.60	113	10.17
現団體母體의 改編	116	13.08	203	18.27
現団體그대로	219	24.69	207	18.63
現団體統合	207	23.34	376	33.84
기타	17	1.92	25	2.25
모르겠다	226	25.48	172	15.48
無應答	8	0.90	15	1.35

<表 3-39>　　反共団體整備案（市・郡別）

區分	都市		郡村	
	名	%	名	%
新団體結成	103	11.77	104	9.26
現団體母體의 改編	144	16.46	174	15.49
現団體그대로	150	17.14	276	24.58
現団體統合	327	37.37	257	22.89
기타	19	2.17	23	2.05
모르겠다	119	13.60	279	24.84
無應答	13	1.49	10	0.89

제 4 절 환경영향 저감 대책

1. 대기질에 대한 [illegible]

[illegible]

2. [illegible]

<표 4-1>

第 4 編　南北交流에　対한　意見

1. 統一會談에 對한 意見

앞에서 統一方案中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던「南北協商」에 依한 統一이라는 反應을 再確認하기 爲해서「統一問題에 關하여 북괴와 直接對話해도 좋은가」의 설문을 한 結果 그 反應은 다음 表와 같다.

<表4-1>　　南北統一會談（全體）

區　　分	名	%
해도좋다	1,144	57.2
해도안해도좋다	184	9.2
당분간 불가	286	14.3
統一까지不可	239	11.9
모르겠다	109	5.4
無應答	38	1.8

상의 表에서 보듯이 南北統一 會談에 對한 賛成率이 57.2%인에 對해서 反對 意見（當分間 不可…… 14.3%），統一時까지 不可……11.9）은 26.2%에 不過하다. 이것은 統一方案에 對한 反應에 있어서 南北協商에 對한 賛成率이 높았다는 点과 합치된다.

이것을 所屬別로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表4-2> 南北統一會談 (年令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해도좋다	444	64.25	302	57.52	206	54.93	110	46.61	79	46.75
해도안해도좋다	51	7.39	38	7.24	41	10.93	25	10.59	29	17.16
당분간불가	100	14.47	89	16.75	57	15.20	29	12.29	10	5.90
統一時까지不可	65	9.41	58	17.05	36	9.60	52	22.03	28	16.57
모르겠다	19	2.75	29	5.52	27	7.20	15	6.36	19	11.24
無應答	13	1.73	9	1.71	8	2.12	5	2.12	4	1.37

<表4-3> 南北統一會談(教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해도좋다	213	46.92	416	58.18	381	61.85	134	62.33
해도안해도좋다	61	13.44	69	9.65	38	6.17	16	7.44
당분간불가	31	6.83	70	12.59	113	18.34	52	24.19
統一時까지不可	82	18.06	96	13.43	55	8.93	6	2.79
모르겠다	55	12.11	36	5.03	15	2.44	3	1.40
無應答	12	2.64	8	1.12	14	2.28	4	1.87

<表4-4> 南北統一會談(職業別)

區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해도좋다	482	54.34	661	59.50
해도안해도좋다	101	11.39	83	7.47
당분간불가	110	12.40	176	15.84
통일시까지불가	131	14.77	107	9.63
모르겠다	50	5.64	59	5.31
無應答	13	1.46	25	2.25

<表4-5>

南北統一會談（道別）

區分	해도좋다		해도안해도좋다		당분간불가		통일이될때까지불가		모르겠다		無應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79	63.20	8	6.40	23	18.40	6	4.80	5	4.00	4	3.20
경기	114	51.35	11	4.95	41	18.47	44	19.82	9	4.05	3	1.35
江原	60	49.59	2	1.65	18	14.88	10	8.26	28	23.14	3	2.48
忠北	54	57.45	5	5.32	14	14.89	15	15.96	5	5.32	1	1.06
忠南	96	54.24	14	7.91	19	10.73	35	19.77	12	6.78	1	0.56
全北	83	54.61	15	9.87	16	10.53	32	21.05	3	1.97	3	1.97
全南	145	59.43	37	15.16	30	12.30	17	6.97	10	4.10	5	2.05
慶北	196	67.59	32	11.03	26	8.97	16	5.52	15	5.17	5	1.72
慶南	98	49.75	22	11.17	34	17.26	30	15.23	12	6.09	1	0.51
서울	219	57.94	38	10.05	65	17.20	34	8.99	10	2.65	12	3.18

<表4-6>　　南北統一會談(市.郡別)

區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해도좋다	511	58.4	632	56.28
해도안해도좋다	72	8.23	112	9.97
당분간불가	152	17.37	134	11.93
통일시까지불가	80	9.14	158	14.07
모르겠다	36	4.11	73	6.5
無　應　答	24	2.74	14	1.24

앞의 表들에 나타난 特徵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젊은층일수록 南北會談에 對한 贊成率이 높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統一方案에 對한 그들의 反應과 합치된다.

② 敎育水準이 높을수록 南北會談에 對한 支持率이 높다.

③ 道別差異는 別로 없으나 都市民과 非農業人은 그반대인자 보다, 南北會談에 對한 支持率이 높다.

2. 家族찾기 運動 제의에 對한 평가

가. 제의의 妥當性 與否

今年여름 大韓赤十字社가 제의한 家族찾기 會談에 對하여 妥當性을 물은 結果에 對한 反應은 다음 表와 같다.

<表 4 - 7>　　家族찾기제의　평가(全體)

區　　分	名	%
돌 은 일 없 다	37	1.8
잘 한 일	1.749	87.4
못 한 일	93	4.6
모 르 겠 다	101	5.0
無 應 答	20	0.9

앞의 表와 같이 大部分(87.4%)은 잘한 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돌은일 조차없다는(1.8%)에 對해서는 注目을 要한다.

한편 所屬別로 어떤 特色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妥當 및 不當性의 理由

「잘한 일이다」고 對答한 1,749名中 434名이 그 理由로서 世界에 平和統一努力을 알렸기 때문이라고 보고, 家族再會가 528名, 統一 기반의 조성이 602名, 北韓自由化促進이 156名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個人的인 理由(528名)보다 國家的 차원의 이유가 많은 셈이다.

한편 잘못한 일로 보는(93名)이 提示한 理由를 보면 북괴의 政治的利用 27名(29.0%), 공산당과의 會談失敗 22名(23.7%) 會談利用한 공비침투 18명(19.3%), 國民精神武裝解弛(14.0%)로 나타났다. 이것은 大部分 북괴 공산당과의 會談이 무의미(악용)하다는 理由들인 것이다.

한편 妥當한 理由를 所屬別로 보면 다음 表들과 같다.

區 分	20 代		30 代		40 代		50 代		60 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세계평화통일노력주지	181	26.19	119	22.67	76	20.27	35	14.83	29	17.16
북괴의자유화촉진	70	10.13	59	11.24	26	6.93	13	5.51	6	3.55
통일의 길이트임	211	30.54	169	32.19	123	32.80	71	30.08	39	23.08
이산가족 재회	149	21.56	131	24.95	115	30.67	80	33.90	55	32.54
기 타	14	2.03	1	0.19	-	-	2	0.85	2	1.18
應答不要	64	9.26	46	8.76	33	8.80	34	14.41	37	21.89
無應答	2	0.29			2	0.53	1	0.42	1	0.59

<表 4 - 9 > 家族찾기제의 妥當理由 (敎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校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세계평화통일노력주지	54	11.89	142	19.86	157	25.49	89	41.40
북괴의 자유화촉진	18	3.96	59	8.25	76	12.34	22	10.23
통일의 길이 트임	127	27.97	221	30.91	209	33.93	56	26.05
이산가족 재회	165	36.34	213	29.79	126	20.45	27	12.56
기 타	2	0.44	3	0.42	8	1.30	6	2.79
無 應 答	2	0.44	3	0.42	0	.00	1	0.47
應答不要	86	18.94	74	10.35	40	6.49	14	6.51

<表 4 - 10 > 家族찾기 제의 妥當理由 (職業別)

區分	非農		非營農	
	名	%	名	%
세계평화통일노력주지	174	19.62	268	24.12
북괴의 자유화촉진	70	7.89	105	9.45
통일의 길이 트임	241	27.17	371	33.39
이산가족 재회	270	30.44	260	23.49
기 타	7	0.79	12	1.08
無 應 答	5	0.56	1	0.09
應答不要	120	13.53	93	8.37

<표 4 - 11> 家族찾기 제외의 妥當한 理由(道別)

区分	평화통일노력주지		북괴에 차 유화 촉진		통일의 길이 트임		이산가족재회		其他		無應答		應答不要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31	24.80	7	5.60	57	45.60	16	12.80	2	1.50	2	1.60	10	8.00
경기	78	35.14	20	9.01	41	18.47	59	26.58	2	0.90	-	-	22	9.91
江原	15	12.40	11	9.09	43	35.54	28	23.14	-	-	-	-	24	19.83
忠北	19	20.21	3	3.19	20	21.28	42	44.68	1	1.06	-	-	9	9.57
忠南	35	19.77	19	10.73	69	38.98	26	14.69	-	-	2	1.13	26	14.69
全北	17	11.18	9	5.92	55	36.18	48	31.58	2	1.32	-	-	21	13.82
全南	44	18.03	16	6.56	77	31.56	65	26.64	2	0.82	1	0.41	39	15.78
慶北	25	8.62	25	8.62	85	29.31	122	42.07	5	1.72	-	-	28	9.66
慶南	49	24.87	21	10.66	48	24.37	53	26.90	2	1.02	-	-	24	12.18
서울	129	34.13	44	11.64	118	31.22	72	19.05	3	0.79	1	0.26	11	2.91

<表 4-12> 家族찾기 제외 妥當理由(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세계평화통일노력주지	250	28.57	191	17.01
북괴의 자유화 촉진	89	10.17	86	7.66
통일의 길이 트임	285	32.57	328	29.21
이산가족 재회	175	20.00	356	31.77
其他	9	1.03	10	0.89
無應答	3	0.34	3	0.27
應答不要	64	7.31	149	13.27

<表-4-13> 家族찾기 제외의 不當理由(年令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북괴의政治的利用	19	2.75	19	3.62	11	2.93	6	2.54	2	1.18
북괴가공비참투에 利用	13	1.88	3	0.57	5	1.33	10	4.24	6	3.55
國民의反共精神武裝解他	14	2.03	3	0.57	5	1.33	2	0.85	2	1.18
공산당과의 創談失敗	10	1.45	4	0.76	4	1.07	7	2.97	2	1.18
其他	1	0.14			1	0.27	1	0.42	1	0.59
應答不要	633	91.61	494	74.10	347	93.07	207	87.71	155	91.72
無應答	1	0.14	2	0.38	-	-	3	1.27	1	0.59

<表 4-14>　家族찾기 제외의 不當理由 (教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校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북괴의정치적이용	6	1.32	18	2.52	25	4.06	8	3.72
북괴가공비침투에 이용	15	3.30	13	1.82	7	1.14	2	0.93
국민의 반공정신무장해이	5	1.10	5	0.70	8	1.30	8	3.72
공산당과의 희담은 실패	8	1.76	10	1.40	8	1.30	1	0.47
其他	1	0.22	2	0.28	-	-	1	0.47
無應答	4	0.88	2	0.28	1	0.16	-	-
應答不要	415	91.41	665	93.01	567	92.05	195	90.70

<表 4-15>　家族찾기 제외의 不當理由 (職業別)

區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북괴의 政治的 利用	27	3.04	29	2.61
북괴가 공비침투에 利用	23	2.59	14	1.26
國民의 反共精神武裝解弛	7	0.79	17	1.71
공산당과의회담은 失敗	14	1.58	13	1.17
其他	1	0.11	3	0.27
無應答	4	0.45	3	0.27
應答不要	811	91.43	1030	92.71

<表 4-16>　　家族찾기　제의의　不當한　理由 (道別)

區分	북괴의政治的 利用		북괴의용비 침투레이		國民反共精神武裝解弛		공산당과의 會談은失敗		其他		無應答		應答不要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山	6	4.80	-	-	2	1.60	3	2.40	-	-	2	1.60	112	89.60
경기	5	2.25	2	0.90	5	2.25	5	2.25	-	-	-	-	205	92.34
江原	2	1.65	2	1.65	1	0.83	-	-	-	-	-	-	116	95.87
忠北	1	1.06					1	1.06	-	-	-	-	72	97.87
忠南	3	1.69	8	4.52	1	0.56	1	0.56	-	-	-	-	164	92.66
全北	4	2.63	2	1.32	2	1.32	4	2.63	1	0.66	-	-	139	91.45
全南	16	6.56	12	4.92	5	2.05	6	2.46	1	0.41	1	0.41	203	83.20
慶北	8	2.76	4	1.38	4	1.38	6	2.07	2	0.69	2	0.69	264	91.03
慶南	3	1.52	3	1.52	1	0.51	-	-	-	-	-	-	190	96.45
서울	9	2.38	4	1.06	5	1.32	1	0.26	-	-	2	0.53	257	94.44

<表4-17> 家族찾기 제외의 不當理由(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북괴의 政治的利用	29	3.31	27	2.4
북괴가 공비침투에이용	10	1.14	27	2.4
국민의 반공정신무장해이	18	2.06	8	0.71
공산당과의 회담은 실패	12	1.37	15	1.34
其他	2	0.23	2	0.16
無應答	4	0.46	5	0.27
應答불요	800	91.43	1,041	92.7

앞에 表에서 나타난 特徵을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년층 일수록 家族의 再會를 그 理由로 또는 比率이 높고 젊은층 일수록 世界에 平和統一 努力을 주지시켰다는 理由를 드는 比率이 높다.

②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世界의 平和統一 努力을 주지시켰다는 理由가 많고 이산가족 再會를 理由로 드는 比率이 急激히 줄고 있다.

3. 赤十字會談의 方向

「赤十字會談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겠느냐」는 질문에 對한 反應은 다음表와 같다. 다음表에서 보듯이 인도문제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主張과 經濟, 文化交流 會談으로 發展시켜야 된다는 主張 및 政治會談으로 發展시켜야 한다는 主張이 各各 29.8%, 23.4%, 25.7%로 비슷하다.

<表4-19>　　赤十字　會談의　方向（全體）

區　　分	名	%
인도적인 問題에 局限	597	29.8
經濟　文化交流會談으로 發展	467	23.4
政治會談으로 發展	514	25.7
其　　他	49	2.4
모 르 겠 다	338	16.9
無　應　答	33	1.6

<表4-20>　　赤十字　會談의　方向（年令別）

區　　分	20 代		30 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인도적인문제국한	209	30.25	173	32.95	117	31.20	60	25.42	36	21.30
경제문화교류회담으로발전	201	29.09	126	24.00	77	20.53	46	19.49	19	11.24
정치회담으로발전	183	26.48	144	27.43	98	26.13	54	22.88	33	19.53
其　　他	14	2.03	13	2.48	8	2.13	7	2.97	7	4.14
모 르 겠 다	75	11.85	64	12.19	69	18.40	62	26.27	68	40.24
無　應　答	9	1.30	5	0.95	6	1.60	7	2.96	6	3.55

<表4-21>　　赤十字会談　方向（教育水準別）

區分	無學		國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인도적인 問題에局限	105	23.13	205	28.67	213	34.58	74	34.42
경제, 문화교류의담진전	49	10.79	162	22.66	184	29.87	74	34.42
政治会談 進展	83	18.28	202	28.25	173	28.08	56	26.05
其他	13	2.86	19	22.66	10	1.62	7	3.26
모르겠다	187	41.19	122	17.06	26	4.22	3	1.40
無應答	17	3.74	5	0.70	10	1.62	1	0.47

<表4-22>　　赤十字　会談의　方向（職業別）

區分	営農		非営農	
	名	%	名	%
인도적인 問題에 局限	259	29.20	338	30.42
경제, 문화교류회담으로 발전	176	19.84	293	26.37
政治会談으로 發展	207	23.34	305	27.45
其他	19	2.14	30	2.70
모르겠다	210	23.68	128	11.52
無應答	16	1.80	17	1.53

<表4-23>　　赤十字會談의　方向（道別）

區　分	인도적 問題 局限		經濟文化交流會談으로 發展		政治會談으로 發展		其　他		모르겠다		無應答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　山	46	36.80	15	12.00	43	34.40	7	5.60	12	9.60	2	1.60
경　기	64	28.83	58	26.13	56	25.23	7	1.35	36	16.22	5	2.25
江　原	36	29.75	30	24.79	20	16.53			31	25.62	4	3.31
忠　北	31	32.98	14	14.89	36	38.30	4	4.26	8	8.51	1	1.06
忠　南	52	29.38	31	17.51	55	31.07			37	20.90	2	1.12
全　北	54	35.53	34	22.37	29	19.08	1	0.66	32	21.05	2	1.32
全　南	61	25.00	62	25.41	49	20.08	3	1.23	66	27.05	3	1.23
慶　北	65	22.41	55	18.97	96	33.10	15	5.17	52	17.73	7	2.41
慶　南	71	36.04	52	26.40	28	14.21	10	5.08	34	17.26	2	0.02
서　울	117	30.95	118	31.22	102	26.78	6	1.59	30	7.94	5	1.32

<表4-24> 赤十字會談의 方向(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인도적인 문제에 국한	257	29.39	339	30.19
경제문화교육회담으로 발전	244	27.89	225	20.04
정치회담으로 발전	257	29.37	256	22.8
기타	25	2.86	24	2.14
모르겠다	80	9.14	258	22.97
무응답	12	1.38	21	1.87

4. 赤十字 會談과 國民姿勢

「赤十字會談과 關聯하여 國民들이 경계하여야 할 点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설문에(우선순위로 세가지 제시)對한 反應은 다음 表와 같이 나타났다.

<表4-25> 南北赤十字會談과 國民姿勢(全體)

區分	1位		2位		3位	
	名	%	名	%	名	%
무장공비의 침투	773	38.6	307	15.3	287	14.3
국민정신의 해이	461	24.9	507	25.3	328	16.4
공산주의자들의 기만	300	15.0	473	23.6	394	19.7
통일이금방이루어진다는 생각	163	8.1	308	15.4	312	15.6
회담자체에 대한 지나친기대	182	9.1	269	13.4	452	22.6
其他	6	0.3	8	0.4	39	1.7
모르겠다	39	1.9	14	0.7	63	3.1
無應答	76	3.7	114	57	125	62

앞에 表에서 무드러지는 것은 무장공비 침투 경계(38.6%) 國民精神의 해이(24.9%)가 가장 경계할 点으로 들고 있다. 둘째로 경계하여야 할 事項中 注目할만한 것은 國民精神의 해이(25.3%), 공산주의자의 기만(23.6%)등이었다. 세째로 경계하여야 할 事項中 가장 많은 比率은 會談에 對한 지나친 期待(22.6%)이다.

5. 南北交流問題

가. 交流에 對한 賛反

앞에서 南北統一會談에 對한 설문에서 會談에 對한 賛成이 높았거니와 南北交流에 對해서도 賛成하는 反應이 큰가를 보기 위한 설문을 했는바 그 結果는 다음 表와 같이 나타났다.

<表 4-36> 南北交流의 妥當性(全體)

區分	名	%
해도좋다	952	47.6
해도안해도좋다	147	73
당분간안된다	381	19.9
북괴의 무력통일포기시까지불가	386	19.3
모르겠다	123	6.1
무응답	11	0.5

한편 所屬別로는 反應은 다음 表들과 같다.

區 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해도 좋다	363	52.53	247	47.05	181	48.27	100	42.37	69	34.91
해도 안해도좋다	34	4.92	35	6.67	29	7.73	25	10.59	24	14.20
당분간 안된다	135	19.54	112	21.33	74	19.73	30	12.71	29	17.16
북괴의 무력통일포기까지 불가	128	18.52	109	20.76	64	17.07	51	21.61	34	20.12
모 르 겠 다	30	4.34	20	3.81	27	7.20	27	11.44	19	11.24
무 응 답	1	0.14	2	0.38	-	-	3	1.27	4	2.37

<表 4-2ㅌ▶ 南北交流의 妥當性(教育水準別)

區 分	無學		國校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해 도 좋 다	164	36.12	377	52.73	297	48.21	114	53.02
해도 안해도좋다	54	11.89	54	7.55	34	5.52	5	2.33
당분간 안된다	69	15.20	120	16.78	132	21.43	60	27.91
북괴의무력통일포기시까지불가	89	19.60	127	17.76	138	22.40	32	14.88
모 르 겠 다	69	15.20	36	5.03	15	2.44	3	1.40
무 응 답	9	1.98	1	0.14	0	00	1	0.47

<表 4-29>　　南北交流의 妥當性(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해도 좋다	436	49.83	515	45.86
해도 안해도 좋다	54	6.17	93	8.28
당분간 안된다	191	21.83	19	16.92
북괴의 무력통일포기시까지	151	17.26	234	20.84
모르겠다	40	4.57	83	7.39
무응답	3	0.34	8	0.71

앞에 表에서 나타난 特徵을 分析하면

① 젊은층 일수록 交流에 贊成하는 率이 높다.

② 國民學校 以上인者는 無學者에 比하여 交流에 贊成하는 比率이 월씬크고 중립태도(해도좋고 안해도 좋다)의 比率은 적다.

나. 交流와 南北韓의 立場

「南北交流를 할 경우 우리와 북괴중 어디가 不利할 것인가」라는 설문에 對하여 韓國이 不利하다고 보는 이율이 28.1% 북괴가 不利하다고 보는 것이 30.1%, 비슷하다는 것이 26.4%, D.K. 군 14.4%로 나타났다. 즉 비슷한 數가 韓國 및 북괴에게 不利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며는 우리가 不利하다고 보는 理由는 무엇인가를 보면 다음表와 같은 反應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보면 북괴가 交流를 利用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大部分(87.9%)이다.

한편 북괴가 不利하다고 보는 가장 큰 理由는 비참한 生活上暴露(39.0 %) 독제체제의 붕괴(27.2 %). 北韓同胞의 南韓동경(21.4 %)등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4-30 > 南北交流時 韓國分離理由

區 分	名	%
북괴가 간첩을 보낸다	179	31.79
북괴의 선전에 국민이 속는다	202	35.88
政治的으로 利用된다	114	20.25
社 會 的 不 安	61	10.83
其 他	1	0.18

<表 4-31 > 南北交流時 북괴不利 理由

區 分	名	%
비참한 生活相 暴露	235	38.97
戰爭準備가 일려진다	59	9.78
北韓同胞가 南韓을 그리워한다	129	21.39
독제체재가 무너진다	164	27.20
其 他	7	1.16
無 應 答	1	0.17

6. 家族 交流時의 態度

南北赤十字 會談이 成功하여 南北間의 往来가 실현된 경우 어떠한 態度를 取할 것인가를 알아보았다. 이에상 태도는 이북에 家族 및 친척이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자간에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家族 有無를 먼저 들은 結果 다음과 같이 없다는 사람이 81.9 % 있다는 사람이 17.1 % 였다.

<表 4-32> 월북가족유무 (전체)

區分.	名	%
부모, 처자 (남편)	60	3.0
조부모 (손자) 형제	57	2.8
사촌 (내외종, 이종)	87	4.3
처가 10촌 이내	48	2.4
기타 친척	88	4.4
없다	1,639	81.9
무응답	21	1.0

北韓에 家族 및 친척이 있는 340名中 137名은 北韓에 가서 맞나 보겠다는 態度이고 68名은 便紙만 보내겠다 또 68名은 住所만 알아 보겠다는 態度이며 찾아와도 안맞나겠다는 사람은 不過 5名이고 지금으로서는 말할 수 없다는 사람이 78名, 아무것도 않하겠다는 사람이 28名으로 나타났다. 結局 이산가족의 약반수는 越北하여 家族과 맞나겠다는 態度다.

한편 이북에 어떠한 친척이 있느냐에 따라 交流時의 態度와 交流에 對한 贊成度는 다음 表와 같이 나타났다. 다음 表들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까운 친척 및 이북에 있는 사람은 越北訪問을 하겠다는 態度를 보이고 南北交流에 對해서도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

交流賛反 / 交流時態度	해도좋다		해도안해도무방		당분간불가		둑과무력통일포기		모르겠다		無應答		계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家族친지방문	16	59.26			3	11.11	5	18.52	3	11.11			27
安否便紙	4	66.67			1	16.67			1	16.67			6
生死確認	3	37.50					5	62.50					8
만나지않겠다									1	100.00			1
아무것도하지않겠다							1	100.00					1
달할수없다	3	33.33			1	11.11	3	33.33	2	22.22			9
無應答	4	50.00			4	50.00							8
計													60

<表 4-34 > 離散家族의 態度 (父母, 兄弟 . 이산의 경우)

交流時態度 \ 交流賛反	해도좋다		해도안해도좋다		당분간불가		북괴무력통일포기시		모르겠다		無應答		計 (57名)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越北訪問	15	57.69	1	3.85	4	15.38	6	23.08					26
安否便紙	1	25.00			2	50.00			1	25.00			4
生死確認	7	58.00			2	16.67	1	8.33	2	16.67			12
마나지 않음					2	66.67			1	33.33			3
아무것도안함													
말할수 없음	7	63.64			3	27.27	1	9.09					11
無應答	1	100.00											1

<表 4 - 35 > 이산家族의 態度 (四寸이산의 경우)

交流時態度 \ 交流賛反	해도좋다		해도안해도무방		당분간불가		북괴무력통일포기시		모르겠다		無應答		計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越北訪問	18	50.00	3	8.33	5	13.89	6	16.67	3	8.33	1	2.78	36
安否便紙	11	44.00	1	4.00	6	24.00	7	28.00					25
生死確認	5	41.67			2	16.67	5	41.67					12
만나지 않음													
아무것도 안함							1	10000					1
말할수없다	6	60.00	1	10.00	2	20.00	1	10.00					10
無應答	3	100.00											3
													計 87

<表4-36> 이산家族의 態度(10寸以內이산의 경우)

交流賛反 / 交流時態度	해도좋다		해도안해도좋다		당분간불가		북괴무력통일포기시		모르겠다		無應答		計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越北訪問	6	66.67			3	33.33							9
安否便紙	8	47.06	1	5.88	3	17.65			5	29.41			17
生死確認	4	36.36	1	9.09	2	18.18			2	27.27			11
만나지 않음													
아무것도 않함	1	10000											1
말할수 없음	6	75.00							2	25.00			8
無應答	1	50.00	1	50.00									2
												計	48

<表4-37> 이산家族의 態度(其他친척의 경우)

交流賛反 / 交流時態度	해도좋다		해도안해도좋다		당분간불가		북괴무력통일포기시		모르겠다		無應答		計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越北訪問	11	47.83	3	13.04	5	21.74	3	13.04	1	4.35			23
安否便紙	7	53.35	1	7.69	2	15.38	1	7.69	1	7.69	1	7.69	13
生死確認	10	58.82	5	29.41			2	11.76					17
만나지 않음							1	100.00					1
아무것도 안함	1	25.00			1	25.00	2	50.00					4
말할수 없음	13	56.52	2	8.70	3	13.04	4	17.39	1	4.35			23
無應答	3		3		1								7
												計	88

7. 交流의 우선順位

南北間의 交流는 여러가지 形態를 豫想할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書信往来, 體育敎育, 記者往来, 家族訪問, 성묘에 局限하여 交流의 우선順位를 물어 보았는바 그 結果는 다음 表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書信往来를 1位로 제시하고(47.7%), 또 상당수가 기지왕래를 제시(22.7%)하고 있다.

한편 第5位로 보는것 中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過半數以上(55.1%)이 성묘를 돌고 있다.

<表 4-38> 南北交流의 우선順位

區分	1位		2位		3位		4位		5位	
	名	%	名	%	名	%	名	%	名	%
書信往来	954	47.7	448	22.4	368	18.4	116	5.8	42	2.1
體育交流	257	12.8	460	23.0	466	23.3	425	21.2	300	15.0
記者往来	435	21.7	459	22.9	410	20.5	326	16.3	261	13.0
家族訪問	236	11.8	453	22.6	411	20.5	663	34.1	152	7.6
성묘	61	3.0	121	6.0	281	13.0	330	16.5	1103	55.1
無應答	1	-	59	2.9	64	3.1	140	6.9	142	7.0

第 5 編　其他事項에　対한　意見

1. 8·15宣言　評価

　가. 宣言의　妥当性　与否

　나. 妥当　및　不当性의　理由

2. 統一에　対한　指導者型

3. 統一에　対備한　施策方向

4. 統一院의　役割

第 4 編　其他事項에 対한 意見

1. 8.15宣言評價

가. 宣言의 妥當性 與否

昨年 8月15日 光復節을 期해서 북괴에 對하여 平和統一宣言을 한바 있는데 1年여가 지난 現在 그것에 對한 妥當性 與否를 어떻게 評價하고 있는가를 물은 結果는 다음 表와 같다.

<表5-1>　　8.15宣言評價(全體)

區　　分	名	%
들은일없다	384	19.2
잘 한 일	1,121	56.0
잘못한일	195	9.7
모르겠다	273	13.9
無應答	22	1.0

한편 所屬別로 본 反應은 다음 表들과 같다.

<表5-2>　　8.15宣言評價(年令別)

區　　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들은일없다	120	17.37	82	15.62	65	17.33	57	24.15	59	34.91
잘 한 일	430	62.23	323	61.52	209	55.73	105	44.49	52	30.77
잘못한일	74	10.71	59	11.24	37	9.87	14	5.93	11	6.51
모르겠다	63	9.12	54	10.29	58	15.47	57	24.15	46	27.22
無應答	4	0.53	7	13.3	6	1.60	3	1.27	1	0.59

<표 5 - 3>　　8.15 宣言評價 (敎育 水準別)

區分	無學		國民		中高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들은 일 없다	166	36.56	158	22.10	58	9.42	2	0.93
잘한 일	128	28.19	369	51.61	456	70.03	168	78.14
잘못한 일	20	4.41	69	9.65	70	11.36	36	16.74
모르겠다	136	29.96	112	15.66	26	4.22	4	1.86
無應答	4	0.88	7	0.98	6	0.97	5	2.33

<표 5 - 4>　　8.15 宣言　評價 (職業別)

區分	農業		非農業	
	名	%	名	%
들은 일 없다	214	24.13	170	15.30
잘한 일	421	47.46	699	62.92
잘못한 일	78	8.79	117	10.53
모르겠다	163	18.38	115	10.35
無應答	11	1.23	10	1.00

<表5 - 5>　　8.15宣言 評價 (道別)

區分	돌은일없다		잘한일		잘못한일		모르겠다		無應答	
	名	%	名	%	名	%	名	%	名	%
鑑山	7	5.60	92	73.60	10	8.00	14	11.20	2	1.60
경기	48	21.62	123	55.41	17	7.66	31	13.96	3	1.35
江原	28	23.14	71	58.68	7	5.79	14	11.57	1	0.83
忠北	25	26.60	47	50.00	12	12.77	10	10.64		
忠南	51	28.81	98	55.37	5	2.82	23	12.99		
全北	26	17.11	91	59.87	10	6.58	24	15.79	1	0.66
全南	61	25.00	96	39.34	23	9.43	62	25.41	2	0.82
慶北	50	17.24	147	50.69	40	13.79	46	15.86	7	2.41
慶南	54	27.41	101	51.27	15	7.61	26	13.20	1	0.51
서울	34	8.99	255	67.46	56	14.81	28	7.41	5	1.32

<表5-6>　　8.15宣言 評價(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돌은일 없다	107	12.23	277	24.67
잘한일	581	66.4	540	48.09
잘못한일	104	11.89	91	8.1
모르겠다	69	7.89	29	18.61
無應答	14	1.6	6	0.54

앞에 表에서 보듯이 잘한일로 評價하는 사람이 過半数(56%)이고 못한일로 評價하는 사람은 9.7%에 不過하다. 그러나 特異한 것은 돌은일 없다는 사람이 19.2%에 달하는바 이들은 당시에는 들었지만 1年이 經過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反應은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나. 妥當 및 不當性의 理由

잘한일로 본 1121名中 49%가 그 理由로서 平和統一努力을 世界에 알렸다는 点을 들고있고 27%가 現實的 제안이라는 것을 理由로 들고 있으며 15.2%가 북괴에 對하여 統一 주도권을 장악하였다는 点을 들고있고 5.7%는 북괴도발을 中止시킬 수 있다는 点을 들고 있다.

의의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의 所屬別 그 理由는 다음 表들과 같다.

<表5-7> 宣言의 適合理由(年令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世界에平和統一努力주지	228	33.00	175	33.33	94	25.09	42	17.80	23	13.61
現實的提案	103	15.63	87	16.57	64	17.07	33	13.98	14	8.28
對北統一공세주도권장악	72	10.42	45	8.57	44	11.73	13	5.51	7	4.14
북괴의 武力挑發抑制	24	3.47	15	2.86	11	2.93	13	5.51	5	2.91
其他	5	0.72	3	0.57	6	1.60	5	2.12	3	1.78
應答不要	252	36.47	199	37.90	156	41.60	129	54.66	117	69.23
無應答	2	0.29	1	0.19	-		1	0.42	-	-

<表5-8> 宣言의 適合理由(教育水準別)

区分	無學		國民		中高		大學以上	
	名	%	名	%	名	%	名	%
세계에평화통일노력주지	59	13.00	195	27.27	224	36.36	86	40.00
現實的提案	37	8.15	91	12.73	136	22.08	43	20.00
대북통일공세주도권장악	12	2.64	58	8.11	79	12.82	32	14.88
북괴의무력도발억제	18	3.96	26	3.64	19	3.08	5	2.33
其他	5	1.10	11	1.54	3	0.49	3	1.40
無應答	2	0.44	0	00	1	0.16	1	0.47
應答不要	321	70.70	334	46.71	154	25.00	45	20.93

<表5-9> 宣言의 適合理由(職業別)

區分	農漁		非農漁	
	名	%	名	%
世界에 平和統一努力주지	213	24.01	350	31.50
現實的提案	105	11.84	201	18.09
대북통일공세주도권장악	73	8.23	108	9.72
북괴의 武力挑發抑制	30	3.38	38	3.42
其他	11	1.24	11	0.99
無應答	2	0.23	2	0.18
應答不要	453	51.07	401	36.09

<表 5 - 10>　　宣言의　適合理由（道別）

區　分	세계에평화 통일노력주지		現實的提案		대북통일공세 주도권장악		북괴에무력 도발억제		其　他		無　應　答		應答不要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名	%
釜　山	50	40.00	26	20.00	8	6.40	7	5.60	4	3.20			30	24.00
경　기	71	31.98	28	12.61	18	8.11	5	2.25					100	45.05
江　原	23	19.01	32	26.45	11	9.09	5	4.13			1	0.83	49	40.50
忠　北	28	29.79	6	6.38	12	12.47	1	1.06					47	50.50
忠　南	46	25.99	32	18.08	14	7.91	7	3.95	3	1.69			75	42.37
全　北	46	30.26	21	13.82	12	7.89	9	5.92	3	1.97			61	40.13
全　南	60	24.59	16	4.51	17	6.97	7	3.87	1	0.41	2	0.82	146	59.84
慶　北	55	18.97	43	14.83	46	15.86	13	4.48	6	2.07			127	43.79
慶　南	61	30.96	28	14.21	6	3.05	2	1.02	1	0.51			99	50.25
서　울	124	32.80	80	21.16	37	9.79	12	3.17	4	1.06	1	0.26	120	31.75

<表 5-11>　　宣言의 適合理由 (市·郡別)

區分	都市		農村	
	名	%	名	%
세계에 평화통일노력주지	289	33.03	275	24.49
現實的 提案	159	18.17	146	13.00
대북통일공세주도권장악	100	11.43	81	7.21
북괴의 武力挑發抑制	30	3.43	38	3.38
其他	14	1.6	8	0.71
應答不要	283	32.34	575	51.2

이에 對해서 의의가 없다고 보는 사람 (195명) 中 37.4%는 宣言後에도 북괴의 武力挑發을 中止시킬 수 없었다는 点을 理由로 들고 있고 35.4%는 북괴에게 하등의 効果를 못주었다는 点을 들고 있으며 17.4%는 북괴가 수락할 수 없다는 提案이라는 것을 들고 있고 51%는 북괴가 繼續 UN을 부인하고 있다는 点을 들고 있다.

2. 統一에 對備할 指導者형

북괴와 대결하여 승공통일을 하기 爲해서는 指導者의 役割이 重要한 要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統一에 對備하여 어떠한 指導者가 가장 適合한 가를 물은 結果 다음 表와 같이 過半數 以上이 判斷性있고 強力한 指導者를 適格者로 보고 있다.

<표 5-12> 統一對備와 指導者형(全體)

區分	名	%
果斷性과 強力性	1,032	51.5
젊은과 大衆的	205	10.2
知識과 德望	307	15.3
공명정직	340	17.0
其他	12	0.6
모르겠다	86	4.3
無應答	18	0.8

한편 所屬別로 그 反應을 本 結果의 特徵은 다음 몇가지로 要約할 수가 있다.

① 젊은 層은 노년 층에 比하여 과단성과 強力性을 統一에 對備한 適合한 指導者의 자질로 보는 傾向이 있다.

이것은 젊은 층이 노년층 보다 活動的이고 積極的인 性格을 지니가 때문에 나타난 結果라고 본다.

(2) 敎育水準이 높은 者는 낮은 者보다 과단성과 強力性을 내세우는 比率이 크다.

(3) 商業自營業人과 都市民이 그 反對인 者 보다 과단성과 強力性의 指導者를 더 많이 추구하고 있다. (다음 表들 參照)

<表 5-13> 統一對備의 指導者형 (年令別)

區分	20代		30代		40代		50代		60代	
	名	%	名	%	名	%	名	%	名	%
과당성과 강력성	402	38.18	285	54.20	193	51.47	99	41.95	51	30.18
겸손과 대중적	60	8.68	50	9.54	41	10.93	33	13.98	21	12.43
지식과 덕망	98	14.18	81	15.46	49	13.07	46	19.49	31	18.34
공명정직	93	13.60	89	16.98	71	18.93	43	18.22	43	25.44
기타	3	0.43	3	0.57	4	1.07			2	1.18
모르겠다	25	3.62	13	2.48	12	3.20	15	6.36	21	12.43
무응답	9	1.30	4	0.76	5	1.34				

<表 5-14> 統一對備의 指導者형 (教育水準別)

區分	無學		幽民		中高		大學	
	名	%	名	%	名	%	名	%
과단성과 강력성	170	37.44	373	52.10	352	57.14	137	63.72
겸손과 대중적	54	16.74	77	10.78	56	9.09	18	8.37
지식과 덕망	76	16.74	101	14.15	99	16.07	31	14.42
공명정직	101	22.25	130	18.21	83	13.47	26	12.09
기타	7	1.54	2	0.28	2	0.32	1	0.47
모르겠다	44	9.69	27	3.78	14	2.27	1	0.47
무응답	2	0.44	5	0.70	10	1.62	1	0.47

<表 5-15>　　統一對備의　指導者형（職業別）

區　　分	農　　漁		非　農　漁	
	名	%	名	%
과당성과　강력성	419	47.18	612	55.09
점손과　대중적	110	12.42	94	8.46
지식과　덕망	148	16.70	159	14.31
공 명 정 직	148	16.70	192	17.28
기　　타	5	0.56	7	0.63
모 르 겠 다	53	5.98	33	2.97
무　응　답	4	0.46	14	1.26

<表 5-16>　　統一對備의　指導者형（市．都別）

區　　分	都　　市		農　　村	
	名	%	名	%
과당성과　강력성	484	55.31	547	48.66
점손과·대중적	76	8.69	128	11.41
지식과　덕망	127	14.51	180	16.04
공 명 정 직	152	17.37	188	16.76
기　　타	5	0.57	7	0.62
모 르 겠 다	18	2.06	68	6.06
무　응　답	13	1.48	5	0.45

3. 統一에 對備한 施策方向

統一에 對備하여 어떠한 政策을 實施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설문을 自由問答 方式에 依해서 물은 結果는 다음 表와 같이 무드러진 것이 없고 다만 經濟向上이 다른 것에 比하여 약간 앞선 比率로 나타났다.

<表 5-17>　　統一對備傾勢(全 體)

區　　分	名	%
政 治 安 定 (정화)	181	9.0
經 濟 向 上	338	16.9
國防力 強化(도발분쇄)	235	11.7
社 會 安 定(정 화)	102	5.1
反 共 精 神(체제)確立	129	6.4
南北(赤十字)會談促進	100	5.0
국위선양(외교강화)	135	6.7
국 민 계 몽(홍화)	173	8.6
無　　應　　答	605	30.2

4. 統一원의 役割

통일원이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對한 反應에 있어서는 연구와 더불어 統一活動까지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研究와 政策樹立만 하여야 한다는 意見보다 많다. 즉 다음과 같이 研究 및 政策樹立機能만 遂行하도록 要求하는 意見이 35.0%인데 對해서 統一活動까지 하도록 要求하는 意見은 45.3%에 이르고 있다.

<表 5-18>　　統 一 원 의　 할 일

區　　分	名	%
研究 및 政策樹立	700	35.0
研究 및 活動	907	45.3
其　　他	59	2.9
모 르 겠 다	299	14.9
無　應　答	35	1.7

앞의 表와 같이 國民은 統一院에 對해서 研究뿐만 아니라 實踐的인 活動까지도 要望하고 있다. 이것은 最近의 赤十字 會談과 關聯되어 나온 反應인듯 하다.

(上에서 統一에 關한 意見, 統一과 關聯된 情緖(感情), 反共 및 韓民族의 使命, 南北交流(交換)에 關한 意見 그리고 統一과 關聯된 基礎調査에 關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第3部 結論 및 建議

1. 結論

大部分의 國民이 統一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다. 關心을 가지는 사람의 수(89.7%)와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수(91.5%)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國民의 약 90%가 統一을 바라면서 統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統一은 빨리 되어야 하고 또는 必要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統一이 될 것이라고는 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5年內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20年內로 보는 사람이 全體中에 約 절반(38.9%)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統一이 늦게 이루어지리라 보기 때문에 國民의 大部分은 먼저 經濟建設(43.1%)과 强化(21.4%), 戰爭防止等을 先行시켜 統一基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統一이 안된 責任이 북괴(21.

-203-

第 3 部 結論 및 建議

1. 結 論

以上에서 統一에 關한 意見, 統一과 關聯된 情勢觀(북괴에 대한 評價), 反共 및 勝共意識의 程度, 南北交流(赤十字會談)에 대한 意見 그리고 統一과 關聯된 其他問題들에 대한 國民들의 意見과 態度를 살펴 보았거니와 그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은 特色을 찾을 수 있다.

첫째, 大部分의 國民이 매스·콤手段을 通해서 統一問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으면서(82.7%) 統一問題에 대한 關心을 많이 가지고 있다. 關心을 가지는 사람의 수(89.9%)와 統一이 꼭 達成되어야 한다는 수(91.5%)는 비슷하게 나타났는바 이점으로 미루어보아 國民의 약 90%가 統一을 바라면서 繼續 그問題에 關心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절대다수가 統一이 꼭 되어야 하고 또는 繼續的인 關心을 表示하고 있으나 그들 全部가 곧 統一이 될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다. 5年內에 이룩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10年內나 20年內로 보는 사람들이 全體中에 約 半數(28.9%와 1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統一이 곧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國民의 大部分은 먼저 經濟建設(43.1%)과 國防力強化(21.6%), 政治安定等을 先行시켜 統一基盤을 닦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統一이 안된 責任이 북괴(21.5%),

북괴와 소련(21.9%)에게 있다고 보고 統一을 저해하고 있는 要因이 북괴의 武力挑發(39.7%)과 주체역량 부족(19.4%)에 있다고 보고 있는 우리國民으로서는 북괴에 對하여 이기는 統一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自體基盤을 튼튼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세째, 우리自體의 統一基盤을 닦어감에 있어서 國民이 어떤 姿勢를 取해야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國民이 政府와 協助(67.0%)하면서 政府와 國民이 共同主體(62.1%)가 되어 統一에 對備하고 推進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國論과 國民統合下에서 統一에 對處해야 할 우리의 現實에서 보면 다행한 國民思考라고 하겠다.

네째, 이렇게 우리 自體의 基盤을 닦아 가면서 우리가 追求할 統一의 方法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政府와 國民의 協助를 國民들이 받아 들이면서도 統一方案에 대해서는 우리 政府가 公式的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엔監視下의 人口比例에 依한 總選擧」에 대한 支持率이 不過 27.0%에 不過하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南北協商이 훨씬 많은 支持(37.1%)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中共의 유엔加入에 따를 유엔不信感과 現在 進行되고 있는 赤十字會談등이 影響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統一政策에 새로운 도전요인이 아닐수 없다.

다섯째, 國民들의 國際情勢에 대한 關心은 매우 낮은 편(美, 中共接近問題에 대한 D.K率이 33.1%, 中共의 유엔加入問題에 대한 D.K率이 37.4%)이지만 美軍撤收에 대해서는 예민한 反應(D.K率 5.2%)을 보이고 있다. 特히 美軍駐屯을 바라는 數는 85.5%(當分間 駐屯이 41.9%), 統一時까지 駐屯이 43.6%나 된다. 이것은 國民의 머리속에는 아직도 우리의 安保를 外國에 依存하려는 意識의 強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따라서 美軍의 全面的 撤收는 國民에게 커다란 不安感을 안겨줄 것으로 豫想된다.

여섯째, 南北韓의 生活에 대한 比較, 評價에 있어서는 大部分의 國民이 韓國의 우위(生活全般이 84.4%, 經濟力이 72.2%를 主張하고 있으나 軍事力比較에 대한 評價는 비슷한 比率(韓國優位가 36.1%, 북괴優位가 33.0%)을 보이고 있고 북괴의 優越한 것으로 空軍力(36.2%)과 陸軍力(27.5%)을 세우는 것이 特徵이다.

일곱째, 北韓同胞(共産主義者 包含)에 대한 說得의 自信度는 結局 國民 스스로가 勝共姿勢를 確立시키고 있는가를 測定할 수 있는 좋은 資料라고 보겠는데 說得할 自身이 있다는 수(42.2%)가 소극적인 態度(만나봐야 알겠다의 39.9%와 自信없다의 9.0%)에 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共匪事件에 不安을 느낀者의 數(36.4%)도 結局 自信이 없는 層이라고 생각할때 國民中 勝共理念이 確立됐다고 스스로 評價하고 있는 者는 過半數도 못된다고 하겠다.

여덟째, 勝共理念이 確立되어 있지 못함에도 不拘하고 反共講演會에는 參席하지 않는 傾向(參席한 일이 있는 者가 38.2%인데 한일이 없는 者는 60.8%임)을 보이고 있어서 反共 및 勝共을 위한 社會敎育에 問題點을 던져 주고 있다. 講演會에 參席한 사람은 勝共 및 反共精神姿勢를 確立하는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參席한 일이 있는者 중에서 27.7%가 反共 및 勝共關係知識을 얻었으며 34.1%가 北韓의 實情에 대한 知識을 얻었다고 함)

國民의 勝共理念을 確立하기 위해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는데도 國民들은 現存 反共団體의 存續(統合을 包含)을 바라고 있고(50.5%) 改編을 願하는 數는 26.3%에 不過한 實情

이다.

아홉째, 북괴와의 對話問題는 統一政策에 있어서 重要한 意味를 지닌다고 하겠는데 統一問題를 놓고 북괴와의 會談에 대해서 國民의 過半数(57.2%)가 贊成의 뜻을 表示(反對는 26.29)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赤十字會談을 잘한일로 보는것(87.4%)은 當然하다. 그러나 赤十字會談의 方向에 있어서는 決定的 意見이 形成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도문제에 국한이 29.8%, 經濟文化交流로 會談擴大者 23.4%, 政治會談으로 擴大가 25.7%) 그러므로 政府의 國民敎育 및 啓蒙에 있어서 이것은 重要한 課題가 아닐수 없다고 하겠다.

열째, 南北會談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反應을 보였으나 交流問題에서는 신중한 態度를 보였다. 交流에 대한 贊成과 反對가 거의 비슷한 率(47.6%對 38.9%)로 나타났고 交流時 不利한 쪽에 대한 評價도 비슷(韓國 不利가 28.1%, 북괴 不利가 30.1%)하다. 交流를 하는 동안 북괴가 惡用할 念慮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態度가 나왔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交流도 북괴가 惡用하기 어려운것 부터 段階的으로 實施하자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即 書信往來, 記者交流, 體育交流, 家族訪問, 성묘의 順으로 實施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見이다. 그러나 以北에 家族을 두고온 사람들은 交流가 實施되면 越北하여 家族을 만나겠다는 사람과 所在確認과 書信交換만 하겠다는 波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越南家族과 그렇지 않은者의 態度에는 큰 差異가 나고 있다. 이것은 南北交流問題를 다루는데 있어 解決해야할 매우 어려운 課題가 아닐 수 없다.

열한째, 過半数 以上(56.0%)이 8.15宣言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있고 統一을 이룩어가기 위한 指導者像으로 強力하고 과단성 있는 指導者를 願하고 있다. (51.5%) 그러한 指導者의 領導下에 經濟向上(16.9%)과 國防力強化(11.7%) 政治安定과 明朗化(9.0%), 국민총화와 단결(8.6%), 外交強化(6.7%), 精神武装(6.4%), 社會淨化(5.1%)등을 強力히 推進하여 勝共民主統一의 基盤을 닦아야겠다는 것을 國民은 바라고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보듯이 國民의 意識은 大體로 健全하나 젊은 層과 知識層이 政府施策에 앞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不安意識, 성급한 赤十字會談에 대한 期待와 그것에 의한 統一達成의 期待, 과도한 통일열의등 몇가지 問題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의 政策執行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마저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政策的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건 의

國民의 여러가지 期待가 現實的으로 可能한 것인가를 신중히 檢討하여 可能한 것은 곧 實行에 옮길 것이며, 不可能한 것이면 國民을 善導할 것이 要望되는데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措置가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1) 社會的 知識(매스·콤이 주로 지식보급원이 됨)에 따라 國民의 意識도 크게 달라짐으로 言論의 善導가 무엇보다 重要視되어야 한다.

(2) 過渡한 統一論議로 統一熱望度를 過熱시켜 감상적 民族主義에 의한 북괴선전에의 현혹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統一의 現實的 與件에 대한 充分하고 납득할 정도의 홍보활동이 強化되어야 한다.

(3) 健全한 安保觀과 共産主義者에 대한 勝利의 確認度 및 부패성을 國民 精神속에 注入시켜야 한다. 不安 및 危機意識은 國民団結을 促進할수도 있지만 그것이 敗北意識에 까지 發展하지 않도록 극력 防止해야 한다.

(4) 知識水準이 높은가일수록 勝共確信度가 높다는 점을 勘案하여 國民에 대한 政治敎育이 強化되어야 한다.

(5) 講演會의 方式보다도 매스·콤을 通한 國民敎育에 치중할 것이다.

(6) 이산가족에 대한 特別精神敎育을 위하여 以北 五道廳의 면밀하고 적극적인 善導가 있어야 한다.

(7) 諸般政策이 統一과 連結되도록 하여야 하며 關係部處의 政策은 統一政策과 조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원의 高級官員(次官 또는 室長)가 委員長이 되고 關係部處의 實務者(企劃擔當)가 委員이 되는 「統一政策實務者會議」(仮稱)를 둘 必要가 있다. 고차적인 政策調整은 國務會議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實務的인 政策調整을 하기 위해서이다.

(8) 보다 効果的인 統一研究를 위해서 現在 實施하고 있는 研究委員(非常任)制를 廢止하고 研究機關別로 部門別 課題를 割當하여 該當機關의 責任아래 研究報告토록 해야 한다.

(9) 廣範한 各界指導者의 意見을 聽取한다는 점에서 「諮問委員」制를 存續시키되 그 効果的 活用을 위하여 事前研究(그것을 위한 資料의 提供)를 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해야 한다.

(10) 綜合的인 計劃下에 反共運動을 展開하기 위해서는 団體의 一元化가 이루어져야 한다.